

분자들을 규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독일에서의 바이트링의 비밀 공산주의적 결사와 같이 그윈류가 바부프의 음모단에서 나오고 있었다.

전출의장 [제 5 장] 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856?62 년은 자연과학과 철학의 비상한 고조高潮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또 유럽과 아메리카에서의 급진 사상의 거의 전반적인 정치적 부흥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들 두 가지 운동은 노동자 대중을 각성시켰으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어깨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과업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1862 년의 만국 박람회는 세계 산업의 위대한 축제로 보였고 노동자의 자기 해방 투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 노동자 협회가 일체 구식의 제 정당과의 절연絶緣을 소리 높여 선언하고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해방을 쟁취할 결의를 표명했을 때, 그것은 도처에서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실제로 인터내셔널은 라틴계 제국에 급속히 퍼져 나갔다. 그 전투력은 얼마 안 가서 위협적인 규모로까지 도달했다. 다른 한편으로 각 연합 조직의 대회나 전 인터내셔널의 연차 대회는 사회 혁명이란 어떤 것이 아니면 안 되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노동자 자신들이 스스로 토의 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노동 대중의 창조력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과 소비를 위한 새로운 결합 형태를 탐구케 했다.

당시는 어디에서나 머지 않아 유럽에 대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취해야 할 정치적 형태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혁명의 제 1 보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료한 관념은 아직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전혀 대립하는 사회주의의 여러 사조가 한 당에 모여서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 협회의 지배적 사상은 경제적 기반에서 행해져야 할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직접 투쟁 - 즉 부르주아지가 합의하는 입법에 의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이 힘으로 자본가로부터 양보를 뺏아내어서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항복시킨다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노동의 해방이었다.

그러나 자본가의 굴레에서 노동자를 해방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달성 될 것인가. 생산과 교환의 신 조직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1864?70 년의 사회주의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것은 꼭 1848 년의 파리에 설치된 공화국의 헌법 제정의 회에 참집한 각 종 사회주의적 학파의 대표들의 경우와 같았다.

1848 년의 프랑스의 선구자들 - 그들의 다양한 희구는 콘시데란에 의하여 『구세계에 직면한 사회주의』에서 보기 좋게 요약되고 있다 - 과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자들도 하나의 깃발 아래 규합되지는 못했다. 그들은 가지각색의 해결책 사이를 동요하고 있었는데 그중의 어느 것도 지성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았다. 뿐더러 진보적 지성의 소유자인 사회주의자 자신들에 있어서조차 자본과 국가권

현대 과학과 아나키즘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1930

차례

1. 아나키즘의기원	4
2. 18 세기의지적운동	8
3. 19 세기초의반동	12
4. 콩트의실증철학	17
5. 1856 - 1862 년사이의각성	20
6. 스펜서의종합철학	26
7. 사회에있어서의법의역할	30
8. 근대과학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지위	35
9. 아나키스트의이상과선행의제혁명	38
10. 아나키즘	41
아나키즘의제이념 - 고대중세 - 푸르동 - 슈티르너	44
11. 아나키즘 (속)	47
인터내셔널내부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권위주의적공산주	
의자와상호주의자	47
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사회주의제이념 - 생시모니즘	50
12. 아나키즘 (속)	55
인터내셔널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푸리에주의	55
파리코뮌이준충격 - 바쿠닌	59
13. 아나키즘 (속)	64
현상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관념	64
국가의부정	67
개인주의적조류	70

11. 아나키즘 (속)

인터내셔널내부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권위주 의적공산주의자와상호주의자

이상에서우리는프랑스혁명과고드윈에서시작하여푸르동에이르는
아나키즘이념의발전을살펴봤다. 그후의발전은국제노동자협회 - 즉보
불普佛전쟁발발직전의 1866?70 년간에노동자에게는커다란희망을안
겨주고부르주아에게는크나큰공포를일으킨이협회속에서이루어졌다.

이협회가 - 마르크스주의자들이즐겨주장하듯이마르크스에의하여
창설된것이아니라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주지하듯이그것은 1862
년런던에서열린제 2 회만국박람회를방문하러온프랑스노동자대표들
과그들을영접한영국노동조합대표및약간의영국급진파들과의회견의
결과였다. 이방문으로생긴유대는 1863 년의폴란드반란에즈음하여열
린동정의집회를기회로일층강화되고익년隔年에드디어협회가설립된
것이다.

이미 1830 년에영국에전국적대노동조합이창립되었을때, 로버트
오언은‘국제적전노동조합’을수립하려고계획한바있었다.

그러나영국정부가전국조합에대하여야만적박해를가하는폭거로나
갔기때문에이생각은포기되지않을수없었다. 하지만인터내셔널의이념
은사라진것이아니었다. 그것은영국에서는미적지근히그을리고만있었
지만프랑스에서지지를얻게되었다. 1847 년의혁명이패퇴한후프랑
스인망명자는이사상을갖고합중국으로건너가거기서『인터내셔널』지
紙를통하여전파했다.

1862 년에런던을방문한프랑스의노동자들은거의모두푸르동주의
자측상호주의자였다. 다른한편으로영국의노동조합원들은주로로버트
오언의학파에속하고있었다. 영국의‘오언주의’는이리하여프랑스의‘상
호주의’와손을잡았고, 그결과노동자의유력한국제조직의창조를보게되
었고, 주로경제적지반위에서고용주와싸웠으니순純정치적인급진적당
파와는일체절연하려고노력했다.

사회주의적노동자들간의이들의두주요경향의결합은, 마르크스기
타의사람들가운데서공산주의자들의비밀적정치결사의잔당에의한지
지를발견했다. 이비밀정치조직은바르베스와블랑키의비밀결사의잔존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에 의하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교환이란 개념은 독일에서도 1843 년과 1845 년에 모제스 헤스 및 칼 그루닝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 스위스에서는 빌헬름 마르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그들은 바이팅의 국가 공산주의적 교설의 주장자들 [그것은 프랑스의 바브프주의자들의 문하였다] 에 반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동조자를 모으고 있던 바이팅의 국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한 사람의 독일인 헤켈리안 막스 슈티르너 [본명 요한 카스파 슈미트] 가 나타나 1845 년에 『유일자와 그 소유』 를 냈다. 이 책은 그 뒤에 J.H 막케이의 손으로, 말하자면 재발견되어 아나키스트 서클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일종의 선언문으로 간주되어 큰 선풍을 일으켰다.

슈티르너의 저작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또한 만약 권위주의적 공산주의가 승리할 거둔다면 수립되어 질터인 새로운 폭정에 대한 반역이다. 슈티르너는 분명한 헤켈학과 형이상학적 사상가로서 사색하여 ‘자아’의 복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아모랄리즘 [무도덕주의]’과 ‘이기주의자의 조합’을 논설한다.

그러나 이미 아나키스트 저작가들, 최근에는 프랑스의 V. 바시교수가 그 흥미로운 노작 『아나키스트적 개인주의, 막스 슈티르너』 [파리, 1904] 에서 지적했듯이, 이 종류의 개인주의는 ‘완전한 발달’을 사회의 전성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어서 만인의 발달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그것은 금일 국가의 비호 아래 소수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위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 독점의 가면을 쓰고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특권적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발달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점은 그것에 상응하는 독점적 입법에 의한 보호와 국가로 조직된 강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이들의 개인주의자의 요구는 그들 자신이 강하게 비판하는 국가와 권력이란 개념으로 불가피하게 후퇴한다. 그들의 입장은 스펜서나 맨체스터 학파라 불린 경제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들 역시 국가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항상 국가를 최선의 보호자로 삼는 재산 독점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국가의 전기능을 승인하는 데서 끝나고 있는 것이다.

14. 아나키즘의 약간의 결론	75
15. 행동의 수단	83
16. 결론	91

1. 아나키즘의기원

‘아나키’라는관념은어떤과학적연구에서나온것도아니고어떤철학 체계에서나온것도아니다. 사회과학은지금도아직물리학이나화학 처럼정확성을가지기에이르지못하고있다. 풍토나기후의연구에있어서조차 1 개월또는 1 주일뒤에어떤날씨가될지미리말할수없는형편이다. 하물며사회학과같은미숙한학문을가지고바람이나비따위보다무한히복잡한사물을다루어장래에일어날사태를과학적으로예측할수있는것처럼주장한다는것은어리석은짓이라하겠다. 우리는과학자역시보통인간에불과하다는것, 그들이대부분상류계급에속해있다는것, 따라서그계급의편견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 더욱이그들이대부분국가의봉급을받고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그러니까‘아나키’란관념이대학에서나오지않았다는것은아주명백하다.

사회주의일반과마찬가지로, 또한다른어느사회운동과도마찬가지로아나키즘은민중속에기원起源을갖고있다. 그래서민중의운동으로전개되는한에서만그것은활력과창조력을발휘한다.

예로부터인간사회의내부에는사상과행동의두개의조류가서로싸워왔다. 한편으로대중또는민중은자기네의생활방식에따라사회적생활을가능케하기위하여, 평화를유지하기위하여, 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 그리고또협력을요하는온갖상황아래상호부조를실행하기위하여, 필요한술한제도를만들어내었다. 미개인부락의풍속, 습관, 촌락공동체, 그후는중세기도시들의산업길드, 이들의도시상호간의관계를조정하기위하여만들어낸국제법의기본원리들과기타다한제도는법률에의하여생긴것이아니라대중의창조적정신에의하여형성되고발달하여왔다.

다른한편, 어느시대에도나마법사, 요술사, 기우사祈雨師, 예언자, 승려, 신관神官등이있었다. 그들은자연에대한지식의최초의소유자였다. 또한각종종교적예배(태양숭배, 자연력숭배, 조상숭배등)를처음으로만들어내었다. 동시에각종족간의연결을확보하기위한각종의의식을창조했다.

이시대에는자연연구(천문학, 천기에보, 의학등) 의최초의맹아萌芽는여러가지의식과예배에표현된온갖미신과불가분하게결부되고있었다. 예술이나기예技藝도또한여기에기원을갖고있으며, 연구와함께한미신에서발생했다. 그리고이것들은모두신비적인형식으로정식화定

푸르동은처음으로[무지배자라는의미에서의] ‘아나키’란말을사용했고, 그리고또부자에의한빈자의억압을방어함과함께피지배자들을통제아래놓으려는그런정부를세우려고하는무익한노력을사정없이비판한최초의인물이다.

푸르동은국가사회주의의모든형태에대한적대자였다. 당시[19 세기의 30 년대및 40 년대] 의공산주의자들은이러한국가사회주의의일당一黨파를대표하고있었다. 그래서푸르동은이와같은혁명의전계획을맹렬히비판했다. 로버트오언에의하여제안된‘노동권勞動券’의제도를기초로해서그는‘상호주의’의관념을전개했는데, 이것은바로일체의통치적정부를무용의사족이되게하는것으로생각되었다.

푸르동은이렇게말했다. “모든상품의교환가치는사회에있어서당시각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량에의해서만계산되는것이므로사회에있어서의상품의전교환은노동권의지불을맡는국민은행을매개로행하여질수있다. 그리고청산소는각은행이금일행하고있는바와같이국민은행의전지점의수지결산을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이하여온갖사람들에의하여교환되는노동은등가等價로될것이다. 뿐더러국민은행은생산자의조합에대하여그생산에필요한상당액을화폐로서가아니라노동권으로대부貸付할수있을것이다. 이대부는무이자로된다. 왜냐하면은행의경비를마련하는데는 1 년에대부총액의 1 퍼센트또는그이하로서족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무이자대부라는제도에의하여자본은그유해한성격을상실하고착취의수단이되기를그칠것이다.”

다시말하면푸르동의자기의상호주의의제도를상세히전개하여국가와(통치적) 정부가불필요하고유해하다는사상을사실로써증했다. 그럴적에그는영국인의선구자들이있었음을알지못했던것같다. 그러나사실인즉그의강령의경제학적부분은이미 1824 년에영국에서저명한경제학자윌리엄톰슨에의하여전개되고있었다[톰슨은공산주의자로되기전에상호주의자였다]. 또한같은사상은그후영국의톰슨문하들 - 존그레이(1825?1831), 호지스킨(1825?1832) 및 J.T. 블레이(1839) 에의해서도전개되고있다. 물론이들의저자는푸르동과그의문하들처럼아나키즘을정식화하지는않았다. 그러나 - 영국의포크스웰교수가안톤멘가의주목한한책『노동전수익권勞動全收益權』[비엔나, 1886] 의영역에불인서문가운데서말하고있는바와같이 - 사실아나키즘의사조는이시대의영국사회주의의전체속에분명히맥박을치고있었던것이다.

함중국에서는조사이워렌이같은경향을대표했다. 그는처음에오언의콜로니‘뉴하모니’의일원이었는데그후공산주의의반대자로서1827 년에신시티에서생산물을노동시간으로계산원가치를기초로해서‘노동권’에의하여교환하는‘상점’을열었다. 이러한제도는 1865 년에이르기까지‘공평상점’, ‘공평점’, ‘공평가’라는명칭으로존속했다.

아나키즘의제이념 - 고대중세 - 푸르동 - 슈티르너

아나키스트적성질을 띤 민중의 운동은 문헌 속에도 나타나지 않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 중에 벌써, 즉 중국의 노자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폴로스, 유대인 학파 및 제논과 스토아 학파 중에 아나키스트적 제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나키즘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민중 가운데서 나온 것이지 소수 귀족의 학자들 가운데서 짚은 것이 아니었다. 뿐더러 이들의 학자는 민중의 운동에는 별로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사상가들은 대개 민중의 운동을 언제나 고무해 온 이념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철학자 또는 학자들은 강권적 경향과 계급제도적 규율의 정신 편에서 기를 택하는 것이었다. 과학의 여명기에도 그들이 즐겨 조사한 연구 대상은 통치의 기술이었다. 따라서 아나키스트적 경향을 띤 철학자들의 수가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중의 한 사람의 철학자는 그리스의 스토아 주의자 제논이다. 그는 (전제적) 정부가 없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역설하여 그것을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타난 국가주의적 유토피아에 대립시켰다. 제논은 벌써 인간에 있어서의 사회성의 본능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본능은 이기주의적 자기 보존의 본능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자연이 발달시킨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국경을 넘어 결합함으로써 전 세계적 '코스모스'를 수립하여 법률도, 재판소도, 사원도 필요치 않고 상호의 노력(勞力)을 교환하기 위한 화폐도 필요치 않게 될 시대를 예견했다. 그의 용어 자체도 급일 아나키스트들이 쓰는 표현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르바의 사교司敎 마르코 지로 라모비다도 1553년에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의 법률과 국가의 '최고의 부정의'에 대한 마찬가지의 반대론을 역설했다. 같은 사상은 후스주의자들 [특히 15 세기의 고예키] 과 초기의 재세레파들, 그리고 9 세기에 있어서의 그들의 선구자인 아르메니아의 합리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16 세기 전반의 라브레, 17 세기 말의 페르론, 특히 18 세기 후반의 백과전서파 디드로도 같은 사상을 전개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 약간의 실천적 적용을 봤던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즘의 정치? 경제적 원리를 처음 서술한 것은 1793년의 『정치적 정의에 관한 고찰』의 저자 영국인 윌리엄 고드윈이었다. 그는 아나키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근본 원리를 아주 훌륭히 밝혀 법률을 공격하고 국가가 필요치 않은 까닭을 논하고 재판소의 폐지에 의하여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 즉 모든 사회의 유일의 진정한 기초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권에 관해서 그는 뚜렷이 공유 共有주의를 요구했다.

式化되어 비전秘傳 전수자에게만 전하여지고 민중의 손에 닿지 않도록 신중히 보존되고 있었다.

이들의 과학 및 종교의 최초의 대표자들과 병행하여, 켈트족의 음유시인 吟遊詩人 이나 아일랜드의 브레혼 또는 스칸디나비아 제민족 간에 있던 법률 구술인들과 같이의 견대립이나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 누구나 그 재결裁決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통과 인습의 전승자로 간주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법을 자기의 기억 속에 보존했다 (때로는 기호記號의 도움을 빌려 보존했으니, 그것이 본래 문학의 시초였다). 그리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끝으로 전투단의 임시 지휘자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마법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들은 무기에 바르는 독약의 비방秘方, 기타 군사적 비밀을 쥐고 있었다.

이 3 종의 인간은 자고로 상호 간에 비밀 조직을 구성하여 그 전문 지식의 비법을 보존함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고통스런 습득에 의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했다. 가끔 그들 사이에 내분이 있을 때도 있으나 결국 서로 협력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대중을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네를 위하여 부려먹기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결속하고, 지원해 왔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아나키즘은 이러한 두 조류 중의 첫째에 속한다. 즉 소수 지배자에 대항하여 자기네를 옹호하기 위하여 관습법적 제도를 만들어 낸 대중의 창조적, 건설적 힘을 대표한다. 다른 아나키즘의 창조적 노력과 현대 과학과 기술의 힘에 바탕을 둔 민중의 건설 활동에 의거하여 아나키즘은 오늘날 사회의 자유로운 발달을 보증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아나키즘이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가혹한 규율을 갖고 민중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소수의 통치자에 의한 입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아나키스트와 국가주의자가 대립하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느 시대에나 모든 제도가 본래는 평등, 평화 및 상호 부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선의 제도조차도 노화함에 따라 고정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들의 제도는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소수 야심가의 지배하에 귀속하여 점차 일층 더 사회가 발달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하고 만다. 그럴 적에 다소간 고립한 개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반역하게 된다. 불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노화 老化的하여 억압적인 것으로 되고 만 제도에 반역하여 그것을 대중의 이익에 맞도록 개혁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에 위태로워 군림하여 그것을 그 지배하에 거두어 들인 권력을 타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자들은 사회제도 (부족, 촌락 공동체, 길드 등등)로부터 이탈하여 오로지 그 밖에, 그리고 그 위에서

려고하며, 사회의다른성원을지배하여그희생을발판으로자기네의부富를구축하려고기도한다.

무릇정치적, 종교적, 경제적개혁자는이두가지카테고리중의전자에속하고있다. 이들의개혁자중에는언제나다음과같은형의인물이있었다. 즉그동포의모두가, 아니그소수자마저같은견해에몰들기를기다리지않고자진하여압제에반역하고나서서, 다소라도많은군중을조직하기도하나따르는군중이없을때는단신으로싸우기조차주저하지않는다. 어느세상에나이러한형의혁명이있었던것이다.

그렇지만혁명가자신들도두가지다른방향을대표하고있었다. 한편은사회내부에발생한권력에대하여반역하기는했으나이권력을근절하려하지않고그것을자기의수중에넣으려했을뿐이다. 노후화하여억압적으로된권력대신에그들은새로운권력을형성하려고노력하고그권력의소유자가되려고했다. 그들은중중선의로이새로운권력이민중의이익을희구하는것이고, 민중의진정한대표자라고약속했던것이다. 하지만이약속은얼마안가서반드시그들이망각하게되거나아니면파괴되거나했다. 이리하여로마에있어서의황제들의권력, 그리스도교등장후최초의몇세기동안의교회권력, 중세의도시공화제최망기에있어서의독재자들의권력등이탄생하였다. 같은조류는봉건시대말기에있어서의유럽의왕권의형성에이바지하는바였다. ‘인민주의’의황제시제에대한신앙은오늘에이르기까지아직자취를감추지않고있는형편이다.

그러나이러한권위주의의조류와병행하여기성제도를재검토하려는 시기에는다른하나의조류가대두하고있었다. 그리스의옛날로부터오늘에이르도록어느시대에나다음과같은개인과사상과행동의조류가있었다. 즉그것은한권력을다른권력으로바꿔놓는것이아니라민중적제도에들어쳐서위진권력을배제하고그런언후에그자리에다다른권력을창설하려고하지않는개인과사상과행동의조류가곧그것이다. 그들은개인과민중과의주권을선언하고민중적제도를이상異常비대한권력으로부터해방하려고했다. 그들이의도한것은대중의집단적정신에완전한자유를부여하는것이고, 또한새로운생활조건과생존의필요에따라서민중의재능이상호부조와상호보호의제도를다시한번자유로개조할수있도록하는것이였다. 고대그리스의제도시나, 특히중세의제도시(피렌체, 프스코프등)에서이러한투쟁의많은실례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어느시대에있어서나개혁자와혁명가중에는한편으로자코뱅주의자와다른편으로아나키스트라는두종류의사람들이있었다고말할수있겠다.

아나키스트적성격의인상을띤강력한민중운동도과거에발생하고있었다. 촌락이나도시가강권強權의원리에반항하여봉기하고, 국가의제기관및재판소와그법률에저항하여인권의절대권을선언한것이다. 그들은일체의성문법을부인하고각인이자기의양심에바탕을두고스스로다

위한영토에걸친사회를구축코자하는희구는어리석은생각이라고보였던것이다. 현대이제는남북양아메리카의여러공화국들이, 다음으로는프랑스공화국이엄연히존재하고있음은, 공화주의자쪽이아니라군주주의자쪽이바로‘유토피안’이라는것을증명하고있다. ‘유토피안’이란자기의개인적소원에지배되어서이미얼굴을보여주고있는새로운경향을주시하지않는사람이다. 또는벌써과거의것으로되어버린사물에다지나친안정성을부여하고그것이과거적, 일시적인역사적조건소산에불과하다는것을생각해보지도않는사람을두고하는말이다.

이연구의첫대목에서말했듯이, 아나키즘적사조의기원을더듬어보면, 우리는언제나그주요한원천으로서다음두가지에마주친다. 즉한편으로는계급적조직과권력관일반에관한비판이고, 다른한편은과거의그리고특히현재에있어서의인류의전진적운동속에발견되는경향의분석이다.

아득히먼석기시대로부터이제까지인간이자기네의동료중의어떤자에게 - 비록그가가장지식이있고대담하고현명한자라할지라도 - 일단권력의보유를허락하고보면얼마나비참한결과를초래하게되는가생각이났을것임에틀림없다. 그렇기때문에우리의선조들은자고로이러한권력의확립을막기위하여싸울수있는제도를만들어내려고애썼던것이다. 그들의부족이나민족, 내려와서는농촌의공동체와중세의길드[인접주민의길드, 수공업이나기에技藝의길드, 상인의길드, 사냥꾼들의길드등등], 그리고끝으로 12 세기에서 16 세기까지의각자유도시 - 이것들은모두민중속에서일어난제도였다. 그것들은외래의정복자들이나혹은또그들자신의씨족, 부족도시의개개성원들이자기의수중에권력을휘어잡는데대항하기위하여민중자신에의하여 - 지도자에의해서가아니라 - 수립된제도들이다.

마찬가지의민중의경향은전유럽의민중적종교적운동속에, 종교개혁의선구가된보헤미아의후스일파의봉기나아나바티스트[재세레파]의운동속에나타나있었다.

그후 1793 년?94 년에는프랑스에서다시금마찬가지사조와행동이파리의각‘구區’와기타대도시및술한소코민의자못독립적이고건설적인활동속에보인다. 다시그후영국과프랑스에근대공업이발달하기시작한때, 가혹한탄압법을물리치고이두나라에서형성된노동조합속에같은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서도우리는자본가들에대항하여자기를방위하려고하는똑같은민중적정신작용을발견하는것이다.

및 재판관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반면, 자유인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반 사회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일까지 이들의 기본 원칙을 실제로 실현한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희구는 어느 시대에도 인류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일류의 어떤 부분이, 비록 일시적이거나 종래에 그들을 억압해 온 권력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혹은 또 뿌리를 내린 불평등 [노예제, 농노제, 전제, 일정한 카스트 또는 계급의 지배권] 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빛이 사회에 침투했을 때, 이런 때에는 언제나 민중이, 억압된 사람들이, 전술한 기본 원칙을 비록 그 일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키즘은 하나의 사회 이상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법률을 규정해 주기를 바라왔던 거의 모든 철학자, 정치가들이 고취해 온 것과 본질적으로 질이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아나키즘은 일찍이 한번도 특권 계급의 이상이었던 일은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때때로 다소 간자각한 대중의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아나키즘의 사회 이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일 것이다. 왜냐하면 금일의 용어법으로 말하면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것 이란 의미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유토피아’란 말은 저술가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관념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 속에 성취되고 있는 사물의 관찰에 기초한 관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의 공화국, 법왕들이 몽상한 보편적 교회, 나폴레옹의 제국, 비스마르크의 몽상, 신생이란 위대한 이념을 초래해야 할 구세주의 출현을 대망하는 시인들의 메시아니즘 등이 곧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나키즘과 같이 사회의 진화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제 경향의 연구에 기초를 둔 미래상에다 ‘유토피아’란 말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토피아적 공상의 영역을 벗어나 과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유토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경향이 재삼 인류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니 만큼 더욱더 그릇된 견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이야말로 이른바 관습법 - 즉 유럽에서 5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기간에 통용해 온 법의 원천이 되어 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3세기 간 국가적 생활 형태의 실체를 견문한 후, 이제야 다시금 문명 사회 속에 대두하게 되었다. 문명사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아나키즘이 가능한 이상, 실현될 수 있는 이상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라고. 하지만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잠깐 18세기 말의 일을 상기해보자. 북미합중국이 건국된 일말이다. 군주제 이외의 방식으로 상당히 광범

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여 평등과 완전한 자유와 노동의 원칙에 바탕을 둔 사회를 건설코자 했다. 아우구스투스 제국의 치세하에 로마의 법률, 로마의 국가, 당시의 도덕 또는 부도덕에 반대하여 유태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도의 운동에는 확실히 분명한 아나키스트적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점차로 대헤브라이 교회와 로마 제국 자체를 모방하여 구성된 교회의 운동으로 타락해 갔다. 그 결과, 창립 당시에 간직했던 그리스도교의 아나키스트적 요소는 드디어 질식하고 그리스도교회에 로마적 형태가 하여 저이욕고 권력, 국가, 노예제 및 억압의 지주로 타락하고 만 것이다. 그리스도교에도 도입된 ‘기회주의’의 최초의 종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 벌써, 적어도 신약 성서를 구성하는 이들의 문서의 편찬 속에 명백히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또, 종교 개혁을 발달시켜 그것을 도래케 한 저 16세기의 재세례파의 운동에도 극히 많은 아나키즘적 요소가 있었다. 허나 이 운동은 제후諸侯와 결탁하여 농민의 반란에 대항한 루터를 지도자로 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해 분쇄되고 농민과 도시의 빈민들의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에 의하여 탄압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우익 종교 개혁자들은 점점 타락하여 마침내 자기의 양심과 국가와의 타협을 도모했으나, 이것이 바로 오늘의 프로테스탄티즘인 것이다.

요컨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낳은 저 비판적 및 혁명적인 항의에서 아나키즘도 또한 탄생한 것이다. 현대 일부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을 부정하고 또 자본에 의한 노동의 예속에 바탕을 둔 사회 기구를 부인할 뿐,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자본의 진짜 힘을 구성하는 것 - 즉 무엇보다도 우선, 권력과 자본의 존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와 그 주요한 지주가 되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 (항상 변함없이 소수자에 의하여 제정되고 소수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법률 및 재판 등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아나키스트는 이들의 제제도의 비판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주 支柱에 대해서도 감히 신성神聖을 모독하는 칼날을 세워 항거했다.

2. 18 세기의지적운동

그러나비록아나키즘이다른모든혁명적조류와같이민중속의투쟁에
서발생한것이지학자의연구실에서나온것은아니라할지라도, 그것이오
늘날존재하는각종과학적철학적사조思潮속에서어떤지위를차지하
는가를아는것은역시중요하다. 아나키즘은이들각종사조에대하여어떤
태도를취하는가. 이들의사조중에어느것에아나키즘은주로의거하려고
하는가. 또한아나키즘은자기의결론을기초하고강화하기위하여어떠한
연구방법에의존하려고하는가. 바꿔말하면아나키즘은어느학파에속하
는가? 아나키즘은근대과학의어떤조류와가장접근해있는가?

사회주의자들의서클안에서최근보이고있는경제학적형이상학에의
몰두에비추어볼때이것은미상불흥미있는문제다. 그래서나는되도록간
결하게어려운용어는피할수있는데까지피하면서이문제에대답해보겠
다.

19 세기의지적운동은 18 세기중엽에서말기에걸친영국및프랑스의
철학자들의저작著作에기원을갖고있다.

그당시시작된사상의고조는모든인간지식을하나의전반적체계 - 자
연의체계속에포함시키려는소망을갖고이들의사상가를고무하고있었
다. 그들은중세의스콜라철학이나형이상학을모두포기하고대담하게도
전자연 - 별의세계, 태양계, 지구, 지구표면의식물, 동물및인간사회의
발달 - 을자연과학의일관된방법에의하여연구해야할일련의제사실로서
내다보려고했다.

참된과학적방법 - 즉귀납? 연역적방법을광범위하게사용하면서그
들은자연계에서관찰되는일체의현상 - 그것이별의세계에속하거나동
물계에속하거나 - 을자연과학이물리학의문제를다루는것과같은방식으
로연구하려고시도했다.

그들은처음에먼저사실을신중히수집했다. 다음으로이것을일반화
하려고할때, 그들은귀납법으로이를수행했다. 그들은일정한가설을세
우기는했지만, 그가설에대하여다윈이생존경쟁에의한신중의기원에관
한가설이나멘데레프가그‘주기율週期律’에대하여부여한이상의의미를
부여하지는않았다. 그들은가설을, 일시적설명을제공하고사실을수집
하여그연구를용이케하기위한가정假定이라고보았다. 그러나그들은이
들의가정이다수의사실에적용되는지어떤지를검토하고또한연역적방
법에의하여확인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잊지않았다. 이들의가설이이

10. 아나키즘

각종의역사적정치적경제적고찰에이끌려, 그리고또최근의역사의
교훈에유의하여앞서말한바와같이아나키스트는국가권력을수중에넣
으려고노력하는일체의정치적당파와는전혀다른사회관을구성하게되
었다.

우리가마음속에그리는사회는다음과같은것이다. 즉, 거기서는각성
원간의관계가과거의억압과횡포의유산인법률에의해서규제되지를않
고또한일체의권력자 [그권력이선거에의하여언어졌건상속권에의하여
언어졌건간에] 에의해서규제되는일이없이, 오로지자유로성립한상호
의합의에의하여, 그리고또마찬가지로자유로승인된습관이나풍습에의
하여규제되는그런사회이다. 이들의습관은법률이나미신의영향아래경
화되거나고정화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 그것들은생활의새로운제요구
와과학및발명의진보에부응하고또한점점합리적으로되고점점송고한
것으로되어가는사회이상의발달에일치하여부단히발전해가는것이아
니면안된다.

이와같이하여 - 여기에는남에게자기의의지를강제하는아무런권력
도없고, 인간에대한인간의통치도없고, 생활에있어서의일체의정체도
없다. 거기에는자연의생활자체에보이는바와같은, 어떤때는빠르게어
떤때는느리게진행하는끊임없는전진이있을뿐이다. 이리하여각개인에
게행동의자유가허용되고각자타고난천분을그리고그개성을 - 요컨대
각자자기속에갖고있는독자적개성적인것을피워나갈수있을것이다. 바
꿔말하면여하한행위도사회적형벌의공포나초자연적인신비적보복의
두려움에의하여개인위에과課하여지는일은없다. 사회는개인에대하여
이개인이소여시점에수행하기를자발적으로승낙아니하는일을일체강
요하지않을것이다. 이와함께만인에대하여완전한평등의권리가주어진
다.

우리는어떤종류의강제도없는평등인의사회를승인한다. 더욱이이
러한일체의강제의결여에도불구하고평등인의사회에서는성원의반사
회적행위가사회에대하여중대한위험으로되리라보는보지않는다. 자유
인들로구성된사회는현대의우리들의사회보다도훨씬잘이들의반사회
적행위로부터몸을지킬수있을것이다. 금일의사회는사회도덕의옹호를
경찰, 스파이, 감옥 - 요컨대그것은범죄의대학인바 - 간수, 사형집행인

래종속하는공화국을, 또는프랑스형의군주주의적공화국을, 혹은또북미합중국형의연방공화제를꿈꾸고있다. 끝으로제 3 의사람들은국가권력을일층제한할것을 - 즉서로연합의메뉴대로결합된각도시, 코뮌, 노동조합및기타모든집단에다보다큰자유를주려고생각하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자본주의를공격하는사람은누구나, 현재부르주아적자본주의에대체하기를바라는것에대해서의명료한또는막연한무엇인지의관념을갖고있다. 즉국가자본주의가아니면국가공산주의를, 그것도아니라면끝으로농업생산물과공업생산물과의생산, 교환, 소비를위한다소간에공산주의적결사의관념을마음속에그리고있는것이다.

각당파는이와같이미래에관한자기의관념을갖고있다. 그것은국민의정치? 경제생활의일체의사실에대하여각당파가제각기판정을하는데도움이되는이상이고그것은또각당파가그이상에접근하고각자의목적을향하여좀더잘전진하기위한행동수단을발견케한것이다.

아나키즘은일상투쟁속에서나온것이지만, 아나키즘도또한애써자기 자신의이상을구상했다는것은당연한일이라하겠다. 그리고아나키즘의이이상, 이목적, 이희구는그것을달성하는행동수단의면에서아나키스트들을마침내다른일체의정치적당파로부터, 마찬가지로또대개의경우사회주의적당파로부터도분리시키게되었다. 왜냐하면후자의제당파는구래舊來의로마적? 교회법적국가의이상을보유하고이것을그들이꿈꾸는미래사회로전하여줄수있다고믿고있으니말이다.

러한검증에붙여져그것들이표현하는상호간의항상적恒常의관계의원인이밝혀지기까지는‘법칙’(증명된일반화) 이라생각되는일은없었다.

18 세기의철학운동의중심이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에서프랑스로 옮겨진때, 프랑스의철학자들은그들에고유한체계구성에대한열정을갖고자연과학도역사과학도모든인간지식을보편적계획에의하여동일의원리위에건설하기시작했다. 그들은보편적지식을 - 즉전우주와그생활의철학을엄밀히과학적형태로구성하려고노력했다. 그들은그럴적에, 전시대의철학자들이구축한일체의형이상학적구성을포기하고지구의기원과발달을만족스럽게설명할수있다고생각된물리적 (즉역학적) 제력諸力の운동에의하여모든현상을해명하려고했다.

나폴레옹 1 세가라프라스를향하여그의「우주체계론」에는어디에도신의이름이언급되어있지않다는것을지적했을때라프라스는“나는그러한가설의필요를느끼지않습니다.”라고대답했다는것이다. 그런데라프라스는그것만을한것은아니었다. 그는또현상의불가해성不可解性, 또는애매하고어중간한현상파악및제사실을계산할수있는양으로써구체적형식으로고찰하는능력의결여를배후에숨기고있는저허장성세의형이상학적미사여구에호소하려하지않았다. 라프라스는조물주라는가설과함께형이상학도폐기한것이다. 그러면서도그의「우주체계론」은조금도수학적계산을포함하지않고도교육받은독자면누구나알만한말로쓰여있었는데수학자들은후일이책에서술된개개의사상을정확히수학방정식으로, 즉계산될수있는양의상호간의관계로표현할수있었던것이다. 라프라스는그만큼정확히생각하고표현했던것이다.

라프라스가천체역학에관하여수행한것을 18 세기의프랑스철학자들은당시의과학의한계내에서생명현상의연구에대하여, 또한인간의이성과감정의연구 (심리학) 에대하여행하고자했다. 그들은그선구자들이나그후의독일의철학자칸트의저작에전개된형이상학적사변思辨을폐기했다.

사실주지하는바와같이, 칸트는인간의도덕적감정을증명코자하여 그것이‘지상명령’의표현이라고말하고, 또행위의격률格率이의무로되는것은그것이‘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법칙’으로서받아들일수있는’경우라고논하였다. 그러나이정의에사용된용어는어느것이나주지의도덕적사실을설명하는대신에애매모호해서이해하기어려운어떤것 (‘명령’이니‘지상’이니‘법칙’이니‘보편적’이니하는) 을표시하고있다.

프랑스의백과사전파는이러한‘거창한말’을갖고하는‘설명’에만족하지않았다. 스코틀랜드나영국의선배들과마찬가지로그들은인간이 어디로부터선악의관념을얻어왔는가를증명코자할적에괴테의표현을빌린다면, ‘사상의공허함을숨기기위한언어’를삽입하려고하지는않았다. 그들은인간을연구했다. 그리고이미 1725 년에하치슨이한것처럼, 또한그후아담스미스가명저『도덕적감정의기원』에서한것처럼, 그들도또

한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괴로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느끼는 연민과 동정의 감정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타인과 동화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능에서 발생했다는 것, 우리의 면전에서 아동이 매맞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생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천성은 이러한 행위에 반항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찰과 만인주의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백과전서파는 광범한 일반화에도달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복잡한 현상인 도덕적 감정을 보다 단순한 제 사실에 의하여 실제로 설명한 것이다. 그들은 주지의 이해하기 쉬운 제 사실 대신에 ‘지상 명령’이니 ‘보편적 법칙’이니 하는 종류의, 아무 것도 전혀 설명하지 않는 불가해하고 애매한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백과전서파의 방법이 지니는 이 점利點은 명료하다. ‘천계 天界로부터의 영감’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신에, 도덕적 감정에 관한 인간계 이외의 초자연적 기원을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이 지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 속에는 언제나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동포를 관찰하는 데서 확인되고 차차 사회 생활의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것으로 된 감정이다. 우리의 도덕 관념은 이 감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리하여 18 세기의 사상가들은 그 연구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의 세계에서 화학적 반응의 세계로,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화학적 세계에서 동식물의 세계로, 다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형태의 발달로, 또한 종교 기타의 진화로 옮겨갔다.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학의 모든 부문에서 그들은 언제나 귀납법을 적용했다. 그들은 종교의 연구에 있어서, 도덕적 감정의 분석에 있어서, 또한 사유 일반의 해부에 있어서, 그들의 방법이 실패하여 다른 방법을 필요로 했다는 단 하나의 예에도 마주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형이상학적 개념(초월적 존재에 의하여 고취된 신이니, 불사의 영혼이니, 생명력이니, 지상 명령이니 하는)이나 변증법적 방법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그들은 동일한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전 우주와 그 현상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현저한 지적 발달이 성취된 이 시대에 백과전서파는 저기 넘비적 인간치가 있는 『백과전서』를 작성했다. 라프라스는 『우주 체계론』을, 돌바흐는 『자연의 체계』를 발표했다. 라보아제는 물질의 불멸, 따라서 또한 에너지와 운동의 불멸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로마노소프는 베르의 자극을 받아 아무렵에 벌써 열에 관한 역학적 이론을 구성하고 있었다. 라마르크는 동식물의 무한한 변종의 출현을 상이한 환경에의 적응에 의하여 설명했다. 디도르는 천상계 天 上界로부터의 영감에 호소하지 않고서 도덕적 감정과 습속, 원시적 제도와 종교를 설명하려고 했다. 루소는 정치 제도의 탄생을 설명코자 사회 계약에, 즉 인간의 의지적 행위에 의거하려고 노력했다. 요컨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실의 관찰과 경험에 의하여 검증된 자연과학

여바쿠인을 포함한 인터내셔널의 여러 성원들은 일체의 권력의 해독에 대하여 - 비록 그것이 코뮌이나 노동자의 인터내셔널에 있어서처럼 자유로 선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 매년 개최하도록 된 대회 대신에 1871년에 런던에서 가만히 소집된 비밀 회의 회석상에서 채택된 인터내셔널 총무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자의 국제 결사에 구축된 정치 권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백일하에 폭로했다. 이 불행한 결의의 결과, 그때까지 경제적 혁명적 투쟁, 즉 고용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접 투쟁에 기울여 왔던 인터내셔널의 힘은 정치 운동과 선거와 의회 운동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그 힘이 헛되이 낭비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결의는 런던의 총무위원회에 대한 라틴 연합 - 스페인, 이탈리아, 유라 및 베르기의 일부에 의한 공공연한 반항을 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인터내셔널은 엄중히 금압되고 있었다.] 아나키즘 운동은 이 반항에서 발생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아나키즘 운동은 언제나 어떤 거대한 실천적 교훈의 인상을 받고 발생했다. 그것은 생활 자체의 혼계에서 나온 것이다. 허나 일단 발생하고 보면, 그것은 즉시 사기의 이론적, 과학적 표현과 기초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과학적이라 함은 불가해한 은어 隱語로 가장하지도 않거니와 케케묵은 형이상학과 결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 시대의 자연과학 속에 자기의 기초를 발견하고 스스로도 자연과학의 한 부문 部門으로 전화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아나키즘은 자기의 이상의 전개를 위하여 꾸준히 일했다.

어떠한 투쟁도, 만약 그것이 무자각한 것이라 한다면 - 만약 그것이 자기의 목적의 구체적, 현실적 파악을 결하여 있다면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괴와 파괴로 이끌어가는 투쟁의 시기에, 파괴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출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관념을 마음 속에 갖고 있을 것, 이것이 긴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것 대신에 새로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에 관한 다소나마 명확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서는 지금 존재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기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현존 제도의 비판자라면 누구나 그 심중의 의식적으로 선무의식적으로 건이상 - 즉 보다 나은 것에 대한 관념 - 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자본주의를, 또는 전제주의를 파괴하자. 그런 뒤에 무엇이 그 뒤에 올 것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만에 의하여 힘이 산출된 예는 없다. 사실 인즉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가공격하는 것 대신에 새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 얼마쯤의 관념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전제주의를 파괴하기 위하여 몸을 바친 투사들의 어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영국형 또는 독일형의 헌법의 수립을 마음 속에 품고 있다. 다른 이는 아마도 자기네의 당의 강력한 독재아

9. 아나키스트의이상과선행의제 혁명

아나키즘은전술한바와같이실제생활의지시하는바에서나온것이다.

1789 년?93 년의프랑스대혁명의동시대인인고드윈은혁명기에혁명의제력諸力에의하여탄생한정부권력이이번에는역으로혁명운동의발달에브레이크를거는것으로된사정을그의눈으로직접목도했다. 그는또영국의회의그늘에숨어서영국에서무엇이행하여지고있었던가를알았다. 그것은공유지의강탈이고, 유리한정부관직의매매이고, 빈자의아이들이영국전국에파견된특별계원에의하여모집되어작업장에몰아세워지고랑카시아의공장에보내어지고, 거기서때를지어죽어갔다는것등이었다. 고드윈은또다음사실을이해했다. 즉정부는, 가령그것이자코뱅당의‘유일불가분의공화국’이라하더라도, 필요한혁명을 - 사회적공산주의혁명을완수하지못한다는것, 혁명정부라할지라도모든정부가옹호하지않으면안되는국가의수호자이고특권의보존자라는이유만에의해서도머지않아혁명의장애물로전화轉化한다는것이다. 혁명이승리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무엇보다도먼저법률, 권력, 질서, 재산권기타노예적과거로부터계승한각종의미신에대한신앙에서벗어나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아나키즘의사상을고드윈은이해하고표명했던것이다.

고드윈뒤에나타난제 2 의아나키즘이론가푸르동은 1848 년의좌절한혁명을체험했다. 그도역시그의눈으로공화국정부가범한범죄를바라보고동시에루이블랑의국가사회주의가얼마나무력한것인가를확실했다. 1848 년의운동기간에얻은체험의생생한인상아래그는『(19 세기에있어서의) 혁명의일반적이념』을쓰고여기서대담하게국가의폐지와아나키를선언했다.

끝으로인터내셔널에있어서도아나키즘의이념은마찬가지로혁명직후즉 1871 년의파리코뮌뒤에성숙했다. 코뮌의평의회 - 그것은당시의전혁명당파의대표 [자코뱅주의자, 블랑키스트, 국제주의자등] 를매우적절한비율로포함하고있었는데 -의완벽한혁명적무력, 런던에설치된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마찬가지무능및영국에서발송하는지령에의하여파리의운동을지배하려고하는어리석고도유해한요구권 - 이와같은두가지교훈은많은사람들의눈을열어주었다. 이와같은사태에직면하

적귀납과연역이란동일의방법에의하여기도되지않은연구영역은하나도없었던것이다.

물론이러한거대하고대담한시도에오류를범한예가없는바아니다. 이당시에는아직지식이부족한분야에서는때로는앞질러나간, 때로는전혀그릇된가정이세워지고있었다. 그렇지만새로운방법이인지의전부분에적용되었으며이방법의덕택으로오류자체도뒷날에손쉽게발견되고정정되었다. 19 세기는이리하여강력한연구방법을계승했다. 그리고이방법이야말로우리의세계관을과학적기초위에구성할수있게끔했으며, 그것은또난관을회피하려고하는악습의결과도입된우리의세계관을호리게하는편견이나또는무의미하고애매모호한용어의일소를가능케하는것이다.

3. 19 세기초의반동

주지하는바와같이프랑스대혁명의패배이후유럽은정치의영역에서나과학과철학의영역에서나일반적반동의시기를맞아왔다. 부르봉왕가의백색테러, 자유주의이념과싸우기위하여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황제들간에 1815 년에맺어진신성동맹, 유럽의상류사회층에유행하기시작한신비주의와경건주의, 도처에출현한국가경찰등이모든방면에서개가를올렸다.

그러나다른한편, 혁명의근본원리는사멸하지않았다. 지금까지반노예적상태에얽매어왔던농민과도시노동자의해방, 법의앞에서의평등, 대의정치 - 이들의세가지원리는프랑스혁명에의하여선언되고혁명군에의하여멀리폴란드에이르기까지전유럽에전파되어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전유럽에진출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대원칙을최초에선양한혁명뒤에점차적근대화 - 즉제도의점차적변화의과정에서시작되었다. 다시말하면 1789 년에서 1793 년까지의동안에선언된일반적원칙이일상생활속에적용되는과정에서시작된것이다. 혁명의소용돌이속에서천명된원리가그후진화의길을따라실현을보게됨은사회발전의일반법칙이라고봐서무방할것이다.

비록사회와국가및과학마저혁명이‘자유? 평등? 우애’라는자기의부르짖음을써넣은깃발을짓밟고있었다할지라도, 또설사현존질서에의적합이당시는철학에서마저일반적슬로건으로되었다할지라도, 자유의대원칙은그럼에도불구하고생활속에침투해갔다. 허기야이탈리아와스페인에있어서프랑스혁명군이일찍이폐지한농노제와이단규문異端? 問제도가이제다시재건되기는했지마는, 그러나이미이들의제도에치명상이가해져있어거기에서회복할수는없었던것이다.

해방의물결은우선최초에서부독일에미쳤고, 계속해서프로이센과오스트리아에밀어닥쳤고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반도에번져갔다. 다시동방으로흘러가 1861 년에는러시아에다다랐고, 1878 년에는발칸제국諸國에까지흘러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1863 년에노예제도가자취를감추었다. 동시에법앞에서의만인의평등과대의정치의이념도또한서방에서동방으로확대하여 19 세기말에는러시아와터키만이전제專制의굴레를쓴채남게되었다 - 물론그나마극히취약화한전제에지나지않았지만.

구에극히유효했던방법을저버리고형이상학의영토에서다른방법을빌려올까닭은조금도없는것이다.

자연과학의연구에서용된귀납법은그효능이입증되었고, 19 세기백년간에그이전의과거이천년에걸친기간에있어서보다도더많은과학의진보를가져왔다. 그리고 19 세기후반에인간사회의연구에이방법이적용되기시작했을때, 이것을버리고해결이부활시킨중세스콜라철학으로되돌아가도록요구되는어느대목에도마주치지않았다. 뿐만아니다. 자기의부르주아적교육을신봉한자연과학자들이다윈주의의과학적방법에의거한답시고우리에게설교하기를‘너희보다악한자를모두절멸하라. 이야말로자연의법칙이다’라고말할때에도이들의학자가사도邪道에빠지고있다는것, 그따위법칙은있지않다는것, 자연은이것과는전혀다른것을우리에게가르치고있다는것, 이러한결론은전면적으로비과학적이라는것을우리는이동일한과학적방법에의하여손쉽게논증할수있었다. 우리들로하여금민게끔만들려고하는다음과같은명제에대해서도마찬가지말을할수있다. 즉부의불평등은‘자연의법칙’이고자본주의적착취는훨씬유리한사회조직의형태라고하는명제말이다. 다름아닌자연과학의방법을경제적사실에적용함으로써우리는이러한부르주아사회과학 - 정치경제학을포함해서 -의이른바‘법칙’이란것은법칙근처에도못간것이고, 단순한주장또는가설에불과할뿐더러아직실제로검증된일조차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을것이다.

두서너가지더부연하겠다. 과학적연구가풍부한성과를가져오는것은다음과같은조건에있어서다. 즉연구가일정한목적을갖고또그리고특정의정확히제기된문제에대한해답을발견코자하는의도를갖고서계획된때라고하는것이다. 그리고모든연구는, 해결을위하여제기된문제와우리의세계관의기본선과의사이에존재하는관계가명료하게이해되면될수록더욱더많은열매를맺을것이다. 이문제가우리의세계관의일반적태두리속에확고히편입될수록그해결도보다용이한것으로된다.

그런데아나키즘이제기하는문제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겠다. 즉‘여하한사회형태가소여所與의사회에있어서, 따라서또한인류일반에있어서행복의최대량을, 그런까닭으로또한생활력의최대량을가장잘보증할것인가’- 나아가‘여하한사회형태가가장잘이행복의총계를양적으로나질적으로성장발달시킬것인가, 즉행복을보다완전하고보다일반적인것으로되게할것인가’라고.

이것은또겸하여진보를우리에게제공한다. 진화를이러한방향으로촉진시키고자하는소망이아나키스트의사회적, 과학적, 예술적등등의활동의성격을결정하는것이다.

실의언어로번역되었듯이, 우리는사회생활의사실에대할때, 이러한방식으로접근해가려고한다.

형이상학자는인간의지적생활과감정생활이‘정신의내재적법칙’에따라발전하는것이라고자연과학자에게설득하려고한다. 그러나자연과학자는이와같은설명에고개를가우뚱하며생명? 지식? 감정의체현상에대한자기네의연구를참을성있게추진하여이것들이모두물리적, 화학적현상으로환원될수있다는것을논증하려고한다. 그들은이러한현상들의자연법칙을해명하려고노력한다.

이와똑같이헤겔의학설에따라일체의진화는‘정? 반? 합’을표현한다느니‘법의목적은정의확립이고, 그것은지고의이념의물적실체화’라느니하는따위의설교를아나키스트에게들려줄때, 혹은또‘생의목적이란무엇인가’라고아나키스트에게질문할때, 그는마찬가지로고개를가우뚱하며이렇게자문할것이다. 즉“자연과학이현대처럼발달하고있는데여전히이러한‘케케묵은것’을믿고있는낡아빠진사람들이지금도있다는것은, 또한자연을‘의인화擬人化’하여인간의모습을한존재물에의하여지배되는것으로자연을본원시적미개인의말투로어태껏지껍이고있는뒤떨어진인사가현재도생존하고있다는것은도대체어찌된일일까”라고.

아나키스트는이러한‘듣기좋은말’에승복하는자는아니다. 왜냐하면이러한말들은언제고반드시단지무지無知를 - 즉불완전한연구를 - 감추는것이거나아니면더욱나쁘지만미신을감추는데에유용할뿐이라는것을알고있으니말이다. 따라서아나키스트가이런종류의말들을들때그들은그것을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흘려버린다. 그들은자연과학적방법에따라과거와현재의사회관념및제도의연구를계속한다. 그리고인간사회의발전은이들의형이상학적정식을갖고판단할때생각하기보다사실인즉 훨씬무한히복잡한 [또한실천적목적에대하여일층흥미로운] 것임이명백하다.

우리는최근사회민주주의자들이사회주의적이상을구성함에있어서추존하는변증법적방법이란것에대하여다변多辯을농뽲하는것을듣는다. 그러나어느자연과학에의해서도이것이승인되지않듯이, 우리도이방법을승인하지않는다. 금일의자연과학자에대하여이‘변증법적방법’이란것은오래전에이미사멸한것, 다행히과학의기억에서사라진지오래인것을상기시킨다. 19 세기에있어서의여하한발견도, - 역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에있어서의어느발견도변증법적방법에의하여성취된것은아니다. 무릇이들의발견은유일의과학적방법인귀납법에의하여성취된것이다. 인간은자연의일부이고인간의개인적및사회적생활은꽃의피어남과같이, 또한개미나벌의사회생활의발전과도같이, 자연적현상이니까우리가꽃에서인간으로, 또한해리海狸의정주지定住地에서인간의도시로연구를진행해나갈때, 지금까지우리의연

그뿐이아니다. 18,19 양세기의경계에경제적해방이란이념이소리높이선언되고있다. 1792 년 8 월 10 일파리의민중이왕권을무너뜨린직후, 특히 1793 년 6 월 2 일에지롱드당을타도한후에파리를비롯하여전국의대도시에서의혁명지부支部나지방소도시의공청公廳의대부분도이방향으로행동했다.

프랑스지식인들은평등이단순한구호에그칠것이아니라사실로되지않으면안된다고선언했다. 그리고혁명이‘음모자 - 국왕들’에대하여수행되지않으면아니되었던전쟁의과정에서그중압이무엇보다도먼저빈민층위에덮어씌워진결과, 민중은국민공회의위원들에게약간의공산주의적, 즉평등주의적정책을취하게끔강요했던것이다.

국민공회자신도공산주의의방향으로나가도록강제되어‘빈곤의근절’과‘재산의평등’을목적으로하는일련의조치를채택했다. 1793 년 5 월 31 일에서 6 월 2 일간의봉기에의하여지롱드파가정부에서축출된후, 공회는토지뿐만아니라상업의, 적어도생활필수품의교역의국유화를기도하는일련의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뿌리깊은이운동은 1794 년 7 월까지계속되었는데이때에지롱드당의부르주아반동파와왕당파와결탁하여테르미도르 9 일에다시권력을잡았다. 이리하여이운동은단기간밖에계속하지못했다고는하지만그것은 19 세기에자기의명백한각인을 - 즉가장진보적인형태의공산주의적및사회주의적경향성을부여했다.

1793 년?94 년의운동이계속되고있는동안에민중출신의변사辯士가나타나이운동의이념을표현했다. 그러나이시기의프랑스의문필가들중에는이들의이념 [당시그것은‘마라를넘어서’라불리고있었다] 에다이론적표현을부여하여사람들의마음속에영속적영향을미칠수있는사람은하나도없었다.

겨우영국에서 1793 년에고드윈이등장하여참으로주목할만한저노작勞作『정치적정의및그사회도덕에대한영향에관한고찰』을공간公刊했다. 고드윈은이책에서‘자주인적’사회주의즉아나키즘의최초의이론가가되었다. 다른한편으로바부프 [아마도보나로티의영향을받고는] 1795 년에중앙집권적사회주의, 즉국가사회주의의최초의이론가로서나타났다.

다음으로 19 세기가되어앞서말한것처럼, 18 세기말에선양된원리를발전시키면서현대사회주의의 3 인의시조始祖가중요한 3 학파를대표하고출현했다. 푸리에, 생시몽, 로버트오언이곧이들이다. 다시 40 년대로내려가면푸르동이등장하여고드윈의노작을아는바없이새로아나키즘을기초해놓았다.

이리하여강권적및반강권적쌍방의사회주의의과학적기초는 19 세기초경에벌써풍부하게개척되고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금일의사람들에게등한시되고있다. 그런데인터내셔널의창립에비롯한근대사회주의

는두가지점에서만 - 그것은극히중요한점인데 - 이들의사회주의창시자들보다전진하고있다. 그하나는다대사회주의가혁명적으로되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다1848년까지줄겨말해지던‘사회주의자? 혁명가로서크리스트’라는관념을찾아없앰점이다.

근대사회주의는그이상을실현하기위하여사회혁명이필요불가결하다는것을이해했다. - 이경우사회혁명이란것은‘산업혁명’이니‘과학혁명’이니말할때쓰이는의미에서의혁명이아니라용어의정확하고명료한의미에서의혁명, 즉사회이기초자체의전반적이고즉각적인변혁을의미한다. 다른한편으로근대사회주의는약간의그리스도교적개혁자들이제창한천박하기짜이없는센티멘틀한개혁에자기의견해를혼동시키기를그만두었다. 물론이점은이미고드윈, 푸리에, 로버트오언등의경우도마찬가지로이것은주목할만하다. 그런데행정, 중앙집권, 권력과규율에의궤배? 拜와같은것은인류가신정주의神政主義와로마제국의법률에서배운것인데, 라브로프가분명히지적한이들의어두운과거의‘유물’은여태껏많은사회주의자를완전히엮어매고있다. 그들은이점에서프랑스나영국의선구자들의수준에도미달한형편이었다.

프랑스대혁명후에기승을부리던반동이과학의발달에끼친영향에관하여여기에논하기는어렵다. 다만다음과같은점을지적해두면족하겠다. 즉현대과학이금일자랑하는성과의전부가벌써18세기말에시사되고있었다는것, 아니시사뿐만아니라때로는정확한과학적형식으로제시되고있었다는점이다. 역학적열이론, 운동불멸설 [에너지항존恒存], 환경의직접적영향하에서의중種의변화, 생리학적심리학, 역사? 종교? 법의인류학적고찰, 사상의발전법칙 - 한마디로말해서자연의과학적세계관과종합철학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및사회적인전현상을전체적, 통일적으로파악하는철학] 은18세기에벌써소묘素描되었고부분적으로는완성되고있었던것이다.

그렇지만프랑스혁명이끝난후반동이승리함과동시에반세기에 걸쳐이들의발견을억압하려는경향이시작되었다. 반동적학자들은이들의발견을‘비과학적’이라불렀다. 처음에먼저‘사실’을연구하고‘자료’를수집한다고하는구실을앞세워그들은학계에서단순한측정에불과한연구마저배척하려고했다. 이를테면형제세구안에의하여, 그후쥘르에의하여수행된열熱의작업당량作業當量の결정법 [일정의열량을얻기위하여필요한기계적마찰양] 도배척되었던것이다. 금일의영국과학아카데미에해당‘왕립협회’마저쥘르의연구를‘비과학적’이라하여출판을거절했다. 더욱이힘의통일에관한글로브의주목할만한저작은1843년에쓰였는데1856년에이르기까지전혀등한시되고있었다.

19세기전반의과학사를읽으면프랑스혁명패퇴후유럽에얼마나깊이암운이덮여있었던가를알게될것이다.

8. 근대과학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지위

아나키즘은19세기의위대한지적운동에서어떤지위를차지하는가. 이물음에대한해답은앞에나온여러장에는술한바에서시사되고있다. 아나키즘은인간의사회생활을포함시켜전자연을포괄하는현상의역학적해명에바탕을둔우주관이다. 그연구방법은자연과학의방법이니이방법에의하여일체의과학적결론이검증되지않으면안된다. 그경향은, 자연은온갖현상 - 인간의사회생활과그경제적, 정치적, 윤리적문제를포함시켜 - 을포섭하는종합철학을기초담음, 그럴적에전술한바의원인으로말미암아공트나스펜서가범한오류에빠지지않고서그것을수행함에있다.

그런까닭에아나키즘은분명코근대생활에서제기된모든문제에대하여여태껏남은형이상학적신앙에서해방되지못한정치적당파나, 또한마찬가지로어느정도로는사회주의적당파가제공하는해답과는다른해답을주고또한이들의당파와는다른입장을취하지않으면안된다.

물론자연과인간사회의완전히역학적인관념의구성은, 사회생활과그발달을대상으로하는사회학적부문에서는이제막착수했음을뿐이다.

허나그럼에도불구하고, 확립된몇가지성과는 - 때로는무의식적으로그렇게되었음에불과하다 - 전술한성격을벌써떠고있다. 법철학에서도, 도덕이론에서도, 경제학에서도, 또한제국민과제제도의역사연구에있어서도, 아나키스트들은형이상학적결론에만족하는자가아니라자기의결론의자연과학적기초불임을탐구하는자임을증명하고있다.

그들은헤겔, 셸링, 칸트등의형이상학에굴복하기를거부하고, 로마법이나교회법의주석자註釋者들, 학식있는국가법의교수들, 형이상학적정치경제학자들의영향아래서려고하지도않는다. 그들은자연과학자의견지에서최근4,50년간에수행된일련의업적에입각하면서이들의학문영역에서제기된모든문제에대하여명쾌한답을주려고노력한다.

각종형이상학적관념, 이를테면‘세계정신’, ‘창조적인자연력’, ‘물질의사랑의흡인력’, ‘이념의화신’, ‘자연의목적과그존재이유’, ‘불가지적不可知的인것’, ‘정신의영기靈氣’에고취된존재라는의미로해석된‘인류’따위의관념이이제야유물론적인 [역학적내지동력학적] 철학에의하여포기되고이들의용어의배후에감추어진일반화의맹아가구체적인사

의 깊은 독자라면 그들의 노작을 읽고 이러한 결론에도 도달할 것은 필연적이다.

이 구름의 막은 돌연 50년대 말에 걷히기 시작했다. 이때 서방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 가르바르디의 쥘기, 이탈리아의 해방, 아메리카에서의 노예제 폐지, 영국에서의 자유주의적 개혁 등이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동일한 운동의 결과가 농노제와 태형 笞刑의 폐지로서 나타났다. 철학에서는 쇠링과 헤겔의 권위 실추를 일으키고 니힐리즘이란 이름으로 불린 정신적 예속과 일체의 권위에의 궤배에 대한 대담한 부정을 산출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의 지적 발달을 회고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계명료하게 된다. 즉 과학을 짓누르고 있던 속박을 타파하기도 쉬운 것은 30~40 년대에 행하여진 공화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이념의 선전이고 또한 1848년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사실이 점은 상술할 것까지도 없어도 다만 다음의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서 충분할 것이다. 즉 앞서 말한 세구안도, 오귀스탕티에리 [중세에 있어서의 코뮌의 민중적 기구와 연합주의적 이념의 연구의 창시자] 도시스몬디 [이탈리아 자유도시에 관한 역사가] 도모두 19세기 전반의 3인의 사회주의의 시조 중의 한 사람인 생시몽의 제자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윈과 때를 같이 하여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의 이론에도 도달한 알프레드 R. 월레스는 청년시대에 로버트 오언의 열렬한 귀의 자歸依者였다.

오귀스트 콩트는 생시몽주의자였고 리카도도 벤담도 또한 오언주의자였다. 다른 편으로 유물론자 칼 포크트와 G. 루이스는 글로브, 밀, 허버트 스펜서, 기타 여러 사람들과 같이 30년대와 40년대의 영국의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운동에서 그들은 각기 과학적 작업에 있어서의 용기를 길러 오고 있었던 것이다.

1856년에서 1862년에 이르는 불과 5, 6년의 단기간에 글로브, 쥘르, 베르트로, 헤름호르츠, 멘데레프 등의 업적, 다윈, 꼬로드베르나르, 스펜서 모레쇼트, 포크트 등의 여러 저작, 인류의 기원에 관한 라이에르, 베인, 밀, 뷔르노프의 여러 저작, 이러한 업적이 한꺼번에 꽃핀 결과, 당시의 학자들의 기본적인 견해에 일대 변혁이 생기고 과학은 일제히 새로운 길로邁進하게 되었다. 인지 人知의 전 부문은 놀라운 속도로 정비되었다.

생명의 과학 [생물학], 인류의 제제도의 과학 [인류학과 민족학], 이성, 의지 및 감정의 과학 [생리심리학], 법과 종교의 역사 등은 우리의 안전 眼前에 급속히 성장하고 그 일반화의 대담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결론의 혁명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전세기에서는 단지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고 가끔 추측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야 저울과 현미경으로 증명되어 수천 회의 관찰과 실험에 의하여 검증된 것으로 되었다. 저술 방식 자체도 아주 달라졌다. 앞서 말한 학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귀납법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문체의 간결함과 정확함과 아름다움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문체는 형이상학을 폐기한 18세기의 문필가들의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금후과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이해갈 것인지는 예언할 수 없다. 학자들이 오늘과 같이 부자와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그들의 과학은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고, 19세기 전반에 보던 바와 같은 과학의 침체기가 재현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즉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과학에 대해서는 라프라스가 그것 없이도 해나갈 수 있던 저가설이라든지 괴테가 조소 嘲笑한 그런 형이상학적 '잡끄대' 같은 것은 무용의 사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기적 생명과 인류의 생의 발달을 포함해서 저대자연이란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서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물주라든지 신비적 '생명력'이라든지 불사의 영혼 따위에 의뢰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한 헤겔의 3부작을 참조할 것도, 우리 자신의 실재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상징의 배후에 우리의 무지를 숨길 것도 필요치 않다. 기계적 현상 - 그것은 물리학에서 인생의 제 사실로나 아감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거나 여전히 항상 기계적 현상이다 - 만으로 자연의 전모를 설명하고 다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유기적 지적 사회적 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 우주에는 아직 여러 가지가 알려지지 않아 애매하고 불가해한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의 공백을 메워 감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공백이 다시금 입을 벌린다는 것의 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두 개의 당구의 공이 부딪칠 때라든지, 돌맹이가 구를 때 일어나는 단순한 물리적 사실과, 또한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는 화학적 사실에 눈을 돌릴 때, 우리가 이들의 현상을 설명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다. 자연의 전 생활을 해명하는데 이러한 기계적 사실에만 주목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들의 사실이 우리를 기만한 일은 없으며, 기계적 제 사실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그런 영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여태껏 그런 영역의 존재를 추측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에는 상해를, 죽음에는 죽음을] 대신에 당시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던 심할 여지 없이 좋은 관습, 즉 상해나 살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관습을 입법화했다. 이와 같이 만족의 법전은 씨족 시대에 지배한 혈수 제 血讐制와 비교하면 진보한 것이기는 했다. 허나 동시에 그것은 이 시대에 희미하게 나타난 자유인의 계급 분화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노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 경우 배상금은 노예의 주인이 받는다], 자유인의 경우는 얼마, 수장 首長의 경우는 얼마의 금액을, 이런 식으로 이들의 부족 법전은 규정했다. 후자의 경우 배상금은 가해자에 대하여 평생의 노예를 의미할 만큼 금액이었다. 이와 같은 배상액의 차이가 규정되도록 된 애당초의 사상은 틀림 없이 싸움에서 살해된 수장의 가족은 가장을 살해당한 보통 자유인의 가족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는 데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전자는 후자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이 법률로 전화 轉化함과 함께 인간의 계급 분화는 그 후 오래 합법화하게 되고 금일까지 우리는 이러한 분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만큼 견고하게 법제화하는 결과로 되었다.

이것과 같은 것이 금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입법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말하자면 전 시대에 행하여진 억압이 입법화되어 항상 그 뒷 시대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부정은 그리스에 전해졌다. 마케도니아의 부정은 로마로 이행했다. 로마 제국과 동방의 참주 제 僭主制의 압제와 잔학은 갓 생긴 어린 만족의 여러 나라와 그리스도 교회에 전승 傳送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과거는 법률에 의하여 미래를 엮어 매는 것이다.

사회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보장의 전부, 민족적 생활 양식이나 농촌 공동체나 중세 제도시에서의 사회 생활 형태 등의 전부, 또한 부족간의, 내려와서는 그 후 국 제법의 기초로 된 공화 제도시간의, 관계의 전형 태 - 한마디로 말해서 배심원의 재판 제를 포함한 상호 부조와 평화 옹호의 형태의 전부는 무명의 민중의 창조적 천재가 산출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고대의 법전에 서 금일에 이르는 모든 법률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서 구성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만인에 의하여 유익한 것으로 승인된 일정한 관습적 생활 형태를 확인, 고정시킨 것이다. 다른 편으로, 둘째 요소는 기존 관습에 덧붙인 부가물 - 그것은 종종 단순한 부가물이긴 하나 음험한 방식으로 기존 관습을 정식화 定式化한 것으로서, 그 의도하는 바는 주인, 전사, 왕후 王侯, 승려 등의 발생 도상의 권력을 착안시켜 굳혀 놓는데에, 즉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신성화 하는 데에 있다.

과거 40 년간 행한 사회 발전에 관한 양심적 인 많은 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는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준다.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이 단적 결론을 학자들 자신이 대담하게 정식화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주

조차 이들의 관습법적 제도에다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인가했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자칭 비호자 庇護者들의 태반은 그들의 개인적 권력의 형성을 방해하는 그런 관습법적 제도를 타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 이익 또는 자기의 계급의 이익에 합치하게끔 그것을 개악하려고 어느 시대에나 노력했던 것이다.

빙하시대의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아득히 먼 태고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 속에서 소중히 준수되어 온 일련의 습관과 제도들이 만들어져 공동 생활이 가능케 되고 있었다. 그 후 도 인류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조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 생활, 상호 부조, 평화의 보장이 이들의 이름도 없는 군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과학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일체의 법률은, 그 상상의 기원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 그것이 신으로부터나 왔다고 주장되건, 혹은 또 그것이 현명한 입법자의 손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 논하여 지건 - 여하튼, 일체의 법률은 기존의 관습을 고정하여 항상적 恒常의 형태로 결정 結晶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확대하거나 했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릇 고대 법전은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문자로 기록되거나 혹은 돌에 새겨 넣어진 관습과 전승 傳承의 수집에 불과했다. 다만 이경우 법전은 이미 만민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습 외에 무장한 호전적 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약간의 새로운 규칙을 부가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들의 소수자에게 유리한 불평등과 예종 隸從의 새로운 관습은 이러한 법규에 의하여 강화되도록 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모세의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 죽이지 말라, 너희들 흠치지 말라, 너희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의 훌륭한 행동의 규칙에다 그는 이렇게 부가했던 것이다. ‘너희들이 이웃 사람의 처, 그의 노예, 그의 당나귀를 취하지 말라’고.

이리하여 그 결과 모세의 입법은 오래도록 노예제를 합법화함과 함께 부인을 노예나 태마? 馬와 같이 다루기를 허락한 것이다. 그 후 그리스도교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헌데 여기서도 당장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부가되었다. ‘노예는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없다’고. - 이와 같이 해서 주인과 노예와의 구별을 합법화하고, 신성화하고,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악당들의 권력을 성화 聖化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의 진수라 할 만한 용서라는 지고의 이념을 가르치는 복음서조차 다른 편으로는 언제나 복수하는 신에 관하여 말하고 그것에 의하여 복수를 설교하고 있다.

로마 제국 몰락 후의 이른바 만족 蠻族들 - 고르인, 룬고바르도인, 게르만인, 색손인, 슬라브인 - 의 법전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들의 법전은 일찍이 행하여지고 있던 복수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

4. 쾨트의 실증 철학

과학이 이상과 같은 결론에도 달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모든 성과를 포섭하는 종합 철학을 구성하려는 기도가 시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철학자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대접하는 데 사용해 온 공상의 산물, 즉 ‘실체’나 ‘우주의 이념’이나 ‘생의 목표’니 하는 따위의 상징적 표현에 헛된 시간을 낭비할 것 없이, 또한 의인관 擬人觀 - 즉 자연과 물리적 제력 諸力에다 인간적 자질이나 의도를 부여하는 따위의 작풍으로 귀중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허송할 것 없이, 우리의 전 지식의 종합적, 통일적인 또한 이성적인 총괄을 제시하는 그런 철학을 구성하려고 시도함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이 철학은 단순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점차 상승함으로써 우주적 생의 근본 원리를 해명하고 자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려고 했다. 이러한 방법의 의하여 이 철학은 사물 상호간의 새로운 관련을 - 즉 새로운 자연 법칙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연구 단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동시에 또한, 설사 그것이 아무리 시대의 통설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의 정당성을 신뢰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많은 기도가 19 세기에 실제로 시도되었다. 그중에서도 오귀스트 쾨트와 허버트 스펜서의 기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확실히 종합 철학의 필요성은 이미 18 세기에 백과전서파에 의하여, 또 금일까지 여전히 기념비적 노작 勞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저찬 연히 빛나는 『철학 사전』에 있어서의 볼테르에 의하여, 그리고 튀르코에 의하여, 내려와서는 생시몽에 의하여 일층 명료하게 자각되어 왔다. 그러나 19 세기 전반에 이르러 오귀스트 쾨트는 같은 모양의 저술을 자연 과학의 최근의 진보에 적응하는 엄격히 과학적인 형태로 계획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수학과 정밀 과학에 관해서는 쾨트가 그 과제를 훌륭히 성취했다 하겠다. 또한 그가 실증 과학의 영역 안에 생명의 과학 [생물학] 과 인간 사회의 과학 [사회학] 을 도입한 것이 완전히 옳았음은 일반의 승인을 얻고 있는 바라 하겠다. 그리고 쾨트의 실증 철학이 19 세기 후반의 여러 사상가와 학자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쳤음도 주지하는 바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철학자의 찬미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쾨트는 그 『실증 정치학』에서 근대의 제 제도의 연구, 특히 윤리, 즉 도덕 관념의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저토록 유약한 태도 밖에 취하지 못했을까.

어찌하여공트와같이광대하고또실증적인지성이, 만년에보는바와 같이하나의종교와어떤종류의예배의창시자가되고말았을까.

그의제자중의혹자는공트의만년의단계와이전의노작과를조화시키려고이철학자가『실증철학』과『실증정치학』이란두저작에있어서동일한방법에의거하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주장은옳지않다. 때문에공트철학의두사람의정통적제자리토레와존스튜어드밀은다같이실증정치학을공트철학의일부라고조차보지않으려고한다. 그들은이저작을지성이쇠퇴한결과라고보고있다.

그러나공트의두저작 - 『실증철학』과『실증정치학』 - 사이에존재하는모순은극히특징적인것으로그것은오늘의가장중요한문제들중의몇가지에빛을던져주고있다.

공트가그의『실증철학강의』를완성했을때가장중요한사항, 즉인간의도덕적감정의기원및이감정이인간과인간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문제가아직자기의철학속에는해져있지않다는생각이났을것임을틀림이없다. 이감정의기원을연구하고또그것을공트가생의전체를설명하는데쓰던것과같은원인에의하여설명하는것이분명히필요한것이였다. 어째서인간은그어떤초자연적인힘의간섭없이이감정에복종하고혹은적어도그것을고려해야할필요를느끼게되는가를그는설명하지않으면아니되였다.

공트가여기에바른길을건고있었다는것은극히주목할만하다. 후년에영국의위대한박물학자다윈이『인류의기원』에서인간의도덕적감정의발생을설명코자했을때, 공트가걸은이길을이어받았던것이다. 사실공트는『실증정치학』에서탄복할만한여러절節을쓰고있는바, 이대목은동물계에있어서의사회성과상호부조및이러한사실들의윤리적의의를그가결코간과하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이들의사실에서그런법한실증주의적결론을이끌어내기에는그것이저술된당시아직생물학의지식이충분치못했고공트자신도거기에필요한대담성을상실하고있었다. 그래서그는신을, 다시말하면인간이도덕적이기위하여예배하고기도드리지않으면아니되었던기성종교의신을거부하고그대신에대문자로쓴인류로바꿔놓았다. 이새로운우상앞에무릎꿇고절하기를, 그리고또우리속에있는도덕적감정을발달시키기위하여그것앞에기도드리기를, 그는우리에게요구한것이다. 일단이렇게되어인간이자기밖에, 또는자기위에자리하는어떤것을우러러절해야한다고승인됨으로써인간적동물의의무의길을밟도록밖으로부터시켜지고보면, 이에따라나머지것은저절로따라나오게되는것이다. 그의종교적의식도동방에서발생한옛종교들을본으로써구성된것이다.

인간의도덕적감정이그사회성이나사회자체와똑같이인간이전의기원을갖고있는현상이라는것을, 그리고그것이자연계의관찰과인간의사회생활의체험의축적에의하여인간속에보강된동물적사회성의일충진

의자연재해는죄많은인류를정도正道로바로잡기위하여모종의신이하늘에서내리신업보라고굳게믿고있는것이다.

동시에국가는그대학에서타고난사악한성질이란신앙을지지해왔고, 지금도역시지지하고있다. 사회위에군림하는권력의필요성과‘도덕법’[그것은교묘한바꿔치기로성문법과동일시되게끔만들어진다.]의침범에대하여과하여지는형벌에의하여사회속에도덕적요소를고취하기위하여작용하여야할권력의필요성을논증하는것, 그리고이권력이필요불가결하다는것을사람들로하여금믿게끔하는것, 그것은국가의사화에관한중대문제인것이다. 왜냐하면만약에사람들이강권의힘으로도덕적원리를부식할필요성을의심하기시작한다면그들은당장지배자들의고매한사명에대한신앙을버리고말겠기때문이다.

이와같이우리의전교육 - 종교적, 역사적, 법률적, 사회적인전교육은인간이만약에그들이제멋대로방치될것같으면야수로타락하고만다고하는사상으로침투되어있다. 강권이없어지면사람들은서로물어뜯을것이다. ‘군중’에게서기대되는것으로서는단한가지야수성과만인에대한각인의싸움이있을뿐이다. 이들의군중은만약그들위에선정된사람들 - 승려, 입법자, 재판관및그들의조수인경관과사형집행인이없었던들반드시멸망하고말았을것이다. 만인에대한만인의전반적전투를못하게제지하는것은다름아닌이사람들이다. 그리고마찬가지로그들이야말로사람들을교화하여법률을준중케하고, 규율을학습케하고, 사람들의‘고집센마음속에’고상한관념이발달하여언젠가는형태刑笞와감옥과교수대가금일보다그필요성을감減하게되는날까지사람들을엄격히지도한다는것이다.

우리는 1848 년에추방된어떤왕이‘가련한나의신민들이여! 짐이없으면너희들은멸망하리라’고말한것을웃음거리로삼고있다. 우리는또자기네영국인은이스라엘의잃어버린일족의자손이고, 그런까닭으로‘열등인종’위에군림하여선정을베풀어줄의무가있다고믿고있던영국의한상인을웃음거리로삼고있다.

헌데과연우리는이와같은과대망상적자부심을, 어느국민이건대다수의잘난체하는치들속에서발견하는일이없을것인지.

이와반대로인간사회와제도의발달에관한과학적연구는이상과는전혀다른결론으로우리를이끌어간다. 그것은다음과같은것을보여주고있다. 즉상호부조와방위및평화를일반적으로확보할목적으로인류가창조한습관이나풍속은대개이름도없는군중에의하여산출되었다는것이곧그결론이다. 그리고이습관이야말로금일생존하고있는동물들과마찬가지로인간에대해서도또한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를가능케한바의것이다. 소위인류의지도자, 영웅, 입법자들은사회속에관습법에의하여만들어져온것이외에아무것도역사에첨가하지않았음을과학은우리에게명시하고있다. 그들중의최량의지도자, 영웅, 입법자라일컬어지는사람들

7. 사회에있어서의법의역할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은 스펜서만이 아니었다. 흠스에 충실한 19 세기의 전철학은 원시인을 금수의 무리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들은 소가죽으로 분별하여 살며 상호간에 식물과 여자를 구하여 싸우고 있어 자비로운 권력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그들 사이에 평화가 도입되는 것으로 보기로 고집해왔다. 헉슬리와 같은 박물학자마저 이러한 흠스의 터무니없는 견해를 반복하여 [1885 년에] 다음과 같이언명하고 있다. 즉 소수의 우수한 개인들에 의하여 '최초의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인간은 당초 '만인에 대한 각인의' 싸움을 하며 살고 있었다고 [그의 논문 「생존 경쟁-자연의 법칙」 참조]. 이처럼 헉슬리와 같이 학식 있는 다윈주의자마저 사회가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동물계에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선입견의 뿌리깊음은 이처럼 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선입견의 역사를 더듬어 간다면 그 근원이 종교 속에 있다는 것은 쉽게 발견될 것이다. 요술자 妖術者, 기우사 祈雨師, 샤만교의 주사 呪師, 내려와서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승려, 그 후는 그리스도교의 목사 등의 비밀결사는 항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끔 하려고 노력해왔다. 즉 '세계는 죄속에 매몰되어' 있어 주사나 요술사나 성자나 목사들에 의한 인자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악의 힘이 인간을 사로잡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들만이 인간이 범한 죄를 벌하기 위하여 온갖 불행을 인간의 머리 위에 퍼붓는 일이 없도록 마신 魔神을 달랠 수 있다고.

원시 그리스도교는 확실히 승직자 僧職者에 관한 이러한 선입견을 약화하려고 했다. 헌데 그리스도교회는 '영원의 불'에 대한 복음서 자체의 말씀에 의거함으로써 도리어 그것을 강화하고 말았다.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가 사자 可死者로서이 세상에 강림했다는 신의 아들 예수라는 관념 자체도 역시 이러한 견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후 '성스러운 종교 재판소'에 대하여 그 희생자들에게 극히 잔인한 고문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천천히 회개할 시간의 여유를 줌으로써 세상에서의 영겁의 고통을 면하게 한다는 구실 아래 희생자들을 화형에 처하여서서히 죽여가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더욱이 가톨릭교회만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원리에 충실한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죄'투성이로 된 인간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새로운 고문과 공포를 발명했다. 지금도 천사람중의 구백구십구명까지가 한 발 旱魃, 지진, 역병 疫病 따위

화하고 발달한 것임을 꿈트가 인식하지 못한 결과 그러한 결론에도 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꿈트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그 육체적 조직과 같은 정도로 인간의 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양자가 다 대단히 긴 세월의, 과거의 수만년간 계속된 진화의 과정에서 생긴 유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꿈트는 동물계에 사회성이 있고 상호간에 동정의 감정이 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당시 대권위자로 인정되고 있던 동물학자 큐비에의 영향 때문에 뵤폰과 라마르크가 이미 밝히고 있던 것 - 즉 종 種의 변이 變異性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부단히 계속되는 진화 과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다윈이 이해한 바를, 즉 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최초의 유인적 類人의 동물이 이 지상에 출현하기보다 훨씬 이전에 동물 사회 속에 발달한 상호 보조 본능의 일종의 진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꿈트는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개개인은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인류가 멸망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인간성 속에는 도덕적 원리가 본능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것, 이 인간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타인 속에 반동을 일으키리라는 것, 그것은 흠사히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 역학적 움직임이 반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 등이다. 개개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의 능력 속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적 감정과 사회성의 습속을 필연적으로 버티어 주는 자연적인 힘이 뿌리박고 있어, 그것은 동물의 사회에 있어서 그것들을 일체의 밖으로부터의 개입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더욱이 이 힘은 여하한 종교나 여하한 입법자의 명령보다도 무한히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꿈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꿈트가 이것을 승인하지 못한 결과 그는 새로운 신성 神性인 인류와 새로운 식 및 새로운 윤배를 발명하고, 이 신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 생활의 길을 걷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꿈트는 생시몽과 같이, 또한 푸리에와도 같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공세 貢稅를 바쳤다. 평등한 힘을 가진 악의 원리와 선의 원리와 투쟁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또한 인간이 악의 대표자에 대한 싸움에서 자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의 대표자에 의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이념으로 침투된 꿈트는 도덕과 이도덕을 인간의 감정 및 관념 속에 강화해야 할 수단에 관한 문제에 마주치자마자 단박에 이 그리스도교적 이념으로 도피하고 말았다. 인류교는 그에 대하여 인간을 악의 파멸적 영향으로부터 구출할 수단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5. 1856 - 1862 년사이의각성

꿈트는인간의제제도의연구 - 특히도덕관념의연구 -에성공하지못했지만, 그러나그가『실증철학』과『실증정치학』을쓴것은앞서말한바와같이갑자기과학의지평선이활짝열리고교양있는인사의세계관의수준이높아진것 1856?1862 년보다훨씬전이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이 5,6 년의짧은기간에과학의각종분야에나타난노작은우리의자연관과생명관, 특히인간의사회생활에관한우리의견해에완벽한변혁을초래했는데, 이와같은변혁에필적할것으로는과거 20 세기간의전과학사의어디에서도발견할수없을만한것이었다.

백과전서가가단지에견뎌만했던것, 오히려예감한데불과했던것, 또한 19 세기의최고의지성들이그때까지간신히해명한것이, 이제문득일반적지식의성과에편입되게끔되었다. 그리고그것은자연과학의귀납? 연역적방법의덕택으로완벽하고도전면적으로성취되었기때문에그이외의모든연구방법은벌써불완전하고허위적이고무효과적인것으로생각하여지도록되었을정도다.

여기서잠깐머물러서서이시기에과학이달성한성과를조망해보자. 아마도그렇게함으로써다음에허버트스펜서에의하여착수된종합철학구성의기도를좀더잘평가할수있겠기때문이다.

이 6 년간에글로브, 크라우쥬스, 헤름호르츠, 쥘르등등일군一群의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중에는화학적스펙트르분석의발견에의하여우리들로부터멀리떨어진천체인별의화학적구성을알수있도록한키르히호프도포함되겠다] 19 세기전반기에는물리학의영역에있어서의대담하고광범한일반화작업을학자들에게허락하지않았던한계를드디어돌파했다. 그들은수년간에모든무기적無機的세계에있어서의자연의통일을증명하고확립했다. 이때이후무슨신비적인‘유체流體’에대하여 - 일찍이물리학자들이각종의힘을해명하기위하여호소해왔던열素熱素나, 자기나, 전기기타의유체에대하여말한다는것은전혀불가능한것으로되었다. 이제야광열, 전기, 자기등을포함한모든물리학적현상은바다의파랑이나베르또는음우音又의진동이생기게하는것과똑같은분자의역학적진동의결과라는것이명료하게되었다.

뿐만더러, 우리는낙하하는돌이나진행중의열차의운동의에너지를측정하는것과마찬가지로저불가시적인운동을, 분자의진동을측정하기를

서, 공리公理로서승인했다. 영국의시인테니슨이‘검사劍士의피로더럽혀진’자연이라묘사한것이동물세계에관한스펜서의관념이었다. 겨우 1890 년이되고서야그는『19 세기』지상誌上에발표한논문에서어느정도까지동물의세계에서의상호부조 [오히려동정의감정] 의중요성을인정하기시작하고이방면에서의사실의수집과관찰에착수했다. 그러나스펜서는마침내죽을때까지원시인을‘이빨과발톱에의한’이웃사람의수중에서먹이의최후의한조각까지탈취함으로써생존을유지하는야수와같은존재로규정하고있었다. 이와같이그릇된전제를, 결론을도출하는기초로서승인한스펜서가, 일련의오류와미망에빠짐이없이자기의종합철학을구성할수없었음은명백한일이라하겠다.

생존경쟁이란개념을각개의종의내부에있어서의격렬한투쟁이라기보다 훨씬 광범위의, 좀더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이제 2 의 저작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상호적 동정과 사회성의 감정이 가장 잘 발달하고 있는 동물의 종은 자기의 생존을 보존하고 또 많은 자손을 남기고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그리고 그는 각 개개체가 지닌 사회적 본능이 자기 보존의 본능보다 훨씬 강력하고 항상적일 뿐 더러 훨씬 활발하다고 하는 생각을 전개하기조차 했다. 이러한 견해는 몇 사람의 ‘다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정반대다.

『인류의 기원』에서 다윈이 이 문제를 다룬 여러 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회의 성질과 발달에 관한 극히 시사 唆적인 관념을 만들어 낼 기초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괴테는 근소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것을 벌써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러 장은 주의를 끌지 않고 간과되어 왔다. 그러다가 겨우 1879 년에 이르러서야 러시아의 동물학자 케스레르가 행한 강연에서 생존경쟁과 상호부조의 사이에 자연 속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발견한다.

‘종의 진보적 진화를 위해서는’ - 그는 약간의 예를 들면서 말한다 - ‘상호부조의 법칙은 상호투쟁의 법칙보다 훨씬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그로부터 1 년 지나 나산은 「생존경쟁과 투쟁을 위한 결합」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때를 같이 해서 뷔히너는 『사랑』이란 저작을 간행했는데 거기서 그는 최초의 도덕적 관념의 발달에 대하여 동물간의 동정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그럴적에 그는, 오로지 친자간의 사랑과 보살핌의 정에만 주목한 결과 자기의 탐구의 범위를 공연스레 좁히게 되고 말았다.

나는 1890 년에 출저 『상호부조론』에서 케스레르의 이념을 논증, 발전시켜 정확한 자연 관찰과 인간의 제도사 制度史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의거하면서 이 이념을 인간에까지 확대했는데 그것은 손쉬운 과제였다. 상호부조는 실제로 동물의 개개의 종이 그들에 적대적인 자연력에 대하여, 또한 다른 적대적인 종에 대항하여 자기의 생존경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였을 뿐 더러 동시에 진보적 진화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상호부조는 가장 약한 동물에 대해서조차 오래사는 기회를 [따라서 또한 경험의 축적을] 주고 그들에게 자손과 지적 발달을 보증한다. 그 결과 상호부조를 보다 많이 실행하는 동물의 종이 다른 종보다도 살아남을 뿐 더러 그것들이 육체적 구조와 지적 발달의 우월성의 덕택으로 - 각기의 강綱 [군 종류, 조류, 포유류] 중에서 - 제 1 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소이 연 所以然이다.

스펜서는 자연의 이 근본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각기의 조이 내부에 있어서의 생존경쟁, 한 조각의 식물 食物을 둘러싼 ‘이빨과 발톱을 갖고 서하는’ 사정 없는 싸움을, 스펜서는 아무런 증명도 요하지 않는 원리로

-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를 계산하기를 - 배워서 알게 되었다. 물리학은 이리하여 역학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나아가서는 또, 동일한 이 수년간에, 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 은하계 속에 무수히 발견되는 태양조차 - 가지 구상의 모든 물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단순한 물체 또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지구상에 발견되는 것과 절대로 같은 분자의 진동이 같은 물리적 화학적 결과로 수반하여 거기서도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공간을 운행하고 있는 저 천체 운동 자체도 아마 대우주의 별들 사이의 공간을 몇 10 억, 몇 조 킬로라는 거리에 걸쳐 전파하는 진동의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화학적 현상을 설명할 적에도 이것과 동일한 열과 전기의 진동만으로 족할 것이다. 화학은 분자 역학의 일장 一章에 불과하다. 그리고 온갖 형태로 표현되는 동식물의 생명마저도 모든 생물의 생명 조직이 성립하고 있는 복잡한, 그런 까닭으로 또한, 해체하기 쉬운 화학적 물체의 광범한 계열에 있어서의 분자 [또는 분자 속의 원자] 의 교환에 불과하다. 생명이란 요컨대 극히 복잡한 분자들의 일련의 화학적 분해와 재결합 - 즉 화학적, 무기적 발효의 영향 아래 생기는 발효 작용의 계열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같은 이 연 年間에, 신경계통의 세포의 생활과정과 자극을 하나에서 타 하나로 전달하는 능력이 식물 및 동물의 신경 생활에 있어서의 자극 전달의 기계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임이 이해되고, 계속해서 1890?1900 년 사이에 승인되고 증명되도록 되었다. 이들의 연구의 결과 우리는 이제 순전히 생리적 관찰의 영역에 머물러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 심상 心像이나 일반적으로 인상 印象이 우리의 뇌수 腦髓에 심어지며,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서로 작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에서 개념이나 관념이 생기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리하여 지금은 ‘연상 聯想’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인상이 묵은 인상을 재생시켜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유 思惟의 메커니즘 자체를 또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방면에서 ‘모든 것’을 다 알기까지는 아직도 저히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겨우 최초의 일보를 내디뎠을 뿐이고 아직 무한히 많은 것을 밝혀 나가야 하겠다. 과학은 오랫동안 자기를 질식시키고 있던 형이상학으로부터 간신히 해방되었을 뿐이고, 생리학적 심리학이란 이 광대한 영역의 연구에 막착수했을 뿐이다. 그러나 금후의 연구를 위한 공고한 기초는 벌써 닦아진 셈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확립하려고 노력한, 두 개의 별개로 독립한 영역으로 갈라놓는 체계는 구분 - 즉 그의 ‘시간, 공간내’에서 연구해야 할 현상계 [물리적 영역] 와 ‘시간내’에서만 연구되는 또 하나의 영역 [정신 현상의 영역] 이란 구분은 이제 소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찍이 러시아의 유물론자 세 초 노프 교수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 - ‘심리학은 어디에 귀속하며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 에 대하여 해답은 이미 주

어지고 있다. 즉 ‘심리학’은 생리학에 속하고 생리학적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최근의 생리학자들의 연구는 사유의 메커니즘과 인상의 발생과 기억에 의한 인상이 고정해 가는 과정 및 그 전달 등에 관하여 지금까지 형이상학이 우리에게 제공해 온 번뇌? 하고 찰보다 훨씬 많은 광명을 던져 주고 있다.

이리하여 형이상학은 일찍이 는 의심할 바 없이 자기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던 아성에 있어서 조차 패퇴한 것이다. 심리학의 영토는 자연과학과 유물론 철학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았다. 이 분야에 속하는 사유의 메커니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일찍이 보지 못한 스피드로 전진시킨 것은 이들의 자연과학과 유물론 철학이었다.

그러나 이 5, 6 년간에 나타난 노작 중에서 여타의 모든 명성을 압도한 발군의 저작이 있으니 그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다.

이미 전세기 [18 세기] 에는 뷔퐁이, 18 세기에서 19 세기에 이르는 경계선에서는 라마르크가, 이지 구상에 생존하는 등? 식물의 다양한 종은 영구 불변의 형태가 아니라 는 것, 즉 종은 가변적이어서 환경의 영향 아래 단히 변화한다는 것을 감히 주장하려고 했다. 일정한 군중에 속하는 상이한 종 사이에 발견되는 동과 적 同科的 유사성은 이들의 종이 공통한 선조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리하여 우리가 초원이나 소지沼地에서 보는 각종의 모간毛? 은 동일 종의 선조들의 자손이 아닐 수 없다. -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서로 다른 생존의 조건 건축에서 마주치게 된 변화와 적응의 결과로서 변종해 온 자손인 것이다. 또한 낭狼, 견犬, 산견山犬, 호狐와 같은 금일의 종은 기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 대신에 몇 세기간에 금일의 낭, 견, 호, 산견을 발생시킨 일종의 동물이 있었던 것이다. 말, 당나귀, 노새 등에 관해서는 그것들에 공통한 선조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고 그 뼈의 화석이 고대의 지질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18 세기에 이와 같은 이단적 견해를 토로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었다. 이보다 훨씬 경미한 이설異說을 말한 탓으로 뷔퐁은 교회 재판소의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결국 그는 그의 『박물지』에서 자기의 이설을 철회하도록 강제되었던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는 아직도 강력했으니 승려들에게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이단적 언설을 주장하려고 결심한 박물학자는 감옥이나 고문이나 정신병원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단자들은 극히 신중히 조심조심 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1848 년의 혁명 후에는 다윈과 월레스가 동일한 이단설을 과감히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윈은 용감히 부언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즉 인간도 또한 완만한 생리학적 진화의 길을 따라 발달한 것이 고 인간은 유인원類人猿에서 유래했으며 인간의 ‘불사의 영혼’과 ‘도덕적 정신’은 칩팬지나 개미의 지혜 및 사회적 습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달해 왔을 뿐이다, 라고.

급진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는 1851 년에 『사회정학社會靜學』을 썼는데 그 당시 인간의 제제도에 관한 인류적 연구는 아직 맹아 상태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하튼 결국 스펜서도 콩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채용한 선입견에 의하지 않고 대상을 그 자체로서 고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스펜서는 사회 철학에 착수하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물리학적 제사실의 연구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극히 만적인 방법 - 즉 유사類似 [유추類推] 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그는 술한 선입관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금일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과 사회학이란 두 부문에 걸쳐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 참다운 종합 철학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스펜서는 미개 발인의 원시적 제도를 연구하는데는 가장 부적당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부언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그는 태반의 영국인에 공통한 결함 - 즉 타국민의 습속 또는 관습에 대한 물 이해를 일층 확대하고 있다. 제임스 콜즈와 같이 극히 추명하고 날카로운 영국인도 일찍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로마 법적인 인간인데 아일랜드인은 관습법의 인간이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의 상호 이해는 가로 막혀 있다.”고. 그런데 이 질의 문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특성은 일단 영국인이 ‘열등인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이르면, 다시 더욱 명백한 것으로 된다. 스펜서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자기의 부족에 대하여 품는 미개인의 존崇尊崇의 염念이나 아이슬란드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무로본 ‘혈수血鬻’를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중세 제도에 있어서의 투쟁으로 장식된 파란 만장의 진보적 인생관을 또한 그는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의 시대에 존재했던 권리의 관념은 스펜서에겐 전혀 불가해한 것이었다. 그러한 것 속에 그는 야만, 미개, 잔인성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점에서 그는 오귀스트 콩트에 비해서도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콩트는 제제도의 진보적 발전 중에서 중세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 - 그것은 당시 프랑스에서 너무도 등한시된 관념이었다 - 을 이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 더욱이 이 점은 가장 중대한 오류였지만 - 스펜서는 허슬리와 기타의 여러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생존 경쟁’의 의미를 전혀 부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그는 이 종의 동물간의 싸움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고, 많은 조류가 곤충을 먹으며 살고 있다는 등의] 뿐만 아니라 각각의 종의 내부에서 동일 종에 속하는 개체간에 있어서의 생존 수단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으로서 생존 경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스펜서나 기타의 다윈주의자들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격렬한 투쟁은 물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부당한 생존 경쟁관에 다윈 자신이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가를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하다. 즉 『종의 기원』이 나오고서 12 년이 지나 다윈이 『인류의 기원』을 썼을 때 그는

6. 스펜서의 종합철학

인류학 [즉인간의생리학적발달과종교및제도의역사적연구] 이다
큰자연과학의연구와같은방법으로연구되도록된이래인류사의주요한
근본특징을이해하는것이드디어가능케되었다. 동시에또한, 일찍이지
질학의연구를방해해온성서의전승과같이, 역사연구를방해하여온형이
상학을최종적으로일소하는것도가능케되었다.

따라서허버트스펜서가 19 세기후반에자기의‘종합철학’의구성에착
수했을때, 콩트의『실증정치학』에보였던그러한오류에는벌써빠질리
없을터이라생각되었을것이다. 하지만스펜서의‘종합철학’은일보전진
을의미하는것이긴했으나 [이철학속에는종교나종교의식을용납하여지
는없었다] 그사회학적부분에는콩트의노작에못지않은큰오류가포함되
어있었다.

문제는다음점에있었다. 즉스펜서가사회심리학에도달했을때, 그는
이분야를연구할적에자기의엄밀한과학적방법론을충실히지키지못했
고, 이방법이도출해야할귀결을승인하려하지도않았다. 예컨대스펜서
는토지가사유재산이어서는안된다는것을승인했다. 지주는자기마음대
로소작료를인상한권리를가지기위하여토지에서실제로일하는소작인
들이집약集約경작으로토지에서수확할수있는모든것을획득하는것을
방해하기때문이다. 혹은또, 지주는토지를개간하지않고놀려두면서도
자기토지의주위에서다른농민들이악착같이일한결과자기의지가가오
르기를가만히앉아서기다릴수있으니말이다. 이와같은제도는 - 스펜서
는당장승인한다 - 사회에대하여해롭고위험하기짝이없다고. 토지에관
하여이러한폐단을인정하는한편, 이것과같은결론을기타의축적된부에
대하여 - 공장시설은말할것도없고광산이나도크에대해서도인정하려
하지않았다.

다음으로또한, 그는사회생활에대한국가의간섭을엄격히비판하여
그의저작의하나에다혁명적강령을표시하는‘개인대국가’라는표제를붙
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그는차차국가의방위적활동을보전하다는구실
을내세워결국현존형태대로국가를완전히복권하고다만근소한제한
을그것에다붙여놓았을뿐이다.

이런종류의모순을초래한이유의절반은확실히다음과같은점이라할
수있다. 즉스펜서가자기의철학의사회학적부분을구성한것은그가자연
과학의부분을집필하기보다훨씬이전의일이고, 당시그는영국의철학적

당시교회의장로들의다윈과그의용감하고유식하고충명한학도혁슬
리의머리위에얼마나무서운벼락을떨어뜨렸던가는주지하는바다. 혁슬
리는다윈주의의결론에서모든종교의승려들을공포의도가니속으로빠
뜨린것을고집내서이를강조했던것이다.

투쟁은격렬했다. 허나다윈주의가드디어승리를거두었다. 이때로부
터우리들의안전에전혀새로운과학, 생물학이 - 다시말하면생명의모든
현상에관한과학이성장했다.

다윈의노작은다른한편으로물리적물질의활동, 유기체의생활, 사회
생활등모든종류의현상을이해하기위한새로운연구방법을또한제공하
게되었다. ‘계속적발달’즉‘진화’란이념과제조건의변화에따라개체와사
회가새로운조건에점차적응을해나간다는이념 - 이사상은새로운종
의기원을설명할뿐만아니라그이상으로부터보다광대한분야에도적용되었
다. 이사상이자연일반의, 나아가인간과그능력이나사회제제도의연구
에도입된때, 그것은새로운지평선을열고인지人知의전부분에걸쳐가장
어려운사실로보이던것을해명할가능성을제공했다. 그처럼많은성과를
내포한이원리에의거함으로써비단유기체의역사뿐만아니라인간의제
제도의역사까지도재구성할수있도록되었다.

스펜서를매개해서생물학은우리에게다음과같은것을제시했다. 즉
지구상에생식生息하는모든종류의동식물이당초지상에존재했던약간
의훨씬단순한유기체에서출발하면서어떻게해서발달해왔는가하는것
이다. 그리고핵켄은인간을포함한각종에걸쳐가능한계보의약도를그렸
다. 그것만하더라도벌써훌륭한성과였다. 그러나다시그위에인간의습
속, 관습, 신앙, 제도에관한역사에약간의최초의과학적기초를담아놓을
수있게되었다 - 19 세기의오귀스트콩트에게전혀결여되었던것은바로
이 지식이었었던것이다. 금일우리가이역사를쓸적에벌써헤겔의형이상학
적정식定式에호소할필요도없고‘생득관념生得觀念’에도, 칸트의‘실체’
에도, 위로부터주어지는영감에도의거할필요가없다. 우리는일반적으
로이러한정식에의뢰함이없이이과제를수행할수있는데다름아닌이정
식이야말로탐구정신을질식시키고그배후에흡사히구름이덮고있듯이
매양한결같은무지와구태의연한미신을감추어덮고있었던것이다.

한편으로박물학자들의저작과다른편으로원시사회의제제도와그것
에수반하는법률의연구에동일한귀납적방법을적용한헨리메멘및그후
계자들의저작덕택으로인류제제도의발달사는최근 50 년간에동식물의
발달사와마찬가지로확고한기초위에놓일수있도록되었다.

물론 19 세기 30 년대프랑스의오귀스탄티에리의학과독일의마
우러및‘게르마니스트들’의학과 - 러시아에서의그게승자는코스토마로
프와베리야에프등등이었다 - 에의한저작들을읽어서는부당할것이다.
진화론적방법은, 물론훨씬이전부터백과전서파의시대이래습속과제
도, 나아가서는언어의연구에도적용되어왔다. 그렇지만참으로과학적

인결과가 얻어지도록 된 것은, 수집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박물학자들이 식물 또는 새로운 종의 기관 器官의 점차적 발달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하는 태도가 학습된 이후의 일이었다.

물론 형이상학적 정신도 그런대로 당시에는 대체의 일반화를 하는데 유용하기도 했다. 그것은 잡자는 사상을 일깨워서 자연의 통일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호한 암시를 줌으로써 사상을 자극했다. 19 세기의 최초의 10 년대에 지배했던 것과 같은 반동의 시대에 백과전서파와 그 영국 및 스코틀랜드의 선구자들의 귀납적 일반화는 망각되고 더욱이 신비주의가 개가를 울리고 있는 앞에서 물질계와 '정신계'와의 통일에 대하여 감히 논술하는 데는 도덕적 용기가 요구된 때 - 그런데 철학자들에게는 바로 이용기가 결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 독일인의 잠꼬대 같은 형이상학마저 확실히 일반화의 경향을 육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화는 혹은 변증법적 방법에 의하여, 혹은 반의식적 귀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결과는 절망적으로 막연한 것이었다. 그중의 전자, 즉 변증법적 방법이란 본질적으로 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단정 斷定에 바탕하고 있어 그것은 꼭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성 遊星은 우주 공간을 원형으로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논증함에 있어서 원은 가장 완전한 곡선이기 때문이라는 따위의 근거에 기 基하여 있었던 것과 동곡이음 同曲異音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단정의 소박한 정도와, 그리고 또 증명 이전 연음을 엄폐하고 있었던 것은 막연한 의론과 애매 모호한 용어 및 불명료하고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무겁고 따분한 문체였을 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반의식적인 귀납법에 의하여 얻어진 일반화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언제나 관찰 사례의 극도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 그중에는 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최근한 바탕과란을 일으킨, 극히 한정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행하여진 와이즈만의 거창한 일반화일 것이다. 이 경우 귀납은 반의식적인 것에 불과했는데 그의 심스러운 결론의 가치는 경솔하게 과장되어, 그것이 마치 다툼여지도 없는 법칙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되었다. 허나 그것은 사실인 즉 단순한 가정 - 가설, 일반화의 맹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실지로 관찰된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기초적인 검증에 불여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이들의 일반화는 - 헤겔의 '정? 반? 합'이 그 예이거니와 - 너무도 추상적이고 애매 모호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때문에 사상가가 실천적 귀결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어떠한 귀결이라도 이끌어내기를 허용한 것이다. 이래서 이 정신에서 [실제로 하여진 바와 같이] 바쿠닌의 혁명 정신과 그 도레스렌 봉기도 도출될 수 있었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자코뱅주의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현실과의 화해'로, 다시 말하면 전제 專制와의 화해로 이끌어간 헤겔의 이른바 '존재하는 것의 용인'도, 어느 것이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의 면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빠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학적 오류를 상기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이들의 사회

주의자는 변증법적 방법과 경제학적 형이상학에 집념하는 나머지 모든 국민의 경제 생활에 대한 현실적 제 사실의 연구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다.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현대과학과아나키즘
1930

kr.theanarchistlibrary.org

력을존경하는관념이아직완전히가시지는못했기때문에통일은더욱어려웠다.

이들의각종경향을훑어보기로하자.

거기에는우선프랑스공산주의자 [블랑키스트들] 의비밀결사의형태로프랑스대혁명의자코뱅주의의직계 - 즉바부프의음모단후계자들및독일의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동맹] 이있었다. 이들양파는어느것이나 1793 년의의심할바없는자코뱅주의의전통속에생명을잇고있다. 주지하다시피그들은 1848 년에는언젠가온이돌아오는날이면음모에의하여 - 또한아마도독재자의조력을얻어 - 국가의정치권력을수중에넣고, 1793 년의자코뱅의결사를모범으로해서 [물론이번은노동자의이익을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독재’를수립하려고꿈꾸고있었다. 이독재야말로 - 라고그들은생각했다 - 입법에의하여공산주의를강제할수있을 것이라고.

온갖종류의억제적법률과과세에의하여재산소유의상태는극히곤란하게되어이윽고소유자는재산소유의고통을면하고자이것을숫제국가에인도하는편이도리어행복하게느껴지도록될것이다. 다음으로‘농민군’이파견되어전답의경작을하게될것이다. 공업생산도같은반군대적방식으로조직되어똑같이국가의손으로운전될것이다.

이와같은견해는인터내셔널창립당시도여전히사회주의자간에퍼지고있었다. 그리고그후도프랑스에서는블랑키스트간에, 독일에서는라사르파와사회민주주의자들간에지지되고있었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로버트오언의학과에속하는영국노동자들은이러한자코뱅적견해에정면으로대립하는견해를지니고있었다. 그들은혁명을달성하기위해서나사회주의사회의건설사업을위해서도또한, 국가권력에의거할것을단언코인정하지않고주로노동조합의활동에의거하려했다. 영국의오언주의자들은공산주의를바라지않았다. 반면프랑스의푸리에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 자유로조직되고상호결합한공동체나집단에그들은큰의의를부여했다. 이들의공동체나집단이야말로토지와공장을공동으로소유하고, 그리하여그것을이용함과동시에그들의생산을공동으로저장할것이다.

그들은생산의필요에따라혹은집단적으로혹은단독으로일할것이다. 공동체와집단에서의노동의보수및공동체상호간의교환은노동권에의하여행하여질것이다. 이노동권은공동체의경지와공장또는작업장에서의활동에소비된노동시간의양을표시한다. 그리고각공동체는개인적으로제조하여교환을위하여공동창고에인도된생산물에대하여노동권으로지불할것이다.

노동권에의한보수報酬라는이사상은전술한바와같이푸르동과상호주의자의사회개혁안에서도채용되고있었다. 그들도또한혁명에의하여탄생되어야할사회에있어서의국가권력의간섭을부인했다. 금일경제적

사항에관하여국가의기능을구성하고있는것은무용한것으로되고말것이다. 왜냐하면일체의교환은민중은행과청산소에의하여행하여지고다른한편으로교육, 위생상의조치, 필요한기업활동, 교통수단등은각기독립한공동체의손으로운영될것이니까 - 그들은이렇게말했다.

교환에있어서화폐대신에노동권을발행한다고하는이동일한사상이, 단이경우일체의토지, 광산, 철도및공장의국유화란이념과결합되어주장되고있었는데, 이사상은 1848 년에페쿠르와비다르라는두사람의주목할만한저작가에의하여제창되었다 [양인의존재는금일사회주의자의의하여편협하게무시되고있다]. 그들은이체제를콜렉티브즘 (집산주의) 란이름으로불렀던것이다. 비다르는뤼산부르위원회의비서였다. 그리고페쿠르는 1848 년의헌법제정의회의의원이고, 당시이문제에대하여주목할만한논문을썼다. 그는여기서그자신의말을빌려말한다면, 사회혁명을완수하기위해서는헌법제정의회가실시로 옮겨놓기만하면될충분한법률의형식으로자기의체제를상세히전개했다는것이였다.

인터내셔널창립당시페쿠르와비다르양인의이름은그들의동시대인간에서조차전혀잊히고있었던것같다. 그러나양인의사회조직의사상‘콜렉티브즘’이란이름으로마치새로운발견물처럼야단스럽게널리전해지게되였다.

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사회주의제이념 - 생시모니즘

앞에서말한각종사회주의학과나란히생시모니즘의이념도있었다. 이이념이사람들의마음을휘어잡은것은 1848 년이전이였으나그후도여전히인터내셔널의성원의사회주의적견해에깊은영향력을지니고있었다.

재능풍부한다수의저작가들과사상가, 정치가, 역사가, 나아가서는산업인들이 30 년대와 40 년대에생시모니즘의영향을받고성장했다. 여기서는철학에서의오귀스트콩트, 역사가로서는오귀스탄티에리, 경제학자중에서는시스몬디의이름을드는것으로충분하겠다. 무릇이시기의사회개혁자들은이파의영향을받고있었다.

생시모니스트들은이렇게말했다 - 인류의진보는지금까지는노예가농노로, 그리고농노가임금노동자로전화한데에있었다. 그렇지만이제야임금제까지도폐지하고이와함께전생산시설에대한사유제까지도소멸시켜야할때가가까워진것이다, 라고. 이와같은변화를불가능하다고봐서는안된다고그들은부언한다. 왜냐하면사유제도권력도이미역사의

과정에서적잖이변화를겪어온것이다. 새로운변화가필요하게되면그것은반드시달성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사유재산의폐지는일련의조치에의하여점차행하여질수있을것이라 고생시모니스트들은말한다 [이들의조치에대하여프랑스혁명이이미선례를보였음을상기하자]. 이들의조치는예컨대, 국가가상속에다중세를과함으로써한세대에서다른세대로넘겨주는사유재산을점점많이수탈함을허락할것이다. 이리하여사인私人의수중으로넘어가는사유재산의부분은점점줄어들고사유재산은차차자취를감출것이다. 어째서그러나하면부자자신도문명의사멸기에속하는특권을버리는편이유리하다고 믿게될것이기때문이다. 부자에의한자발적재산포기와입법적방책에의한상속폐지는생시모니스트의국가로하여금토지와산업의유일의소유자로, 노동의최고규제자로전화케하고예술, 과학, 산업이란 3 기능의절대적수장, 즉지휘자가되게할것이다.

사회의각성원은이들 3 부문중의하나에서일하고생시모니스트의국가의역군이되는셈이다. 그리고이국가의정부는‘최량最良의인사’- 즉과학, 예술, 생업이란 3 계三界의가장우수한사람들의계층제에의하여구성된다는것이다.

생산물의분배는다음과같은정식에따라행하여질것이다. 즉능력에따라각인에게, 일에따라각능력에게.

이와같은미래의계획외에도생시모니스트학과와이학과에서나온실증철학은 19 세기에일련의주목할만한역사적노작을산출하여권력, 사유재산, 국가의기원을참으로과학적인견지에서검토했다. 이들의노작은금일까지가치를지니고있다.

동시에생시모니스트들은이른바고전학과, 즉아담스미스와리카도의경제학을냉엄하게비판했다. 이경제학과는후년‘맨체스터학과’란이름으로유명하게되고소위‘국가의무간섭’을주창했던것이다.

그렇지만생시모니스트들이산업적개인주의와자유경쟁이란원리에대하여싸우고있는동안에그들은처음에군사국가와그계층적구별에대하여싸웠을때비판했던그동일한오류에빠지고말았던것이다. 즉그들은결국국가의전능을승인하게되고, 자기의질서를 - 콘시데란이이미지적했듯이 - 불평등과권력위에, 또한행정적계층질서위에기초를놓았던것이다. 그들은이와같은정치적계층질서에다제사적祭司의성격마저부여하려고했다.

생시모니스트들은이처럼전사회에의하여생산된재화를각인에게제각기순개인적인부분을귀속시킨다는점에서공산주의자와웃소매를나누었다. 그들의많은경제학상의우수한노작을내었지만, 그러면서도그들은재화의생산이사회적행위 - 전세계적인행위라는관념에아직이르지못했다. 이점이생각났던들생산된재화의총량에서각생산자에게넘

겨줘야할부분을정확히결정짓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필연적으로인정하지아니할수없었을것을.

이점에관하여공산주의자와생시모니스트와의사이엔뿌리깊은대립이있었다. 그러나그대신양편이다같이개인과그권리를무시했다는점에서는완전히일치하고있었다. 공산주의자가개인들에게허용한것은겨우그들이자기네의관리와통치자를선출하는권리에지나지않았다. 생시모니스트들도한가지로이권리를마지못해서승인했다. 하지만이전에는그들은이선거권마저거부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여하튼공산주의자에대해서나생시모니스트에대해서나매일반으로각개인은국가의관리에불과하다. 『이카리아항해기』를쓰고아메리카에서공산주의의콜로니를건설한카베에있어서자코뱅적공산주의와개인의압박은가장완벽하게표현되었던것이다.

사실카베의 『이카리아항해기』에는도처에권력, 즉국가를 - 각세대世帶의부엌에이르기까지발견할수있다. ‘조리調理의지침’을각가정에다배부하는것만으로는만족하지않고이카리아공화국은다시나아가국가가시인하는식물食物의일람표를작성하여농민과노동자에게그식료품을생산시켜이것을배급한다. 카베는이렇게쓰고있다.

“누구라도국가가배급하는이외의식물을가질수없으니까국가에의하여승인안된식품을누구도먹을수없음은명백하다고하겠다.”[『이카리아항해기』 제 5 판, 1848 년, 52 면]

다시나아가위원회는식사의회수, 시간, 그길이, 그릇의수와식물의종류, 식사의순서까지규제한다고하는형편이다. 의복에관해서는위원회가일정한형을지정하여각인은그의사회적지위와상태를표시하는제복을착용한다. 항상같은것의생산활동에종사하는노동자가태반이다.

“이만큼이나질서와규율이지배하고있다”고카베는환성을올리고있다.

누구든지공화국의허가없이아무것도출판하지못한다는것은말할것도없겠다. 게다가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시험을쳐정식으로면허를얻은뒤가아니면안된다.

카베의유토피아가꼭그대로의형태로인터내서널내에서다수의신봉자를갖고있었다고는생각될수없을것이다. 허나그정신은잔존하고있었다. 다음과같은것은아주확실하다 - 그리고우리는권위주의자, 특히독일의공산주의자들과행한논쟁에서이것을분명히느꼈던것이다 - 즉금일에와서는어림도없는어리석은일이라생각되고있는, 앞에서말한그런엄격한규제가당시는슬기로움의표현으로받아들여지고있었던것이다. 우리의비판에대하여사람들은카베의말로이렇게대답한것이다.

“확실히공산체는부자유와속박을강요할것이다. 하지만이것은그주요한임무가부와행복을산출하는데있기때문이다. 이중의번거로움이나낭비를피하기위하여, 그리고또한농업생산과공업생산을절약함과함께

트에서의제문명의모든중심지의붕괴의근본원인이기도했다는것을 입증했다.

역사의경과속에서지주, 재판관, 군인, 승려를공통의이익속에통합할목적으로형성된권력, 그리고또한역사속에서다소라도보장된자유생활을만들어내려고하는인간의시도를매양방해해온권력 - 이권력은시저주의, 제국주의내지교회가사회혁명의도구로되지못함과마찬가지로해방의무기로될수는없는것이다.

경제학에서아나키즘이도달한결론은다음과같다. 정작해악은자본가가‘잉여가치’또는순이익을자기네의손에넣는데있다고보다오히려이와같은순이익또는‘잉여가치’가가능케된다는사실그것에있는것이다. ‘잉여가치’가존재하는것은다만몇백만의인간이그노동력과지식이것의존재를가능케할만큼의저렴한값으로라도팔지않고서는생활을해나갈아무것도가진것이없기때문일따름이다. 그렇기때문에경제학에서우리가첫째로연구하지않으면안될것은소비에관한장章이고, 또한혁명에있어서해야할최초의의무는의식주가만민에게보장될방식으로소비를재편성하는일이아니면안된다. 1793?94년에우리의선배들은이것을분명히이해하고있었다.

‘생산’에관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전사회의제일의필수품이가급적빨리충족되게끔조직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런가닭에아나키즘은장래를혁명을단기금화대신에‘노동권’을사용하거나또는금일의자본가들자리에자본주의국가를갓다놓는방식으로생각할수는없는것이다. 아나키즘은혁명속에국가없는자유코민주의에로의제일보를찾는다.

아나키즘의이러한결론은과연정당한것일까. 그해답은, 한편으로는아나키즘의기초과학적비판이, 다른한편으로는실제생활이우리에게명시할것이다. 허나, 아나키즘의의심할여지없이전혀올바른한가지점이있다. 아나키즘이사회제제도의연구를자연과학의한부분으로보고형이상학과는영원히웃기를나누고, 현대과학과금일의유물론철학과의구성에유용한방법을자기의사유방법으로서채용한것, 바로이것이다. 그결과, 가령아나키즘이그결론에있어서어떤오류에빠져있다하더라도그것을깨닫기는아주용이하다. 그러나우리의결론을검증하려고하면, 그것은모든과학이거기에기초를두고있고또한일체의과학적세계관의발달이거기에의거하고있는과학적귀납? 연역적방법을쓰고서야비로소가능케될것이다.

※ 이논문은 1909 년런던프리덤사에서출판되고그후 1916 년미국 의마서아스사에서출판되었다. 그런데이양쪽이서로대차大差가없다. 그외에볼드윈이편찬한『혁명논문집』에도이논문이합본되어있으나대단히생략되어있다. 이역서에는이들 3 자가참조되었다.

그생산력을 10 배나올리기위하여, 사회가일체를집중하고처리하고지휘하는것이절대필요하다. 사회는일체의의욕, 일체의행동을, 자기의규칙, 자기의질서, 자기의규율에복종시키지않으면안된다. 좋은시민은명령되지않은일체의일을자발적으로삼가지않으면안된다.”(『이카리아향해기』 제 5 판, 403 면)

가장난처한일은, 권위주의자들이다음과같은신조를여태껏지니고있다는것이다. 즉카베가말한것처럼결국‘공산체제는공화국의대통령아래서와마찬가지로군주아래서도실현가능하다’고하는신조말이다. 이이념이바로나폴레옹 3 세의쿠데타에길을 열어준것이고, 또한그후권위주의적사회주의자가부르주아적반동에직면하여대수롭지않게‘방임’의태도를취하는것을허락한이념이기도했다.

끝으로인터내셔널창립당시에프랑스와독일에다수의신봉자를거느리고있던루이블랑의학과에대하여한마디해야겠다. 이학과는독일에서는라사르파라는마무리진집단으로규합하고있었다. 이들의사회주의자는국가신봉적경향의지지자도, 그이전의사회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다음과같이보고있었다. 즉만약에혁명에의하여탄생하고사회주의적견해에의하여고취된정부가노동자를원조하여광범한노동자의생산협동조합을조직하게하고그것에다필요한자본을정부가대부한다면, 산업시설을자본가의손에서노동자의수중으로옮아가도록할수있으리라고. 이들의협동조합은국민생산의광범한일대조직으로결합될것이다. 만민에게평등한보수제도가과도적조치로서승인될것이다. 그러나각생산자의필요에따라행하여지는생산물의분배가언젠가는달성되어야할최종목적일것이다.

그것은콘시데란이아주정당하게도지적한바와같이민주주의국가에의하여통치된‘공산주의적생시모니즘’이었다.

광범한국가신용제도에의거하여극히저리低利로국가로부터대부를받아자본가적생산과경쟁할수있게끔국가의명령으로알뜰히원조된이들의노동자의조합조직은머지않아산업에서자본가를몰아내고자신이그자리를차지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의조합조직은농업에도확대할수있을것이다. 노동자들이잇어서는안될것은그러한경제적, 사회주의적목표다. 그것은부르주아정치가의단순한민주주의적이상인것은아니다.

무릇이들의제이념은 1848 년이전의사회주의적선전에의하여, 그리고또 1848 년의 2 월혁명및 6 월사건에의하여탄생한것이었는데그것들은세목에있어서여러가지변용을가지면서인터내셔널내부에널리보급되고있었다. 상호간견해의거리는컸다. 그러나이미앞에서도보았듯이이들의학과파의신봉자들은다음의한가지점에서의견을같이하고있었다. 즉그들은모두장래의혁명의기초에강력한정부가놓이지않으면안되고이정부는나라의경제생활을그수중에거두어들이지않으면안된다

고하는점이곧그것이다. 그들은모두중앙집권적계층적인국가조직을승인했다.

다행히도이들의자코뱅적제이념과병립하여그것과대항하는형태로푸리에주의자의이념이또한존재했다. 다음에이이념의검토로옮아가자.

16. 결론

이이상아나키즘의제원리와아나키즘의행동강령의전개에들어가지않더라도현금의인간식속에서아나키즘이차지하는지위를제시하는데는앞에서논술한바로서충분하겠다.

아나키즘이란자연과학의귀납? 연역방법에의하여언어진종합을인간의제제도의평가에적용하려고하는기도이다. 그것은또한평가에입각하면서인간사회의각단위에대하여최대량의행복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 평등, 우애로향하여나가는인류의걸음을예지豫知하려고하는기도이다.

아나키즘은자연과학에서의지적운동의불가피한결론이다. 이지적운동은 18 세기에비롯하여프랑스혁명의좌절후에유럽에승리의합성을올린반동으로말미암아침체한후, 50 년대말에이르러다시금전면적으로떨치고일어섰다. 이처럼아나키즘의근원은 18 세기의자연과학적철학속에있다. 그러나아나키즘이자기자신의완전한터전을닦은것은 19 세기후반의초두에일어나인간의제제도화사회의자연과학적기초에의한연구에새로운생명을불어넣은과학의부흥이후의일이었다.

1820 년대와 30 년대의독일의형이상학적철학자의득의만면으로자랑삼던소위‘과학적법칙’이란것은자연과학의방법이외의여하한방법도승인아니하는아나키즘의세계관속에들어설여지가없다. 아나키즘은일반으로인문과학이란이름으로불리어지고있는모든과학에도이러한방법을적용하려고한다.

이방법에의거하고, 또한이방법론의영향아래최근에이루어진일체의연구를이용함으로써, 아나키즘은인간에관한모든과학의종합을구성하려고힘쓰는동시에최근의민족학적연구에의하여전하여진자료를기초로또한그것들을일층확대하면서, 법이나정의와같은것에대한통설적관념을재검토하려고한다. 아나키즘은 18 세기의선구자들의노작에의거하면서국가에대립하여개인을옹호하는편에서고, 또한역사적조건에의하여사회를지배하고있는권력에대항하여사회의편을들려고한다. 아나키즘은또한, 근대과학의손으로수집된역사적자료를이용함으로써금일점점그압박을증대시키고있는국가권력이우리들유럽인에대해서는 15 세기와 16 세기이래비로소대두한유해무익한상부구조에불과하다는것, 그것은또한자본주의의이익을위해서만들어낸어진상부구조이고, 이미고대에는로마와그리스멸망의원인을이루고, 다시동양과이집

죽들에게서 간을 보내어, 농민의 해방을 약속하기까지 계속했다. ‘앞에서 밑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리기보다는 위로부터 해방을 주는 편이 낫다’고 하는 저게르첸의 명언 - 그것은, 알렉산드르 2 세에 의하여, 모스크바의 농노제 지지에 고루한 귀족들의 면전에서 되풀이되게끔된 말이다 - 은 단순한 위협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혁명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이것과 같은 일이 좀 더 큰 정도로 발생했다.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어느 혁명의 성격도 그것에 선행하는 폭동의 성격과 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니 오히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의 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겠다. 즉 아무리 심각한 정치 혁명도 만약에 혁명이 시작된 후에 일련의 지방적 폭동의 형태로 계속하지를 않고, 또한 만약에 인심의 동요가 1906 년과 1907 년의 러시아의 경우처럼 개인적 복수의 성격을 취하는 대신에 폭동의 성격을 띠는 일이 없었다면 결코 성취하지를 못할 것이라고.

따라서 장래의 혁명의 성격을 결정하는 폭동의 선구先驅 없이 헛되이 사회 혁명을 대망하고 이러한 희망적 관측에 빠지는 것은 유치하고 어리석다. 전반적 봉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호언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의 폭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범죄라 할 수 밖에 없다. 현대 선거의 선동 운동에만 정력을 쏟으면서 노동자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 혁명의 모든 혜택을 입게 되리라고 애써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혁명 정신이 역사적으로 고조된 국민 속에 발생하는 개개의 폭동적 행동에 대하여 악의에 찬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은 스스로 혁명과 일체의 진보에 대한 방해물 - 언제나 변치 않고 그리스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과 조금도 다름 없이 혐오해야 할 방해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12. 아나키즘 (속)

인터내셔널에서의 사회주의 제이념 - 푸리에주의

프랑스 혁명의 동시대인 푸리에에는 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문인門人들 - 특히 푸리에의 사상에 과학적 성격을 붙여 준 콘시데란 - 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고 있었으므로 인터내셔널의 가장 교육 있는 성원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푸리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푸리에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는 다음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주의의 역사를 서술하는 서적에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푸리에의 지배적 이념은 부의 생산을 위한 자본과 노동 및 재능의 결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요한 목적은 이윤 추구를 위하여 행하여져 필연적으로 성실치 못한 대규모의 투기로 이끌어 가는 일체의 생산물의 교환을 행하는 자유로운 국민적 조직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이 그의 이념은 저파리의 민중이 지롱드 당원을 국민 공회에서 추방하고 생활 필수품에 대한 최고 가격 법이 가결된 후, 1793:94 년의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실현코자 한 이념을 부활시킨 것이다.

콘시데란이 그의 저작 『구세계에 직면한 사회주의』 [이 책을 금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크게 추천하고 싶다] 가운데서 말하고 있듯이, 푸리에에는 금일의 착취의 온갖 추악한 형태를 제거하는 수단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 관계의 수립에, 다시 말하면 생산지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소비자에게 देने는 생산물의 보관자 - 그 소유자가 아니라 - 의 역할을 다해야 할 공동체의 중개적 대리자를 설치하는 데서 발견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상품의 가격은 투기의 대상이 되기를 그칠 것이다. 가격에는 운송 저장 및 집무에 소요된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비가 가산될 뿐일 것이다.

푸리에에는 어릴 때 일찍부터 양친을 도와 상점에서 일하면서 장사의 나쁜 측면을 실컷 경험했고 상업에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업과 싸우기로 맹서하고 있었다. 장성해서 프랑스 혁명의 시대에 그는 저 투기 - 처음에는 교회나 귀족한테서 몰수된 국유 재산의 매매에 즈음하여, 나중에는 전쟁의 시대에 발생한 온갖 물자의 가격 폭동에 즈음하여, 끔찍한 투기를 소상히 목격한 것이다. 그는 또 자코뱅당의 국민 공회도 테러리스트들의 투

기를제지하지못하는것을봤다. 그래서그는사회화된교환제도가없는 한, 민주주의를위하여승려와귀족에게서토지를몰수함으로써달성된경제적혁명의성과도허된일로돌아가고만다는것을깨달았다. 이리하여그는상업의공유화의필요를이해했고이방향에서생쿠티트가 1793 년과 94 년에시험한기도를평가하지않으면아니되었다. 이제그는이이념의사도使徒로되었다.

푸리에의의견에의하면생산품의보관자인자유코뮌은생활필수물자의교환및분배라는대문제의해결을해줄것이다. 그러나코뮌은금일의상인이나협동조합처럼소유자는아닐것이다. 그것은단순한대리인에 불과하고생산품을분배하기위하여창고에수납하는한편, 소지자로부터일체공세를징수하지않고, 또한물자의변동을틈타투기를하는일도없다.

소비와분배를통하여사회문제를해결코자하는이기도는푸리에를가장심원한사회주의적사상가의한사람이되게했다.

그러나그는이것에서만그치지않았다. 그는다시농업코뮌또는공업코뮌의, 좀더정확히말하면, 합체한농? 공업코뮌의전성원이파란지를구성하도록제안했다. 이들의코뮌은토지, 가축, 농구, 기계를하나로결합하여토지를경작하고혹은공장에서일함으로써토지, 기계, 공장등이성원전체의공유에속하는것으로보며,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공동자본에대하여각인이공정한액額을엄밀히계상計上할것이다.

두가지주요원칙이파란지에서준수되지않으면안된다고푸리에는지장한다. 첫째로, 그것은불유쾌한노동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일체의노동은항상사람들을유혹하게끔조직되고배분되어다채다양한것으로되지않으면안된다. 둘째로, 자유로운결합을바탕으로세워진사회에는여하한강제도용납되어서는아니되며또한강제가필요할이유도없다고하는것이다.

파란지의각성원의개인적필요에대한다소신중한주의와각종성격의특수성에대한약간의관용이있다. 그리고농업, 공업, 지적? 예술적인각종의노동을하나로결합한다. 그결과현대의사회제도아래서는종종해악이되기도하고위험하기도한인간적격정 - 그리고항상그것이강제력의사용을정당화하는구실이되는이러한격정마저진보의원천이될수있음을파란지의성원은머지않아확신하게될것이다. 이들의격정의본질을인식하여그사회적적용의방도를찾아내면족한것이다. 새로운사업, 위험한모험, 사회적태동, 변혁의갈망등은이들의격정에필요한배출구를제공하게될것이다.

하기는아직푸리에가국가적이념에집착을남기고있긴하다. 그래서그는자기의공동체조직을시험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진정한조화’의선구자로되어야할‘단순한조화’를우선시험해보자고‘군주의참가’를양청仰講할수있으리라고생각한것이다.

혁명의준비를연구함으로써우리가도달한결론은다음과같은것이다. 즉어떠한혁명도의회기타어떤대의집회의저항이나공세에서유래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모든혁명은민중속에서시작된것이다. 더군다나미상불어떤혁명도, 주피터의두뇌에서튀어나오는미네르바와같이머리에서발끝까지무장하고나타난것은아니었다. 무릇혁명은어느것이아부화기孵化器외에도진화기進化期를갖고있었고, 그기간에민중은당초에는극히조심성있는요구를내어놓다가극히완만한걸음걸이로차차혁명정신에침투되어간다. 이리하여그들은점점대담무쌍하게되어가서자기네의힘에자신을얻고절망의정지상태를벗어나점차자기네의강령을확대해간다. 당초의‘온건한건의’가마침내혁명적요구로전화하는데는시간이필요했던것이다.

사실, 수중에권력을장악할만큼강력한공화주의의소수파가탄생되는데는 1789 년에서 1793 년에이르는 4 년간이프랑스에필요했다. 부화기에관해서말할것같은, 우리는다음과같이이해한다. 즉당초는개개인이자기들의주의에발견하는사태에깊이마음이동요하여개별적으로반역한다. 그들은대부분이렇다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한채사라진다. 그러나사회의무관심을이들의전초의덕택으로흔들어놓은것이다.

현상에만족한자도, 마음이좁은사람들도, 이제는다음과같이자문하지않고서는배길수없게되었다 - 도대체무슨까닭에이들의젊은, 성실한, 힘이넘쳐나는사람들이자기네의생명을내어던졌을까, 라고. 벌써무관심한채로머물러있을수는없게된것이다. 찬부贊否간에태도를밝혀야하게된것이다. 이리하여사상은각성했다.

조금씩, 사람들의소집단도마찬가지로혁명정신에침투되어갔다. 그들도때로는부분적성공을획득할것을기대하고, 이를테면스트라이크에승리하여자식들에게빵을사다줄수있거나가증可憎스런관리를추방한다거나하는목적을달성하려고반역하고나선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극히빈번히아무런성공의기대도갖지않고서반역하기도한다. 왜냐하면벌써그이상을참을수가없었기때문이다. 혁명에선행하는것은이런종류의반역행위, 더욱이 1 회나 2 회나 10 회의반역이아니라몇백번이란봉기인것이다. 어떤인내에도한도라는게있다. 이는금일의아메리카합중국에서도보이는바다.

러시아에있어서의농노제도의평화적폐지에대하여종종지적들한다. 허나그럴때, 일련의긴농민폭동의역사가그것에선행하여있고, 이것이바로농노제폐지를이끌어왔다는것은전혀잇히고있거나아니면전혀알려져있지않다. 이들의반란은 50 년대에벌써시작되고있었다. 그것은아마도 1848 년혁명의반향이거나아니면 1846 년의가리시아에서의농민반란의반향이었다. 그리고해마다점점러시아전토에확대하여점점심각한것으로되고, 지금까지보지못했던사나운성격을띠기에이르렀다. 이러한사태는 1857 년알레산드르 2 세가, 드디어리투아니아의귀

런것에다희망을걸지않는다. 그러한정부가할수있는일은아무것도없다
고미리부터단언하였다.

이렇게말하는것도개인적기호에서가아니다. 혁명의물결에번롱?
弄되어정부의자리에밀어올리어진사람들은결국충분히요구를충족시
키지못했다는것을역사자체가가르쳐주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은
도저히요구를충족시킬수없는것이다. 왜냐하면새로운원리위에서사회를
재건하는일에당하여고립한인간은아무리현명하고아무리헌신적인인
간이라할지라도필경무력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이이을위해서는경
작지, 주택, 운전중의공장, 철도, 선로를달리는객차, 기선등의현장에
서일하는대중의집단적정신이없으면안된다.

고립한개인은도목은사회형태의파괴가성취되기시작할때, 이러한파
괴를위한정당한표현내지정식을발견할수는있을것이다. 그들에게될수
있는것은기껏해야이파괴의작업을다소라도넓혀서나라의일부에서생
긴사태를전지역에확대하는일이겠다. 그러나법률에의하여이파괴의작
업을강요하는것은절대로될수없는것이다. 이는특히 1789?94 년의혁
명사가증명하고있는바다.

새로운생활형태는혁명후목은생활형태의폐허위에탄생할것이다.
하지만, 이들의신형태가민중의건설작업속에서, 한꺼번에수천군데에
서행하여지는작업속에서, 스스로형태를갖추지않는한, 어떤정부라하
더라도그것들의표현을발견할수없는것이다. 누구라서 1789?94 년의
혁명의제사건의과정에서, 지방자치체와파리코뮌및그제지구가어떠한
역할을수행하게될것인지를추측했을것인가. 또한추측할수있었을것인
가. 미래를법에복종시킬수는없는노릇이다. 가능한것은그주요한경향
을추측하여그길을말끔히닦아놓는일이다. 우리가하고자애쓰는것은바
로이것이다.

사회혁명의과제를이와같이파악하는이상아나키즘이‘현존국가에서
의권력장악’을목표로내거는강령에동조할수없음은명백하다.

이권력장악이평화적방법으로달성되지않을것을우리는잘알고있
다. 부르주아지는싸우지않고서자기네의권력을내놓지않을것이다. 그
들은저항도않고서순순히물수를감수하지는않을것이다. 다른편으로사
회주의자가정부의일부로들어가부르주아지와권력을나누게된다면, 이
에따라그들사회주의자는불가피하게퇴색한자가되어갈것이다. 그러지
않을라치면사회주의자의기관지機關紙상에서도인정하다시피, 수로보
나지식으로보나훨씬강력한부르주아지가그권력을나누어가질권리를
사회주의자에게인정할리가없다.

다른한편으로, 프랑스영국또는독일에봉기가일어나사회주의의임
시정권의등장이가능케되었다하더라도, 민중자신의건설활동을결할것
같으면그러한정권은전혀무력하고, 얼마안가서혁명의방해물즉브레이
크가되고말것이다. 그것은반동의대표자즉독재자의발판될것이다.

‘프랑스국왕에게인류를사회적혼란에서구출하는명예를위탁하여전
세계의조화의창설자, 해방자가되게할수있으리라’고그는초기의저작중
의하나에서말했다. 그는이동일의이념을 1808 년의『네가지운동의이
론』에서도되풀이하고있다. 그후도그는루이필립왕에게이목적의실현
을위탁했던것이다 [페라랑, 『푸리에, 그생애와교설』 4 판 114 면]. 그
러나이것들은모두최초의준비의시도에관련하고있었던것이다.

‘진정한조화’또는‘보편적조화’라붙여진사회에관해서말한다면, 그
는여기서는정부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았다. 이조화는‘부분적으로’도
입될수는없을것이다. 변혁은사회? 정치? 경제? 도덕등일체의관계에있
어서한꺼번에일어나지않으면안된다. 푸리에가국가의비판에착수했을
때, 그는꼭지금우리가하고있는것과같이철저한비판을했다.

“정치적무질서는사회적무질서의결과이고그표현이다. 불평등은부
정의로전화하고있다. 권력이그이름아래행동하는국가란것은, 그기원
에있어서나그원리에있어서나특권계급의봉사자이고잔여계급에대립
하여자기네의이익을지키는옹호자이다”라고그는말했다.

그밖에도이러한어조로비판이전개되고있다.

푸리에의제원칙이완전히적용된결과출현해야할‘조화적사회’에서
는도무지강제가존재할여지가없다.

푸리에에는프랑스혁명의패배직후에문필활동으로들어갔기때문에필
연적으로사회문제의평화적해결로기울고있었다. 그는자본과노동및재
능간의결합이란원칙을승인할필요를역설했다. 그결과파란지가생산하
는재화의가치는세부분으로나누지않으면안된다. 그제 1[총액의반내지
12 분의 7] 은노동의보수에, 제 2[12 분의 3] 는자본에, 제 3[12 분의 2
내지 3] 은재능에충당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인터내셔널내부의푸리에문하들의태반은그의체계의이부분
에는큰의의를부여하지않았다. 이부분에는푸리에가글쓰고있던당시의
영향이보이고있다고그들은보고있었다. 그들은오히려다음과같은푸리
에의교설의근본적특징에유의하고있었다. 즉,

1) 자유코뮌즉독립한작은지역이새로운사회주의사회의기초가되고
단위로된다.

2) 코뮌은그내부에서생산된모든생산물의관리자이고, 일체의교환
의중개자이다. 그것은동시에소비자의결합체이고, 대개의경우동시에
또, 생산의단위이기도할것이다 [그런위에그것은직업집단또는생산자
그룹의연합이기도할것이다].

3) 이들의코뮌은상호간에자유로결합하여연합, 지방, 국민을형성
한다.

4) 노동은매력적인것이될것을요한다. 그것이없고보면노동은언제
나고역일것이다. 그리고이것이달성되지않는한여하한사회문제의해결
도불가능하다. 이것을달성하는것은완전히가능하다. 그리고노동은금

일에있어서보다훨씬생산적인것으로되지않으면안되고, 또한그렇게될수있다.

5) 이런종류의코뮌에있어서조화를유지하기위하여여하한강제도필요치않다. 세론의영향만으로충분하다.

생산물의분배및소비에관해서는극히다양한의견이표명되고있다. 인터내셔널창설후사회주의의제이념은점점많은성공을거두었다. 특히 1868 년의브뤼셀대회, 1869 년의바젤대회에서인터내셔널은절대다수로경지, 임야, 철도, 운하, 전신등, 나아가서는광산과기계에대한집산제를선언했다. 집산제와그것을달성하는수단으로서의수탈을승인함으로써, 인터내셔널의반권력주의적성원들은콜렉티비스트 [집산주의자]라칭하여, 마르크스, 엥겔스및양인의신봉자들의국가주의적중앙집권적공산주의에대하여, 그리고바부프와카베의권위주의적전통을지닌프랑스의공산주의에대하여명확한일선을그었다

1867 년에 J. 기욤 - 그자신도콜렉티비즘의선전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했다 -에의하여공간公刊된『사회주의론』, 마찬가지로그의주저인『인터내셔널 - 기록과회상』[1905?10 년에파리에서 4 권본으로공간되었음], 끝으로기욤이『생디칼리즘의백과전서』에최근기고한「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콜렉티비즘」에서, 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가장활발한연합주의적성원들 - 바르랑, 기욤, 도페프, 바쿠닌및기타의동지들에의하여‘콜렉티비즘’이란말에붙여진정확한의미의상세詳細가논술되고있다. 그들의언명에의하면, 권위주의적공산주의에대항하여그들은콜렉티비즘이란말아래서비권위주의적연합주의적또는아나키스트적공산주의를이해했던것이다. 그들은콜렉티비스트라고자칭함으로써무엇보다도우선그들이반권위주의자라는것을역설했다. 그들은수탈을완료한사회에서소비가취해야할형태를사전에결정하려고아니했다. 그들에대하여중요한것은사회를엄격한틀안에다억지로가두어넣는것을하지않겠다는희구이고, 이점에서그들은진보적그룹에대하여가장광범한자유를보류하려고했다.

불행히도인터내셔널내부에서뿌려진집산제라는이념은바젤대회후 10 개월이지나서보불전쟁이일어난당시, 노동자대중간에널리알려지기에는이르지못했다. 그결과파리코뮌때에도이러한집산제실현의방향으로의진지한기도는전혀없었다. 코뮌이괴멸한후도연합주의적인터내셔널은그주요한이념 - 즉사회혁명을실현코자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을실행하기위하여노동자의세력을반권위주의적조직으로결집한다고하는이념의존속에전력을기울이지않으면아니되었다.

이리하여미래의문제는필연적으로배경으로후퇴하게되었다. 아나르코코뮤니즘이란의미로해석될콜렉티비즘의이념은약간의신봉자에의하여계속선전되고있었으나그것은한편으로「공산당선언」의제이념을포기하기시작한후에마르크스주의자들이전개한국가집산주의의관

켜] 을보증시키고, 동시에또빈민을착취할완전한자유와국부를법률적인제한없이마음대로투기할자유를그들을위하여인정케했다.

이권력, 이착취의권리 - 이일방적자유방임 -를부르주아는실제로손에넣었다. 그리고그것을유지하기위하여그들은자기자신의정치형태 - 중앙집권국가에있어서의대의정치를만들어낸것이다.

그리고자코뱅당원에의하여산출된이국가주의적중앙집권속에저나폴레옹 1 세는제정수립의알맞은지반을발견했던것이다.

그로부터 50 년지나꼭같은방식으로이번은나폴레옹 3 세가 1848 년경프랑스에발전하고있던민주주의적중앙집권적공화제의이상속에있는제 2 제정수립을위한제요소가완전히마련되고있음을발견했다. 실로 70 년에걸쳐모든지방생활을깎아뭇개고도시와농촌에서의일체의이니셔티브뿐만아니라국가의테두리밖에서의이니셔티브 [조합운동, 노동조합, 사적私의회사, 코뮌등] 도압살한이중앙집권적세력에의하여프랑스는금일까지상처를입고있는것이다. 이국가적약속을타파하려는최초의기도 - 그러므로새로운역사상의제 1 기를개척한기도 - 는 1871 년에가서파리의프롤레타리아의손으로비로소행하여졌을뿐이다.

우리는다시한걸음나아가이렇게주장한다. 즉국가사회주의자들이중앙집권국가의수중에노동수단의사회화를피한다고하는망상을포기하지않는한, 국가자본주의와사회주의국가와의수립에향해진그들의기도가필연적으로물고갈결말은곧공상의파산이요, 또한군사독재일것이라고.

여기서는우리의견지를확증하는각종의혁명운동을분석하기를할애하고다음과같이언명하는것으로그치겠다. 즉우리가이해하는장래의사회혁명에는자코뱅독재도아니려니와국민공회나의회내지독재자의손으로행하는사회제도의변혁도아니다. 혁명은일찍이한번도이런방식으로추진된예가없다. 만약에노동자의봉기가실제로이러한방향을더듬어간다면, 그것은아무런지속적성과를거두지못하고파멸이약속될것이다.

이와반대로우리가이해하는혁명은광범하게확대하는혁명이고, 그사이에대중이봉기하는지방의모든도시, 모든농촌에서민중이 스스로 사회의재건사업에착수하지않으면안된다. 민중 - 즉농민과도시의근로자 -이위로부터의명령이나지령을기다리지않고다소간에광범한코뮌주의적원칙에입각하여스스로건설적, 계몽적활동을개시하지않으면안된다. 그들은무엇보다도, 첫째로만인에게먹을것과집을주도록수배하고, 다음으로만인의식량, 주택, 의복의공급에필요한것을생산하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폭력에의하거나또는선거의결과로수립된정부에대하여말하자면, 그것은 40 년대의프랑스에서이름붙여지고아직까지도독일에서호칭되고있는저‘프롤레타리아의독재’이건, 혹은또환호성으로영접되고또선출되어성립한‘임시정부’이건, 그리고또‘국민공회’이건, 우리는일체그

와같은국가의태두리밖에사회적새로운조직형태를희구하는진보의조류에역행해서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

사회주의의참된역사적과제를국가사회주의자들이이해하지못하고있는점에그들의심각한사상적혼미 - 절대주의적, 종교적편견의유물이있다고우리는보며, 그것에대하여우리는싸운다. 노동자들에대하여그들이국가기구를말짱하게그대로유지하고다만권력자를바꿀뿐으로서사회주의의기구를도입할수있다고가르치고, 또한노동자의지성을도와서그들에게적합한새로운생활형태의탐구로향하게하는대신에그것을방해하는것은범죄이며하나의역사적과오라고우리는보는것이다.

끝으로우리는혁명의당파이고, 따라서우리가역사속에서연구하는것은무엇보다도우선과거의혁명의발생과발전이아니면안된다. 이렇게함으로써우리는지금까지끊임없이역사에부여해온그릇된국가의적해석에서역사를해방하려고한다. 지금까지기록된각종의혁명사속에서우리는아직민중의모습을발견하지못하며혁명의기원에관하여아무것도아는바없다. 봉기전야의민중의절망적상태에관한서론에서보통되풀이되는관용어는이러한절망의한복판에서어떻게해서개선가능성의희망과신시대의등불이나타났고, 반역정신이어디로부터발생하고어떻게해서퍼져나갔는가에대하여아무것도말하여주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역사책을내버리고우리는원자료로대결하여민중속에일어난각성의경로에대하여, 또한혁명의소용돌이속에서수행된민중의역할에대하여어떤정보를얻고자한다.

이리하여우리는프랑스혁명을무엇보다도자코뱅글라브에의하여지도된거대한정치운동이라고내다본루이블랑과는달리이혁명을이해한다. 우리는프랑스혁명속에무엇보다도우선위대한민중적운동을발견한다. 그리고특히농촌에서의농민운동의역할을 [농민반란에관한위원회의보고자그레고아르목사가역사가시로세르에게말한것처럼‘모든촌락이자기자신의로베스피에르를갖고있었던’것이다] - 말하자면봉건적농노제의유물의배제와각종의욕심많은돈놀이꾼이나지주들의손으로농촌공동체에서약탈한토지의농민에의한수탈 - 예컨대농민들은특히프랑스동부에서이일에성공했다 -과를주요한목적으로삼고있던운동의의를인정한다.

4 년간에걸쳐계속된농민봉기의결과혁명적상황이출현했고도시에서도이에호응하여코뮌주의적평등으로의경향이발전하게되었다. 다른한편으로부터주아지는왕과귀족의권력을착실히무너뜨려대신이제자기자신의권력을수립하려고교묘하게활동하여권력을증대시키게되었다. 이목적으로부터주아는완강하게사정없이강력한중앙집권적국가를만들어내려고서둘러이국가에다일체를병탄併呑시킴과함께부르주아지에게재산권 [혁명때에그들이약탈한재산에대한소유권까지포함시

념과충돌했고다른한편으로는블랑키스트의권위주의적공산주의와충돌했다. 그것은또푸르동에의한권위주의적공산주의의가혹한비판의영향아래 1848 년이후라틴제국諸國의노동자대중간에착근着根하기시작한공산주의일반에대한널리퍼져있는편견에맞닥뜨렸다.

이저항은극히강력했다. 그래서이를테면스페인 - 여기서는연합주의적인인터내셔널이노동조합의광범한연합체와밀접히연결되고있었다 -에서당시나훗씬그뒤나콜렉티비즘이라하면단지집산제의주장으로만받아들여졌고, 반국가적이념을강조하려면콜렉티비즘이란말에다별도로‘밋아나키’란말이첨가되었다 [anarquía colectivismo]. 그런데다가그럴때생산자와소비자의개개의집단이여하한 - 공산주의적인, 그렇지않으면그이외의 - 분배방식을취할것인가는미리결정짓지않고남겨두었다.

끝으로금일의사회에서사회주의사회로이행하는방도에관해서는인터내셔널의활동가들은푸리에가이에관하여말한것에다큰의의를부여하지않았다. 그들은유럽에혁명적상황이성숙해가고있다고느꼈고더욱이 1848 년의혁명보다도훨씬심각하고전반적인혁명이박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었다. 그리고그때노동자들은정부의명령을기다릴것도없이그들자신의힘을다하여자본으로부터그수중에취고있는독점을탈취할것이라고보았다.

파리코뮌이준충격 - 바쿠닌

이상각장에서행한개관에서인터내셔널에서의아나키즘의이념이어떠한터전위에서발전하고있었는지밝혀졌을것이다.

그것은중앙집권적이고권위주의적인자코뱅주의와지방적독립및연합이란이념과의혼합을보여주고있었다. 그리고이두가지가다같이 - 방금우리가본바와같이 - 프랑스혁명에서유래하고있다. 중앙집권적이념이 1793 년의자코뱅주의의직계라한다면, 지방의독립적행동이란이념은 1793?94 년의파리의제지구및제코뮌의건설적이고혁명적인강력한활동의유산이었다.

그러나이들의두조류중에서전자측자코뱅주의편이우세했다. 인터내셔널에가입한부르주아지식인의태반이자코뱅적정신의소유자이고노동자는그들의영향을받고있었다.

유럽과아메리카의노동자대중간에서혁명사상에새로운방향을잡아주기위해서는파리코뮌과같은거대한중요성을가진사건이필요했다.

1870 년 7 월에가공可憐할보불전쟁이일어났다. 나폴레옹 3 세와그조언자들은필연적으로닥쳐올것이에측되고있던공화주의의혁명에서제국帝國을구출코자이전쟁에돌입했다. 전쟁은프랑스의소멸과제정

의파멸, 티에르와간벳다의임시정부및파리코뮌을초래했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의기도가상에티엔느, 나르본느기타의남프랑스제도시에서, 그후는스페인의바르세로나와카르타제나에서발생했다.

인터내셔널에대하여 - 적어도발생한사건에서교훈을끌어내어생각할줄아는성원들에대하여 - 이들의코뮌의봉기는하나의계시였다. 파리의노동자들이바리케이드위에서사수한사회혁명의붉은깃발아래이들의봉기는라틴제국민속에일어날장래의혁명의정치적형태가어떠한것이아니면안되며또한아마도어떠한것이리라는것을보여주었다.

말하자면그것은 1848 년에생각되었던그러한민주주의적공화국이아니라코뮌 - 자유롭고독립한, 그리고아마도공산주의적인코뮌인것이다.

민중혁명의시기에그성공을확보하려면어떠한정치적및경제적방책을취해야할것인가에대하여, 당시의지성을지배한혼란이파리코뮌에도감돌고있었음은확실하다. 인터내셔널내부에나타난이러한지적혼란은코뮌에도지배하고있었다.

자코뱅주의자도코뮌주의자 [자치주의자] 도 - 말하자면강권적중앙집권주의자도, 연합주의자도파리의봉기에다같이등장하여, 이윽고코뮌내에서양파간에충돌을빚어냈다. 가장전투적인분자는자코뱅주의자와블랑키스트중에있었다. 그러나블랑키는투옥되고있었으며블랑키스트지도자들 - 태반이부르주아였던 - 간에그선구자인바부프주의자들의공산주의적이념이거의소실되고있었다. 그들에대하여경제문제는코뮌이승리를거둔뒤에다루지않으면안될문제였다. 이런견해가당초부터아주널리퍼져있었기때문에민중적인공산주의적견해는충분히보급되지않았다. 뿐더러파리코뮌이단명으로끝난결과이러한견해는확립되지에이르지못했다.

이와같은조건아래패배는순식간에닥쳐왔다. 공포의밑바닥에떨어졌던부르주아지의사납게설치는복수를볼때, 코뮌의승리는경제적지반에서의정복과병행하는발전으로써민중이코뮌수호에궤기하지않고서는도저히불가능하다는것이다시한번증명되었다.

정치적혁명을달성하려면이것과병행하여경제적혁명이수행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그러나동시에파리코뮌은또하나의귀중한교훈을주었다. 그것은라틴제국민간에프롤레타리아혁명의이념을선명히했다.

자유코뮌 - 이것이바로사회혁명이취해야할정치적형태인것이다. 설사전국이, 설사모든이웃나라가이러한행동양식에반대한다하더라도일단어떤코뮌의, 어떤지역의주민이그생활필수품의소비의사회화를결의하고또이들의물자의교환과생산의사회화를바란다면, 그들은이것을그들자신, 그들의손으로실현하지않으면안된다. 만일그들이이것을한다면, 만일그들이이위대한사업을위하여전력을기울인다면, 그들이뒤

의손으로운영되도록되었다. 나아가서는코뮌의탄갱炭坑이나유제품공장, [토케이에있어서의] 결핵환자를위한산양방목장또는온수배급과채소밭의경영등이있다.

물론독일황제도, 스위스에서권좌에오른자코뱅당원도, 이목표로진진하는자는아니다. 그들은반대로과거로눈을돌려국가의손에모든것을집중시켜지역적및직능적독립의일체의흔적을파괴하려고애쓴다.

우리가주목하지않으면안될것은유럽과아메리카의사회에있는진보적부분이다. 거기에는국가의테두리밖에서조직되어점점국가에대신하여, 한편으로중요한경제적기능을장악하고다른한편으로국가가여전히자기의직무로자인하고는있으나여태껏한번도적당한방식으로이행할수가없었던제기능까지도장악하려는경향이분명히보인다.

교회의사명은민중을지적예속상태에불들어매어두는데있다. 다른한편으로, 국가의사명은민중을반기아상태로경제적예속속에가두어두는데있다. 이제우리는이들두개의사슬에서벗어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을안뒤에는벌써우리가점점증대하는국가예속속을진보의보증으로인정할수는없다. 제도는이론가의희망대로그성격을변경하는것이아니다. 그런고로, 우리는개인의최대한의완전한해방속에, 개인과집단과의일층광범한창의의발달속에, 동시에또한국가의직권의제한속에 - 그확대가아니라 - 진보를구한다.

우리가전진이라생각하는것은, 우선첫째로 16 세기이래사회를깎아뭇개고계속자기의직권을증대시켜온정부권력의배제로향하는운동이고둘째로는협약과일시적계약의요소의최대한의발달및특정의목적에따라발생하여각자의연합에의해서사회전체에번져있는다종다양한집단의독립성의일층광범위한발달로향하는운동이다. 이와동시에, 우리가생각하는사회구조는결코최종적형태를취하는일이없이부단히생명에넘쳐있고, 따라서순간마다의필요에따라그형태를변해가는것이아니면안된다.

이와같은진보관, 또는미래에대하여바람직한것 [만인의행복의충량을증대하는데이바지하는것] 에관한우리의관념은필연적으로투쟁을위한전술의형성으로이끌어간다. 그리고그전술이란모든집단에있어서, 또모든개인에있어서최대한의개인적이니셔티브를발달시키는데있고, 그럴적에행동의통일은목적의동일성에의하여, 그리고또모든이념이자유로표현되고진지하게토의되어그결과올바른것으로인정된때필시가지게될신념의힘에의하여달성될것이다.

이러한경향은아나키스트의모든전술위에, 또한그들이결성하는일체의서클의내적생활위에자기의각인을눌러찍는다.

우리는다음과같이주장한다. 즉정부의수중에중앙집권화하여, 그결과전능으로될국가자본주의가닥쳐오도록일한다는것은, 앞에서말한바

해야겠다. 영국에서는지방의귀족들 [그들은단지재판관에불과했고지주는결코아니었다] 이공유지를횡취하여그들의영유로귀속시킴으로써공유지를파괴했고지금도그렇게하고있다. 또한러시아에서는현재도역시니콜라이 2 세의정부의손으로농민의공동체에서토지를갈취하고있다. 이러한사실들을새삼재언할것도없으리라.

끝으로이집트, 톤킹, 트란스발과같은정복된나라는말할것도없고, 여태껏모든국가에는예외없이온갖종류의거대한독점을만들어내고있다. 매년각국의의회가새로운독점을철도, 전차, 가스, 수도, 전기, 학교, 기타만반의영역에서만들어내고있는데, 마르크스가과거의조건으로서말한본원적축적을새삼고집어낼필요도없을게다.

한마디로말하면, 일찍이한번도어느국가에도 1 년이라도, 아니한시간이라도‘자유방임’의체제는존재한적이없었던것이다. 항상국가는자본의지주이고지지자이고, 또한직접간접의창조자이기도했고, 금일도여전히그러하다. 따라서‘무간섭’의체제의존재를확인한다는것은대중의빈곤이자연의법칙이라고논증코자하는부르주아경제학자에대해서나허용될일이지사회주의자가노동자를보고이동일한문구를말할수는없는것이다. 착취에저항하는자유는여태껏일찍이한번도어디에도없었던것이다. 도처에서이자유를싸워서얻기위하여일보, 일보, 미증유의희생자로서싸움터를매우먼서투쟁하지않을수없었다. ‘무간섭’과그리고단순한‘무간섭’이상의것이 - 원조, 지지, 비호의손이, 항상착취자의이익만을위하여내밀어져왔던것이다.

그리고그와는달리있을수는없었던것이다.

앞에서말했듯이, 사회주의가역사속에어떤형태로나타나든지간에, 코뮌주의로접근하기위하여정치관계에있어서사회주의독자의형태를찾아내지않으면안될것이다. 사회주의가목은정치적형태를이용할수없음은그것이종교적계층제도와그교설을, 또한제정내지독재적통치형태와그이론을이용할수없음과꼭마찬가지다. 무슨방식으로든지사회주의는대의정치체제보다훨씬민중적으로되어고대로마식의포럼으로일층접근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은대의제에의존함이줄며적게되고자치제에좀더가까워지지않으면안될것이다. 1871 년에파리의프롤레타리아가괴한것도바로이것이였다. 1793?94 년에파리코뮌의각구를비롯해서기타의여러군소코뮌도또한이것을시도한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의정치생활을바라볼때, 거기에는도시및농촌의독립자주의코뮌이형성되어이것들이가지각색의술한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제각기특수하고특정한목적으로체결된연합적협약에의하여결합하는아주뚜렷한경향이싹트고있다. 이들의코뮌은전주민의수요를만족시키기위한필요물자의생산자로점점전화하는경향을띠고있다. 코뮌의경영으로운영되는전차외에도원거리에서몇개의도시의연합체에의하여부설되는수도가있고, 다시가스, 전등, 공장의동력도코뮌

떨어진적대적인또는무관심한부분을포함한전국토의사태전전에정신을쓰고있을때는한번도가져보지못했던힘을자기자신의코뮌속에발견할것이다. 혁명의발목에감겨불은무거운짐과같은이들의뒤떨어진분자를질질끌고건기보다는이들과공공연한일전을감행하는편이좋다.

뿐만이아니라우리는다음과같이본다. 만약자유? 독립의코뮌을지배하는중앙집권적정부가필요치않다면, 만약전국민적정부가타도되고국토의통일이코뮌의자유연합으로달성된다면, 마찬가지로중앙의시정市政도또한유해무익한것으로될것이라고. 개개의코뮌내부에서결정해야할사항은한국가전체에있어서보다훨씬간단한것이되고, 시민의이해관계도훨씬단순하고모순없는것으로될것이다. 따라서코뮌에있어서의생산자, 소비자, 기타각종그룹간에일치를보기위해서는연합주의의원리로죽할것이다.

파리코뮌은다시진정한혁명가들을괴롭힌어떤문제에도또한해답을주었다. 프랑스는두번에걸쳐사회혁명을실시하려고괴했다. - 더욱이두번다중앙정부를개재시켜서했던것이다. 즉 1793 년?94 년에는지롱드당원추방후‘사실상평등’을, 말하자면참된경제적평등을엄격한입법조치로써도입코자했다. 다음으로 1848 년에는헌법제정의회를통하여‘사회민주주의적공화국’을실현코자했다.

그리고그결과두번다프랑스는실패했다. 현대이제야생활자체가새로운해결책을제시한것이다. 자유코뮌이곧그것이다. 코뮌자신이자기의영역에서혁명을실행하지않으면안된다. 동시에그것은중앙집권적국가에서해방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이새로운이념은‘아나키’라는이상을강화하게되었다.

이때우리는푸르동의저작『19 세기에있어서의혁명의일반이념』속에깊이실천적이념이포함되어있는것을이해했다. 그것은다름아닌아나키의이념이었다. 라틴제국민들의진보적인사의사상은이런방향으로움직이기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그것은라틴제나라들의사이에서만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라틴계스위스및와론계주민의사이에서만이었다. 이에반하여독일은프랑스에대한승리에서이와는전혀다른결과를끌어냈다. 그들은국가의중앙집권주의에무릎을꿇고절하게되었다. 그들은여전히로베스피에르적단계속에파묻혀있어자코뱅주의자의역사가들이 [실정과는정반대로] 논술하고있듯이, 자코뱅글라브를숭배하고있었다.

견고하게집중한권력을갖추어여하한국민의독립에의경향에대해서도적의를갖고대하는국가, 관료진의견고한계층적중앙집권및강대한정부권력 - 독일의사회주의자와급진파가도달한것은이러한결론이었다. 프랑스에대한독일의승리는사실인즉 1870 년의프랑스가갖고있던모집병제도에대한독일의일반징병제도에의하여가능케된거대한군대의승리에지나지않았다는것, 그리고승리는혁명의위협을받고있던제 2 제정

의부패로말미암아언어진것임에지나지않다는것을그들은이해하려하지않았다. 미상불프랑스제정을위협하고있던혁명이독일의침략에의하여방해되지않았던것은전인류에이익을주는바를것이었다.

이리하여파리코뮌은라틴계제국에아나키즘이념의발달을촉진했다. 다른한편으로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권위주의적경향이점점강하게전인터내셔널을위협하게된결과, 이것도또한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적경향에박차를가하게되었다. 마르크스와엥겔스는파리코뮌이무너진후에런던으로망명한프랑스의블랑키스트들의도움을얻고총무위원회에부여한권력을이용했다. 총무위원회는협회의행동강령속에정해진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을부르주아의회에서의선동으로바꿔치기해버렸다.

이쿠데타는인터내셔널을죽이고말았다. 그러나그것은많은사람들로하여금눈을열게했다. 어떤맹신가라도자기자신의일을정부의손에위임하는결과가 - 가령그정부가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선입의경우처럼민주주의적원리에입각하여선출된정부라할지라도 - 그것이얼마나어리석은것으로되는가를깨닫게되었다. 그래서스페인, 이탈리아, 쥐라, 와론계벨기에및영국일부의각연합이자치론자들이총무위원회의권력에대항하여궤기했던것이다.

이제야미하일바쿠닌의모습속에인터내셔널에서발전하고있던아나키스트적경향은강력하고정열적인옹호자를발견하게되었다. 바쿠닌과쥐라연합의우인들의주위에서스위스와스페인의젊은이들로된작은서클이결집했고, 그들은바쿠닌의사상의폭넓은전개에기여했다.

바쿠닌은역사와철학상의광범한지식을중심으로구사하여힘찬일련의팸플릿, 논문, 서한속에근대아나키즘의제원리를확립했다.

그는대담하게국가를그전조직, 전이념, 전경향에걸쳐완전히배제한다고하는이념을천하에천명했다. 일찍이국가는역사적필연이었다. 그것은종교적카스트가장악한권위에서발전해나온제도였다. 그러나금일은국가의완벽한배제야말로역사적필연이되었다. 왜냐? 국가란자유와평등의부정否定에불과하고, 만인의이익에봉사해야할것을실현코자할때조차착수된모든것을망가뜨리고말기때문이다.

아무리작은규모의것이라할지라도모든국민, 모든지방, 모든코뮌은이웃에대한위협으로되지않는한, 하고싶은대로자기자신을조직함에있어서완전히자유가아니면안된다. 이른바‘연방’이니‘자치’니하는원리만으로는불충분하다. 이것들은단지중앙집권국가의권력을은폐하기위한말에불과하다. 코뮌의완전한독립, 자유코뮌의연합및코뮌내부의사회혁명즉현존사회의국가적조직에대체되어야할생산을위한협동조합적결합 - 이것이야말로바쿠닌이논한바와같이과거의암흑에서현대문명의면전에그모습을나타내고있는이상이다.

15. 행동의수단

아나키즘이그연구방법이란점에서나그근본원리한점에서나강단講壇과학뿐아니라사회민주주의의동배同輩와도큰차이를가지는만큼행동의수단에있어서도또한이들양자와다르지않으면안될것이다.

우리의법? 법률? 국가관에서보면국가에대한개인의점점증대하는종속속에진보의보증을찾아낼수도없겠거니와하물며사회혁명에로의접근을볼수도없는것이다. 근대자본주의의기원은‘생산의무질서상태’에, 즉이른바‘국가의무간섭의이론’에있고, 국가는‘자유방임’의정식을실시한것이다, 라는따위의천박하고피상적인사회평론가들의입버릇을우리가되풀이할수는없다. 왜냐하면그것은옳지않으니말이다. 정부는적빈赤貧상태로몰아세워진노동자들의노동력을사용하여이윤을추구할자유를자본가들에게제공한반면, 19 세기의과정의어디서도노동자들에게‘하고싶은대로할’자유를준일이없었다. 우리는이를잘알고있다. 따라서‘자유방임’의정식을일찍이한번도실제로적용되지않았던것이다. 어째서그렇지않다고하겠는가.

프랑스에서는저사나운‘혁명적’자코뱅의의회마저스트라이크에대하여, 조합에대하여, 사형을선고한것이다. 나폴레옹제국이나, 되살아난왕조나, 부르주아공화제하의사정에대해서는더말할필요도없다.

영국에서는 1813 년에스트라이크를한혐의로교수형에처하여지는형편이었는데, 1831 년에는노동자가대담하게도로버트오언의노동조합을만들려고한탓으로오스트레일리아로유형되었다. 60 년대가되어서도‘노동의자유옹호’라는주지의구실아래스트라이크참가자는강제노동에보내어지는형편이었다. 금일에와서도 1903 년에영국의어떤회사는, 노동조합이스트라이크에즈음하여노동자가공장에들어가취업하는것을그만두게했다는혐의로 [이른바피켓팅] 회사측에 127 만 5 천프랑의손해액의지불을명하는판결을했다. 리옹에서의아나키스트의소요와문소광산에서의노동자들의운동의결과겨우 1884 년에노동조합의설립이허가되도록된프랑스에대해서는불문가지다. 벨기에, 스위스 [아이로로에서의학살을상기해보라!], 더군다나독일과러시아에대해서도새삼부언할필요도없겠다.

다른한편으로국가가그조세에의하여, 또한그손으로만들어놓은독점에의하여, 얼마나도시와농촌의노동자를꼼짝달싹도못하게손발을 묶어공장주에게인도하고, 그들을빈궁의밑바닥으로밀어넣었던가를상기

하려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사도邪道이다. 하기는 19 세기의 30 년대, 40 년대, 심지어 50 년대까지도사회주의적, 시저주의적으로공상한술한몽상가들이있었다. 더욱이이전통은바부프의시기로부터금일까지계속되고있다. 허나 20 세기에들어와서아직까지도이와같은환상속에살고있다는것은사실너무도소박하다고하겠다.

경제조직의새로운형태에는정치조직의새로운형태가필연적으로따르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변혁이혁명을통하여급격히발생하거나, 아니면점차적진화에의하여완만히생기거나, 여하튼경제와정치의양면의변혁은서로손잡고병행하지않으면안된다. 경제적해방을향한일보, 일보, 즉자본에대한진정한승리의하나하나는다음에권력에대한승리 - 정치적해방을향한일보일것이다. 그것은당사자전원의지역적, 직업적및기능적인자유로운협정의방식으로되는국가의명으로부터풀려놓임이라하겠다.

개인은그의주위의만인이자유롭게되는한에서만자기도자유롭게될뿐이라고하는것을이제야이해하게되었다.

이와같은이념을품는한편바쿠닌은동시에사회혁명의열렬한선전자였다. 당시사회주의자의태반은사회혁명의박두를예견하고있었으나바쿠닌은바로이혁명을타오르는불과같은격렬한말로그서한이나저작에서주장했던것이다.

13. 아나키즘 (속)

현상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관념

1848 년의전야에, 또한그후인터내셔널에이르는기간에, 국가에대한반역이사회와그위선적도덕에대한개인의반역이란성격을띠고, 더욱이주로부르주아와젊은세대가운데나타났다고한다면, 이제야노동자들간에서의이반역은일층심각한성격을띠게되었다. 그것은금일국가가밀어주는압박과착취에서해방된새로운사회형태의탐구로변화하고있다.

인터내셔널도그것을창립한노동자들의자각에있어서는, 앞에서말한것처럼사회혁명에의하여갱신된사회가취해야할미래상의맹아를비취주는노동자의제집단의광범한연합이아니면아니되었다. 말하자면그미래의사회란금일의통치기구와자본주의적착취가자취를감추고생산자와소비자간에맺어지는새로운관계에자리를비켜주어야할것이였다.

이러한조건아래아나키스트의이상은개인적인것이기를그쳐야했다. 그것은사회적인이상으로된것이다.

양세계의노동자들이그들을갈라놓는국경에상관없이직접관계를맺고서로상대편을잘알게됨에따라그들은사회문제를훨씬잘연구, 해명하게되고자기네의힘에대하여일층자신을갖게되어갔다.

그들은다음과같이내다보았다. 즉, 가령민중이토지를소유하게되고공업노동자가공장이나작업장을소유하여자신들의손으로산업을관리하고국민생활의필수품의생산에그것을활용하게된다면사회기의본적필요를빠짐없이광범하게공급하기가용이할것이다. 최근의과학과기술의진보는그성공을보증한다. 그럴때제국민의생산자는바른기초위에서국제적교환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작업장과공장, 광산, 농업, 상업을잘아는사람에게이것은아무런문없이아주명료하다.

동시에국가가그관료적계층제도와역사적전통의중압과함께독점이나착취로부터해방된자유로운새사회로의도래를방해하지않을수없다는사정을깨달은노동자의수는점점불어날뿐이다.

역사상국가는토지의사유권을한계급을위하여확립하고, 그독점권을유지시킴으로써발달해왔으며, 이리하여누구보다도지주계급은지배계급으로되었던것이다. 따라서노동자들자신이자기자신의손으로자기네의결합가운데서이독점을타파하는수단을찾지않고서어찌하여이러

면그것은어떤저술가의논설에대한또는설說하려고한것에대한, 비산친식주해註解에의하여할수도없으려니와헤겔의 3 부작을원용함에의해서도, 하물며저변증법적방법에호소하는방식에의해서도하지 못하는것이다.

그것은다만자연과학의제사실을연구하는그런방식으로경제관계의연구에착수함에의해서만가능한것이다.

아나키즘은언제나이동일한방법에의하여사회의정치형태특히국가에관한아나키즘독특한결론에도달한다. 아나키스트는다음과같은종류의형이상학적명제에굴복할수없다. ‘국가란사회에있어서의최고의정의는관념의확증이라’느니, ‘국가는진보의도구이고그담당자라’느니, ‘국가없이는사회가없다’는따위의주장말이다. 아나키스트는자기의방법론에충실히따라, 흡사히자연과학자가개미나벌이나북극의호반에집을지으려고날아오는새들의사회를연구하는것과똑같은태도로국가의연구에대처한다. 우리는이미 10 장과 12 장에서된짧은요약과거의정치형태및미래의있을수있는, 그리고바람직한진보에관한연구성과를말했다.

부연하면우리들의유럽문명 [우리가속하고있는과거 15 세기간의문명] 에있어서국가는 16 세기에이르러발생한사회생활형태에불과한것으로그것은일련의원인의영향아래생긴것이다. 이에대하여는줄져『국가와그역사적역할』 에서언급되고있다. 이시기이전에는로마제국의붕괴이후국가는 - 로마적형태로는 - 존재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에국가가역사의교과서가운데존재한다면, 그것은역사가들의상상의산물에지나지않고이들의역사가는프랑스왕조의계보를메로빙거의수장首長에까지, 러시아의그것을류리크까지소급시키려하고있는것이다. 참역사의빛에비춰보면근대국가는중세제도시의폐허위에구축되었을뿐이다.

다른한편으로정치? 군사적권력으로서의국가및근대정부의사법과교회및자본주의는서로분리할수없는제제도라는것이밝혀진다. 역사상이들네개의제도는상호보강하면서발달해왔다.

그것들은단순한우연의일치로서가아니라서로굳게결합되어있다. 그것들사이에는인과의연결이있다.

국가란요컨대인민에대한지배권력과빈민의착취를각자가보장하기위하여지주, 군부, 재판관및목사간에맺어진상호보협회사와같은것이였다.

이것이바로국가의기원이고그역사다. 그리고금일에와서는그본질을이룬다.

국가를유지시켜그원조를받아가지고동시에자본주의를배제할것을꿈꾼다는것은, 국가란것이본래자본주의의발달을조장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이건언제나자본주의와더불어성장하고강화되어온이상, 그것은우리의생각으로는노동자의해방을교회나시저주의의도움을얻어성취

조건이개개의경우, 어떻게작용하는가에대해서도, 이들의조건을버티어주고있는것이무엇이나에대해서도검토하지않았다. 설사이들의조건이어디에선가언급된경우에도공장잊혀버리고말았다.

경제학자는그러나이러한조건을깨끗이잊어버릴뿐만아니었다. 그들은이들의조건결과로서유래하는제사실을숙명적으로확고부동한법칙으로서제시했던것이다.

사회주의의경제학에관해서말하면, 그야물론이들의결론을약간비판하고혹은다른방식으로약간의결론을해석한다. 그러나사회주의경제학도또한예에빠지지않고앞에서말한조건을망각하고항상자기자신의길을계속건지않았다. 그것도역시전철을밟아구태의연한상태에있었다. 사회주의경제학이 [마르크스에있어서] 달성한최대의성과도요컨대형이상학적부르주아적경제학의제정의定義를섭취하여이렇게말할뿐이었다.

“보라, 제군의정의를받아들여도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고있다는것을역시인정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라고. 이와같은얘기라면팜플릿같은데서는기분 좋게들리겠지만과학으로되기에는거리가멀다.

일반으로학學으로서의경제학은이와는다른방식으로구성되지않으면안될것으로본다. 그것은자연과학으로서다루어져새로운목적올제기하지않으면안된다. 생리학이동식물에대하여차지하는것과비슷한지위를경제학은인간사회에대하여접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은사회생리학이되지않으면안된다. 목적으로서제기하지않으면안될것은사회의부단히성장하는수요와그것을충족하기위하여쓰이는각종수단의연구가아니면안된다. 그리고이들의수단을분석하여그것이어느정도로과거및현재에이목적에적합한것인지를검토하지않으면안된다. 끝으로 [베콘이오래전에지적한것처럼] 모든과학의최종목적은예보와실제생활에의적용에있는이상, 경제학도금일의모든수요를가장잘충족시키는수단, 말하자면최소의에너지소비 [경제] 에의하여인류일반에대한최선의결과를얻을수단을연구하지않으면안된다.

이리하여다음의것이명백할것이다. 즉우리는부르주아경제학및사회민주주의의입장에서있는경제학자들의대부분의결론과는몇가지점에서아주다른결론에도달하고있다는것, 우리는그들에의하여지적된몇가지상관관계를‘법칙’이라고는인정하지않는다는것, 우리의사회주의론은그네들의그것과다르다는것, 우리가현실의경제생활가운데관찰하는발전경향의연구에서도출한결론은원망願望과가능성에관하는그들의결론과크게차이를가진다는것, 바꿔말하면그들도달하는귀결이국가자본주의및집산주의적임금노동제임에반하여우리의그것은자유공동주의라는것등이다.

우리가잘못이고그들편이옳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럴는지도모르는것이다. 그렇지만우리들중에서누가옳고누가그릇되었나를검토코자하

한수단을국가가제공할수있다고하겠는가. 19 세기의과정에서는국가는공업소유권, 상업, 은행을부유한계급의수중에독점시키고농촌의공동체에서토지를수탈하여농민을중세로억누르고이들의부유계급을위하여값싼노동력을제공함으로써강대화한것이다. 이특권을배제하기위하여국가는과연여하한편의를제공할수있겠는가. 국가의통치기구는다들의특권을창조하고유지할목적으로발달해왔는데도대체다름아닌이들의특권을배제하는역할을그것이맡을수있겠느냐말이다. 이새로운기능은그것에알맞은새로운기관을과연필요로하지않겠느냐말이다. 이새로운기관은이제야노동자자신에의하여국가와는아무상관없이노동자자신의조합, 노동자자신의연합속에서만들어내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닐까.

국가에의하여출생하고강화되어온특권이소실할때국가도또한그존재이유를상실할것이다. 일단인간관계가착취자대피착취자의관계이기를그친다면, 전혀새로운사회집단형태가생길것이다. 부자가빈자의노동을착취함에의하여일층부유하게되게끔짜여있는현존기구가무용화하자마자생활은단순화할것이다.

지역적결합을위한독립한코뮌및사회적기능별로결합한노동조합의광범한연합 - 그럴적에양자는서로연결하여사회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지주를제공한것임 - 이라는이념은아나키스트가해방된미래사회의있을법한조직을구체적현실적인방식으로구상하는단서로되었다. 다시그위에코뮌및노동조합과병립하여개인적관계로맺어지는집단 - 이를테면은갖종류의목적올충족시킬필요에서생기는무한히다양한일시적또는장기적으로존속하는무수한집합체가여기에첨가될것이다. 이런종류의결사는이미현금의사회에서도정치적또는직업적집단과별도로술하게생기고있는것이다.

이들세종류의결사는그물눈처럼서로엮혀서가지각색의사회적요구를 - 소비, 생산, 분배, 교통, 위생조치, 교육, 침략에대한상호방어, 상호부조, 지역방위, 나아가서는또과학상, 예술상, 문학상의요구와오락의요구등등모든것을충족시킬것이다. 이들은모두활기에차서사회적, 지적환경의새로운요구와새로운영향에응답하면서재빨리에적응할수있을것이다.

가령이와같은사회가다양한기호와요구가발전할수있을만큼충분히광범위하게다수의주민을가진지역에자라나발달한다면, 여하한권위주의적강제도벌써무용지물에불과하다는것은머지않아만인의눈에명백하게될것이다. 권력에의한이러한강제는사회의경제생활을유지하는데무용지물일뿐더러대부분의반사회적행위를저지하는데도쓸모가없을것이다.

실제로현금의국가에서사회생활에필요불가결한도덕적수준을향상, 유지하는데가장큰장애물이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도사회적평등의

결여이다. 평등없이 1793 년에표현된말로하면‘사실상의평등’없이 - 정의의감정의일반화는절대로불가능하다. 정의는평등주의적인것이아니면안된다. 현대우리들의계급사회에서는평등의감정이한결음마다, 한순간마다패배를맞고있는것이다. 만인에대한정의의감정이사회의풍속습관에침투하려면평등이실제로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정의가가능케되는것은평등자의사회에서뿐이다.

이렇게되었을때강제의필요, 좀더정확히말해서강제력에호소하려는욕구는벌써발생하지않을것이다. 금일행하여지고있는것처럼법률상의또는신비적인형벌의공포에의하여, 혹은우월자로인정된인간에대한복종에의하여혹은포공포심내지무지로말미암아창조된형이상학적존재에대한궤배에의하여개인의자유를제한할필요가벌써전혀없다는것을만인이똑똑히알게될것이다. 현대현금의사회에서는앞에서말한모든것은지적예종隸從으로, 개인적창의의억압으로, 도덕적수준의저하로, 또한진보의정체停滯로이끌고있는것이다.

평등주의의환경에서는인간이안심하고자자기자신의이성에지침을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그이성은이러한환경에서발달하는까닭에필연적으로주위의사회적습관의각인刻印을떨것이다. 인간은자기의전능력의완전한발달을 - 개성의충분하고완전한발달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와반대로금일부르주아가‘우수한천분天分을지닌자’에대하여인간성의완전한발전을달성하는수단을제공한다고떠들고있는개인주의란것은자기기만自己欺瞞이외의아무것도아니다. 뿐만아니라그들이찬양하는이개인주의란것은독특한개성의발달을저해하는것이다.

허구한나날을개인적이윤의추구에지새우며, 그결과전반적빈곤으로전락해있는사회에서는, 가장유능한사람도자기의생존을지탱하기에필요한제수단을획득하기위하여격렬한경쟁에종사하지않으면안된다. 개성의자유로운발달에필요한일정한여가를간신히얻게된극소수의사람들은어떠냐하면, 이여가를이용함에있어그들은현금사회에의하여다음과같은하나의조건이부과되고있는것이다. 즉부르주아적범속성凡俗性的의법과관례와의속박에복종할것, 그리고너무지나치게신랄한비판또는반역의행위에의하여이범속성의왕국을동요시키지않을것, 이것이그조건이다.

‘개인의충분하고완전한발달’이허락되는것은부르주아사회에아무런위협을안주는인간, 말하자면부르주아사회에대하여흥미있는인물이기는하나위험하지않은인물뿐이다.

전술한바와같이아나키스트는관찰의결과로얻어진논거에기하여미래에관한예견을한다.

사실우리가 18 세기말이후교육받은계층간에지배해온사조를분석할때부르주아간에도, 부르주아적교육을받고자기자신도부르주아에한축들기를바라고있는노동자들간에도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경향이극

품의가치를연구한후] 즉시이렇게부언하지않으면아니되었다. 즉원시적교환제도아래서는그러했다할지라도자본주의제도아래서는벌써그렇지않게되었다고. 이는완전히옳다. 강제노동과이윤추구의교환이란자본주의제도는이와같이단순한관계를파괴하여노동과교환가치사이의관계를변경시키는여러가지새로운원인을도입했다. 이것을무시하는것은경제학에종사하는일이못된다. 그것은관념을혼란시켜경제학의발달을방해하는일에지나지않는다.

가치에관하여앞에서지적한바는거의모든경제학적명제에도들어맞을것이다. 이들의명제는, 금일에는확고부동한진리로서 - 특히과학적사회주의자라고줄여져처하는사회주의자들간에 - 받아들여져, 애깃거리도안될만큼나이트 (소박) 하게자연법칙으로서제시되고있다. 현대이들의소위법칙의대부분이옳지못한것일뿐더러이들의법칙을확신하고있는사람들마저만약에그들의수량적명제를마찬가지로수량적연구에의하여검증할필요가있다는것을깨닫게만된다면곧이들의법칙이그릇된것임을스스로납득하리라고우리는주장한다.

그런데우리들이아나키스트에대하여경제학은, 경제학자들 - 부르주아진영에속하건사회민주주의의입장에서있건 -에의하여제시되고있는것과는약간다른형태로생각되어지고있다. 본래과학적, 귀납적방법은이들양쪽경제학자의관여하는바아니므로그들은‘자연법칙’이란표현을함부로쓰고싶어하지만, 그것지도대체어떠한의미의것인가에대해서는전혀알지못한다. 무릇자연법칙은조건부란성격을띠고있다는것을그들은알지못한다. 자연법칙은항상다음과같은형식으로표현되는것이다.

‘만약에이러이러한조건이자연속에발견된다면, 결과는이러이러한것으로나타날것이다. 만약에교차하는점의양면에등각等角을짓게끔한직선이다른직선과엇갈린다면, 그결과는이러이러한것으로될것이다. 만약에성좌星座간에우주공간에존재하는운동만이두개의물체에작용하고그리고무한이아닌거리에서이들의두개물체에작용하는다른물체가없다면, 이들두개물체의중심重心은이러이러한속도로서로접근할것이다 [이것이만유인력의법칙이다].

이러한식이다. 항상여기에‘만약에’가달려있다. 어떤조건이붙어있다.

결국경제학의이른바법칙이나이론이란것은실제로는다음과같은성격을가진명제에불과하다. 즉‘만약에어떤나라에국가가 [조세의형식으로] 강요하려는조건, 그리고국가가토지, 공장, 철도등의소유자로인정하는사람들에의하여제공되는노동조건을받아들이지않고서는 1 개월도, 아니반개월조차도살아갈수없는다수의인간이항상있다고한다면, 그결과는이러이러한것으로되리라’.

지금까지에는언제나경제학은이와같은조건아래일어나는일의열거로끝났지조건그것을열거하거나분석하는일은없었다. 경제학은이들의

나그결과로서이들두개의양은정비례하여한편은다른편의척도라고단정하는것은큰잘못이다. 그것은비유하면명일의강우량은청우계晴雨計가일정한계절에특정의장소에서설정된평균점이하로몇밀리내려갔는가, 그양에비례한다고주장하는것과꼭마찬가지로큰잘못이다.

청우계의강하와강우량과의사이에일정한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최초에주목한사람, 그리고매우높은곳에서떨어지는돌은겨우 1 미터의높이에서떨어지는돌보다훨씬큰속력을얻는다는것을처음인정한사람은과학적발견을한사람이다 [아담스미스는이것과같은일을가치에관하여행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발견자의뒤에나타나강우량은청우계가평균점에서내려간저울눈의양에따라계량된다는니, 낙하하는돌이통과하는공간은낙하의시간에비례하고그것에의하여계량된다는니주장하는사람은어리석은말을지껄이고있을뿐이다. 뿐더러이런사람은과학적탐구의방법이무엇인지를전혀이해하지못하는사람이고, 그런사람의저작은과학적인것이아님을 - 비록그책이과학적은어隱語에서빌려온용어로장식되어있다할지라도 - 증명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또, 상품의가치와그생산에필요한노동의양을정밀한척도로확정하는데는정확한데이터가결여되어있다는핑계를한다면, 그것은근거없는구실이라는것을지적하고싶다. 자연과학에서는두개의양이상호의존하여한편이불어나면다른편도불어난다고하는이와같은허다한상관관계의사례가있다. 예컨대식물의성장속도는무엇보다도그식물이받는열과광의양에의존한다. 또한총포의반동은탄약통의화약의양을증가하면증대한다.

그러나무릇학자라이를만한학자라면 - 양자의양적관계를계량함이없이 - 이상의결과로서식물발육의속도와그것이받는열량, 그리고총포의반동과탄약통彈藥筒의화약량은정비례한다고하는기묘하기짝이없는사상을주장하겠는가. 만약에한편이 2 배, 3 배, 10 배로증가한다면다른편도같은비율로증대하지않으면안된다고, 바꿔말하면가치와노동량에관하여리카도가이후주장되고있는바와같이, 양자는한편이다른편에의하여계량된다고논하는그런과학자가있겠는가.

이러한종류의관계가두개의양量사이에존재한다고하는가설을, 즉가정을만들어놓고서대담무쌍하게도가설을법칙이라고제시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다. 이러한단정을서슴지않고하는것은오직경제학자나법학자들즉자연과학에서‘법칙’이란말이무엇을의미하는지일편의지식도안가진사람들뿐이다.

일반적으로두개의양사이의관계는극히복잡한것이니, 이는가치와노동과의관계에대해서도타당하다. 교환가치와노동량은서로정비례하는것은아니다. 말하자면한편이다른편에의하여계량되는것은결단코아니다. 그리고이것을지적한것은아담스미스였다. 그는각물품의교환가치가그것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량에의하여계량된다고말한뒤에 [상

히강력하다는것을승인하지않으면안된다. 이와반대로반권위주의적, 반중앙집권적, 반군국주의및자유합의의이념은노동자간에도, 또한홀륭한교양을갖고다소라도자유로운정신을가진부르주아적지식인간에도많은지지자를얻고있다.

사실다른저작 [『빵의정복이』 나 『상호부조론』] 에서지적한것처럼, 금일에는국가와교회에테두리밖에서온갖종류 - 경제 [철도회사, 노동조합, 기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정치, 학술, 예술, 교육, 오락, 선전등 -의요구를충족시킬목적으로기천, 기만의결사를자유로구성하려고하는강한경향이있다. 기왕에는의심할바없이국가와교회와의무엇던것이금일은자유로운제조조직의활동부문으로되고있다. 이경향은점점현저한것으로되어가고있다. 자유로운제조조직이몇천개씩등장하기위해서는자유입김이교회와국가의탐욕스런권력욕을슬죽이는것으로써충분하다. 자유에대한두개의노회老獪한적인교회와국가의권력이더욱제한되는날이면자유로운조직은보다광범하게그활동영역을확대할것이다.

미래와진보는이방향에있다. 그리고아나키는바로이양자를표현하고있는것이다.

국가의부정

아나키스트의경제관에는경제학이여태껏방황하고있던혼돈상태의영향이꼬리를물고있는것을인정하지않으면안된다. 국가사회주의자간에도그렇지만아나키스트간에도이문제를둘러싸고다양한견해의대립이있다.

사회주의자의테두리안에머물고있는모든사회주의적당파와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도현존토지사유제도및생산수단의사유제도는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동시에그결과이기도한금일의생산구조와함께, 악惡이라고보고있다. 그들은또현대사회가고대의제문명과같이붕괴하지않기를바란다면이러한제도를배제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한다.

그렇지만이변혁을달성하는수단에관해서는아나키스트는국가사회주의의모든당파와완전히소매를나누고있다. 말하자면아나키스트는생산물을, 적어도그주요부분을국가의수중에거두어들이는국가자본주의가지고있는사회문제의해결이가능하다고보지않는다. 의회에의하여임명된대신들의지휘아래현금국가의손에다우편이나철도를넘겨주어운영케하는것은우리가품은이상은아니다. 우리의견지에서말한다면그것은새로운형식의임금노예제이고새로운형식의착취일따름이다. 우리는이것이임금노예제와착취의폐지로향하는길이라고믿지않으며이목표에이르는하나의과도적형태라고믿지도않는다.

자본에의한노동의착취를폐지한다고하는참되고넓은의미에서사회주의를이해하는한, 아나키스트는이러한사회주의와손잡고나왔다. 양자가다같이사회혁명을예상하고그도래를대망했다. 다만사회혁명의결과등장해야할사회의원권위주의적형태에대하여양자의견을달리했을뿐이다.

그렇지만국가사회주의자의대부분이라고까지말할수는없으나그유력한한당파가자본주의의착취를폐지할필요는전혀없고우리의세대에대한, 그리고또금일우리가경과하고있는경제발달의단계에대한문제는착취를완화하는데있을뿐이고, 이를위해서는자본가에대하여약간의법적규제를강제하는것으로족하다고하는사상에물들때, 아나키스트는단연코그들과결별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이러한사상에아나키스트는동의할수없었다. 우리는다음과같이주장하는자이다. 즉자본주의적착취의폐지를미래에바란다면, 우리는금일부터전력을기울여근대제에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고. 우리는벌써금일생산에필요한모든것 - 광산, 공장, 교통수단, 무엇보다도생산자의생존제수단 -을자본가의손에서생산자의집단의수중으로직접넘겨오도록힘쓰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나아가서또우리는생존수단을현금의부르주아국가의수중에넘겨주는일이없도록유의하지않으면안된다. 전유럽의사회주의제정당은금일있는그대로의부르주아국가에의한철도, 염료생산, 철광및석탄광, [스위스에서는] 은행, 알콜전매의국유화를요구하고있다. 현대우리는부르주아국가에의한이러한공동재산의취득에서는근로자, 생산자및소비자의수중으로나라의부가인도되는것을방해하는최대의장애물의하나를발견하는것이다.

우리가보는바로는그것은자본가를강화하여반항하는노동자에대한투쟁에있어서자본가의힘을키워주는수단인것이다. 자본가증에서도현명한인사는이일을잘간파하고있다. 이를테면그들의철도자본은철도가일단국유재산으로되어국가의손에군대식으로운영되면훨씬안전한것으로된다는것이다. 사회현상을그충체에있어서전망하는데익숙한사람들에게는다음점에관하여 의심할여지가없을것이다. 이것은사회적공리로서다음과같이표현된다. ‘바람직한방향으로한걸음내딛지않고서사회변혁을준비할수는없다. 이방향으로걸어가지않는다면목적지로부터멀어질뿐이다’라고.

그리고실제로, 만약생산과교환을의회, 각료, 현금의관료들의손에넘겨주는데서착수한다면, 그것은생산자와소비자가 스스로생산의주인이되는시점에서떨어져나감을의미할것이다. 국가가대자본의종자從者인이상, 금일이들의무리는당연히대자본의도구다.

새로운독점을, 더욱이틀에박히듯이구독점자의이익이되도록신설하면서과거에성립한독점을파괴한다는것도대체될법한말인가.

생각하는사람만이‘남이너에게하여지고싶지않은것을너도남에게해서안된다’는규칙에따를수있겠기때문이다. 농노소유자나노예상인들이‘보편법칙’이나‘정언명령’을농노나흑인에대하여승인할수없었음은명백하다. 왜냐하면그들은농노나흑인을평등자라고인정안했기때문이다. 가령우리의의말이옳다면불평등의관념이주입되어있는곳에도덕성을가르쳐준다는것은어리석은것이아닐지검토해보지않으려는가.

끝으로우리도퀴이요처럼‘자기희생’이란무엇인가분석해보자.

그런뒤에인간의도덕적감정 - 예컨대이웃사람에대한평등사상에표현된감정이발달하는데역사상가장많이 기여한것인무엇인지검토해보자. 이제가지연구를하고나서야비로소어떠한사회조건과어떠한사회제도가미래에대하여최선의결과를약속하는가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그때우리는종교가법률에의하여수립된경제? 정치적불평등이, 나아가서도법률, 형벌, 감옥, 재판관, 옥리獄吏, 사형집행인이도덕감정의발달에얼마만큼기여하는것인가를이해할것이다.

이모두를하나하나씩상세히연구하자. 그래서야비로소우리는도덕에대하여, 그리고법률, 재판, 경찰관의도덕적감화에대하여유효하게이야기할수있을것이다. 어중간한지식의천박하고피상적임을은폐하는데소용이있을뿐인거창한말들은쓰지않는편이좋겠다. 이들의과대한망언도어떤특정의시기에는불가피했을는지모르겠다. 그것이일찍이유익했던지어떤지는의문이지만, 그러나금일은우리가정원사나식물학자가식물의생성에가장적합한조건을연구하는것과꼭같은방식으로현대의가장중요한사회문제의연구에착수할수있는정세에있으니그와같이해보지않으려는가.

경제학상의문제에대해서도같은것을말할수있다. 이를테면“완전히 개방된시장에있어서는상품의가치는그생산에대하여사회적으로필요한노동량에의하여계산된다”[리카도, 푸르동, 마르크스기타참조] 고경제학자가말할때도이주장이이러한권위자들에의하여말해졌으니까라든지, 그렇지않으면노동이상품의가치를계산하는참된척도이다라고주장하면‘아주사회주의적’으로들리니까라든지, 하는이유로이주장을우리가신조로받아들이는것은아니다. 우리는다음과같이말한다.

“이명제가올바를수도있다. 그러나제군이그렇게언명함의의하여제군은가치와노동량이필연적으로비례하는것이고그것은꼭낙하하는물체의가도價度와낙하의계속하는초수秒數가비례하는것과완전히같다고주장하고있는데생각이미치지않는가. 이와같이하여제군은이두가지크기사이에서특정한양적관계가있음을인정하고있다. 그렇다면제군은양에관한단정을확인할수있는단한가지길인계량을, 다시말하면양적으로계산된관찰을하고있단말인가.”

“일반적으로말해서교환가치는필요노동의양이증대할때에증대한다”고제군도말할수있겠다. 이렇게아담스미스도이미결론했었다. 그러

어느시대나사태는이렇게진행해왔고, 그리하여현대에이르고있다. 같은사정은금일의소위노동입법에대해서도말하여진다. 이입법은‘노동자의보호’를공인된목적으로구가하면서실상은연중에스트라이크가 일어날때국가에의한강제적중재 [강제적중재란 - 이무슨모순이라] 란 관념을집어넣고, 혹은일일최저몇시간이라는식으로강제노동시간의원칙을삽입한다. 이리하여스트라이크에있어서철도의군대식착취의길이 열리고또는이전의법률에의하여토지를빼앗긴아일랜드의농민의소유권상실에법적인가를부여한다. 혹은또질병이나노령보험이나실업보험의제도마저도도입되나, 이것으로써국가는노동자의매일每日을통제할 권리와의를무손에넣어국가와관료의인가없이노동자가제대로휴가를할수조차없게끔할권리를확보한다.

그리고이런사태는사회의일부가사회전체에대신하여법률을제정하는한, 금후도계속될것이다. 이러한방식으로그들은자본주의의주요한지주인국가권력을항상증대시켜간다. 일반적으로법률이만들어지고있는동안은이사정이변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니만큼고드윈이라이나키스트는일체의성문법을부인하는데일관했다. 하지만아나키스트는누구나어느입법자보다도몇갑절이나정의를간절히바라고있다. 아나키스트에게정의란평등과같은고평등없이정의는불가능하다고보는것이다.

다음과같은반론이우리들앞에제출될것이다. 즉법률을부인함으로써우리는일체의도덕을또한부인하게된다. 칸트의이른바‘정언적定言的명령’을우리가인정안하기때문이라고. 이에대하여우리는이러한반대론의어법자체가우리의이해理解를초월한것이며, 우리에게는전혀인연이없는것이라고대답하겠다. 그것은도덕성을연구하는자연과학자가그것을불가능하고기이한것으로느끼는것과마찬가지다. 따라서전쟁에들어가기전에우리는상대방에게다음과같은물음을제기할것이다. ‘이정언명령이란말로당신은도대체무엇을의미하려하는가. 당신은자기의주장을남이알아들을수있는말로번역할수없는가. 이를테면라프라스가고등수학의공식을만인에게알려지는말로표현하는방법을발견했던것처럼. 대학자란사람들은다그렇게했던것이다. 어째서당신도그렇게하지않는가’라고.

실제로‘보편법칙’인‘정언명령’이니말할때, 그것은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그의미는‘남이너에게대하여하여지고싶지않은것을너도남에게해서는안된다’고하는관념이만인에게있다고하는것인가. 그렇다면대단히좋다. 우리도 [허치슨이나아담스미스가한것처럼] 어디로부터이도덕적관념이인간에게생겼는지, 어떻게해서그것이발달해왔는지연구하자.

다음으로정의의관념이얼마나평등의관념을함축하고있는지연구하자. 이것은극히중요한문제다. 왜그런고하니, 타인을자기와평등한자로

교회와국가는, 특권계급이대두하여자기의지위를확립하기시작할때, 일체의특권과잔여의민중에대한권리와의회법적소지자가되고자의거하는정치권력에지나지않다. 이것을잊어서는안된다. 국가란이들의특권을누리기위한지배자상호간의보증을확립하는제도인것이다. 국가는농민과노동자에대한특권계급의지배를강화할목적으로몇세기에걸쳐정비되어만들어내어진것이다. 그결과이제교회도국가도이들의특권을제거하는데유용한힘이될수는없다. 하물며이들의특권이제거된때에등장해야할사회조직의형태는더욱될수가없다. 역사는우리에게가르치고있다. 국민생활속에매양새로운경제형태가나타날때마다 - 이를테면노예제가농노제로, 농노제가임금노예제로교체할때마다 - 새로운정치적결합의형태가나오지않으면아니되었다는것을.

교회가인간을옛적의미신의속박에서해방되기위하여, 또한인간에게자유로바다들여진새로운윤리를제공하기위하여일찍이한번도이용된예가없듯이, 또일체의인간의평등, 연대성, 통일의감정이, 입을벌리기만하면모든종교가가이구동성으로설교함에도불구하고교회에의하여주어진것과는전혀다른형식을취하고서야비로소인류간에널리전파되었듯이, 이와똑같이경제적해방이성립하는것도국가속에표현된낯은정치적형태가분쇄될때가아니고서는가망이없다. 금일국가가그관료간에분배하고있는사회적기능을대신수행할새로운조직형태를인간은찾아낼필요가있겠다. 이것이되지않는한아무일도할수없으리라. 아나키즘이노력하는것은이러한새로운사회생활형태가꽃피어나오도록하기위해서이다. 그리고이개화는근대적지식의도움을얻고민중의창조력이발휘되어, 위대한해방운동이성취된과거의어느시점에나항상그랬듯이금후도또한기필코달성되리라보고본다.

그러니만큼아나키스트는입법자의역할도, 다른일체의국가적활동도거부한다. 우리는법률에의하여사회혁명을발생시킬수없음을알고있다. 왜냐하면법률은비록그것이헌법제정의회에의하여길거리의대중적압력아래채택되는것이라할지라도 [그렇지않고서는어떻게가결될수있을것인가, 의회에서는다종다양하게대립하는제이해를화해시키지않으면안되는것이고보니], 또한그것이이미채택된뒤의것이라하더라도, 요컨대일정한방향으로행동할것의승낙에불과한즉, 민중속에위치한활동가들이그에너지, 그창의, 그조직적? 건설적재능을마음껏행사하도록부르는초대장에그치는것이다. 그런데그러기위해서는법률의정식定式과원망願望을현실생활의사실로전환시키는능력을가지고또한그용의가있는힘들이거기에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이와같은이유에서다수의아나키스트들은인터내셔널의출현이래금일에이르기까지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의목적으로산출된노동자의제조적에적극적으로참가해왔다. 이투쟁은일체의간접적행동보다도훨씬노동자의생활을얼마만큼이라도개선하는역할을해왔다. 그것은또

자본주의 기구와 그것을 지지하는 국가가 사회에 초래하는 해악에 대하여 노동자의 눈을 열어주었고 동시에 자본가와 국가의 개재를 허락하지 않고 서관계상 상호간의 소비, 생산, 직접적 교환을 어떤 식으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사고를 일깨워 주었다.

자본과 국가의 간섭에서 해방된 사회에서의 노동 생산물의 분배 형식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나키스트의 견해는 분열해 있다.

가령 국가가 금일에 이미 철도, 우편, 교육, 상호보험, 국토방위를 그 수중에 넣고 있는 것과 같이 생산과 교환 수단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면, 그때 출현할 새로운 형태의 임금제도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모든 아나키스트가 일치한다. 이미 국가가 장악한 힘 [조세, 영토방위, 국교회國教會 등]에 다 이러한 새로운 힘, 즉 산업의 힘까지 첨가한다면 거기서 나올 것은 압제의 새로운 무서운 도구일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 아나키스트의 대부분은 아나르코코뮤니즘의 해결책에 결집하고 있다. 문명사회에서 가능한 코뮌주의의 형태는 단 하나 아나르코코뮌주의의 형태라는 견해가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코뮌주의는 본질적으로 평등주의이고, 더욱이 일체의 특권의 부정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무지배 사회가 가능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만민에 대하여 공동으로 생산된 최소한의 생활물자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코뮌주의와 아나키즘은 필연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두 개의 이념이다.

그러나 코뮤니즘이란 큰 조류와 나란히 아나키즘 속에 개인주의의 복권 復權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조류도 여전히 존재한다. 끝으로 이 조류에 대하여 약간 부연하겠다.

개인주의적 조류

아나키즘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경향이란 지난 간시대의 유물처럼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왕에는 생산방법이 금일과 학과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그러한 능력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그런 시대에 코뮌주의라 하면 일반적인 공핍 및 속화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60년 전에는 미상불사 소한 여유도, 약간의 여가도,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극소수의 인간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소수의 특권자에 속하지 못하게 될 날을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내다보았다. 당시 푸르동은 프랑스의 전 생산을 1인당 1일 5스으라고 계산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금일은 벌써 이 장애는 없어졌다. 농업에서도 공업에서도 인간 노동력의 거대한 생산성이 달성된 결과 [줄저 『전원, 공장, 작업장』 참

14. 아나키즘의 약간의 결론

아나키즘의 기원과 그 원리를 서술한 후, 이번에는 우리의 이념이 현대의 과학과 사회 운동 가운데서 차지하는 지위를 좀더 정확히 결정하는 두서너분 보기를 제시하겠다.

예컨대 사람들이 대문자를 쓴 법에 관하여 ‘법이란 진리의 객체화이다’라느니, ‘법의 발전 법칙은 인간 정신의 발전 법칙이다’라느니, 혹은 또 ‘법과 도덕은 동일하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라고 언명할 때, 우리는 이런 따위의 듣기 좋은 문구에 대하여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랬듯이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린다. 이와 같은 문구를 써놓은 사람들은 그것을 심원한 진리라고 확신하고 이러한 사상에 생각이 미치기까지 많은 정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은 사도 邪道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문구가 표현하는 것은 아주 황당무계한 기초 위에 구성된 무자각적인 일반화의 시도에 불과할 뿐 더러 사람들을 최면술에 걸려 고명 문구로 흐려놓은 일반화에 불과하다.

기왕에는 법률에 대신 적神의 기원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직물 織物의 진화나 벌이 꿀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관념의 기원과 그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학자들의 노작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미개인에게서 시작하여 사회적 습속과 법관념을 연구하고 역사상의 각 시대의 법전을 통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법률의 점차적 발달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 나온 한 장에서 말한 결론에도 도달한다. 즉 일체의 법률은 이중의 기원을 갖고 있으니 이 점이 바로 관례에 의하여 세워져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규칙을 표시하는 관습에서 법률을 구별하는 것이다. 법률은 이들의 관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 結晶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 지배자와 군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슬쩍 도입하려고 항상 관습에 편승한다. 이를테면 법률은 노예 제도를, 또 한계 급분화를, 그리고 가장家長, 승려, 군인의 권력을 도입하거나 신성화하거나 한다. 또한 그것은 농노 제도를, 후에는 국가에 의예종을 슬쩍 끌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는 사이에 멍에를 쓰게 되어, 벌써 유혈의 혁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멍에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이기도는 1793 년및 1794 년의프랑스인민에의한것보다도훨씬심각한것이되리라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을것이라고.

조], 만인에대한고도의복지수준을, 현명하게조직된코뮌주의적노동으로극히용이하게, 더욱이단시일내에이룩할수있는것이다. 이점에대해서는별썬조금도의심할바없다. 더욱이이때에각인은하루 4,5 시간의노동이요구될뿐이고적어도하루 5 시간의아주자유로운여가의시간을만인이가질수있게되었다.

따라서코뮌주의에대한이와같은반대론은별썬근거가박약한것으로되고있다.

그건그렇고, 개인주의적조류는금일두개의주요한지맥으로갈려져있다. 첫째는, 슈티르너의의미에서의순개인주의자이다, 이경향은최근에와서예술적향기가높은니체의저작의지원을받고있다. 하지만우리는이것에대하여상세히논하지않겠다. 이미앞에서나온한장에서말했듯이, 이‘개인의확립’이란것은형이상학적이어서실생활에서거리가멀다. 또한그것은일체의해방의기초를이루는평등의감정을훼손하는결과로이끌어간다. 어째서그러나하면, 남을지배하려고욕망하면서자기를해방할수는없으니말이다. 뿐더러그것은‘개인주의자’라자인하는사람들로하여금귀족, 승려, 부르주아, 관료등그들자신을대중보다‘우월한’자라고자부하는소수자에게접근케하며국가, 교회, 법률, 경찰, 군부기타의오랜세월에걸친온갖압제는다름아닌그들특권적소수자의존재에기인하는것이다.

또하나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의지맥은푸르동의의미에서의상호주의자들로형성된다. 이들의아나키스트는사회문제에해결을구하여노동권에의한생산물의교환을도입하는자유롭고자발적인조직을형성하려고했다. 노동권은주어진공업적수준에있어서어떤대상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시간수또는공공의이익으로인정된기능을수행하는데개인이소비한시간수를표시하는것이다.

이와같은제도는그러나사실인즉결코개인주의적인것은아니다. 그것은공동주의 [코뮤니즘] 와개인주의간의타협을표현한다. 말하자면생산자에대한보수에는개인주의가, 반면생산수단의소유에관해서는공동주의가채용되고있는것이다.

이이중성은우리가보는바로는, 이런형식의제도가운영될적에극복이안될장애물일것이다. 두개의대립하는원리, 즉한편으로는일정한날까지생산된모든것을공유로하고, 다른한편으로는생산된것에대하여개인주의를보존한다. 게다가그때이러한개인주의원리는취미도수요도무한히다양한사치품뿐만아니라어느사회에서나평가가한결같이정해져있는생활필수물자의생산에대해서도적용된다. 이러한원리로사회가조직될수는없는것이다.

다시다음과같은점도간과되어서는안된다. 즉거대사회에서산업이발달해있는경우지방에따라기계와생산방식에큰차이가있다는사정말이다. 이러한차이가있는까닭으로어떤기계를갖고같은양의노동을투하

한결과다른기계를사용하는경우보다 2 배나 3 내의생산량을올릴것이다. 이를테면금일의직물산업의경우직기織機의성능에대단한차이가있으니까, 한사람의노동자가관리할수있는직기의수는 3 대에서 20 대 [노오스로프직기] 까지로차이가난다. 다른한편으로도, 상이한생산부문에서개개노동자가소비하는근육노동과두뇌노동과의힘에도차이가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이와같은차이를고려한다면과연노동시간이생산물의매매교환상의척도로서쓸모가있는지어떠니하는문제가나올것이다.

현금의상업적교환이라면이야기는알만하다. 그러나노동력이매매되는상품이기를그쳐서벌써거래대상이아닌노동시간이란것에평가의기초를두는매매교환은이해하기어렵다. 노동시간이생산물의등가 [오히려근사치적평가액] 를산정하는데에쓸모가있는것은이미대부분의생활필수품에공동주의적원칙이승인되고있는사회에서뿐일것이다.

만약에개인적보수란이념에대한양보로서‘단순’노동시간에대한보수외에미리수업修業의연한을요하는‘숙련’노동에대한특별의보수를도입하거나직원의계층제도에있어서의‘승급의기회’를설정하거나한다면, 그결과는우리가잘알고있으며따라서그폐단을제거하는수단을강구하고자하는현금의입금제도의특징을부활하는셈이될것이다.

그렇지만상호주의자의이념은아메리카합중국의농업에서다소간의성공을거두고있으니거기서는약간의대농장조직에서작용을계속하고있는듯하다. 이역시잊어서는안될것이라하겠다.

상호주의자에접근하는것은아메리카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이니 그들은 19 세기 50 년대에 S.P. 앤드류스, W. 그린, 후에는리산다 ‘스푸너, 그리고금일에는여러해에걸쳐 『자유』 지를발행하고있는벤자민 터커에의하여대표된다.

그들의이념은푸르동에서유래하고있으나동시에허버트스펜서에서도나오고있다. 그들은아나키스트를구속하는단하나의법이있고, 그것은자기자신의일에스스로종사한다는것이다, 라는명제에서출발한다. 그래서개개인및개개집단은제각기하고자하는대로행동할권리가있으며, 가령그렇게할힘이있기만하다면전인류를복종시켜도상관없다. 만약에이들의원리가전면적으로적용된다면하등위험할것은없다고터커는말한다. 왜냐하면개개인의힘은다른모든개인의마찬가지의권리에의하여제한될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이생각하는것은우리의의견으로서는형이상학에과대한경의를갖고공상적억측을함부로하는것에불과하다. 어떤자가그렇게할힘이있기만하다면전인류를복종시킬권리가있고, 더욱이이권리는타인이가지는평등한권리에의하여제약을받는다고하는이런말투는그야말로변증법에빠지고있는것이다. 반면실제생활의영역에발을붙이고있는우리에게는성원의한사람의일이다성원전부는아니라하더라고그다

수에게무관계한그런사회또는다소간의공통한사항을가지는사람들의단순한집합체를상상해본다는것은절대로불가능하다. 하물며성원간의부단의상호관계가나머지다른사람들에대한각인의관심을조금도환기하지않고사회에대하여자기의행동이가져올결과를고려하지않고서도행위할수있는그런사회를생각해보려고해도그것은될수있는일이아니라하겠다.

그런가닭으로터커는스펜서와마찬가지로뛰어난국가비판론을전개하고개인의권리의강력한변호론을펴는일방, 타면으로는개인의토지소유권을승인하면서결국은개인주의자의시민들이서로동류간의싸움을연출하지않도록한답시고국가를재건하기에이른것이다. 허기야터커는국가에대하여그성원을옹호할권리만을승인했다. 하지만금일보이는바와같은막대한권리를갖춘국가가성립하기위해서는상기의권리와기능이승인되기만하면충분한것이다.

미상불국가제도의역사를검토해본다면, 개인의권리의옹호라는이구실아래세워지지않은국가가없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그법률, 침해된개인을보호할권한을받은관리들, 법률의적용을감시하기위하여세워진계층제, 법률의원류를연구하기위하여개설된대학, 법의이념을신성화하는교회, 질서를유지하기위한계급제도, 병역의의무, 그전매권, 끝으로그해악과그압제 - 이모든것은타인에의하여침해된개인의권리를보호한다고하는이제일의구실에서발전해나온것이다.

이상간략하게개관한것만가지고도어쨌서개인주의적아나키즘의체계가부르주아적‘지식인’간에신봉자를가졌을뿐근로자대중간에거의보급되지못했던가그이유가판연할것이다. 그러나그렇다해서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가그동지인공동주의자에대하여퍼붓는비판의중요성을승인아니할수없는것이다. 즉그들은아나르코코민주의자가중앙집권주의나관료주의편으로빠져떨어지는것을미연에방지하고일체의자유사회의제일의원천인자유로운개인에항상정신을쓰도록설득한다. 낡은미신에빠져버리는경향은진보적혁명가들간에서조차너무도많이보인다는것은우리도잘아는바이다.

금일아나르코코민주의는노동자간에 - 특히라틴계제국의노동자간에 - 확고한지반을구축하고있으며그들노동자는다소간에목전에박두한혁명행동의문제에관심을기울여벌써국가의해택에신뢰를두려고하지않게되었다.

제정당의무의한선동의권외에노동자의전투력을단결시키고선거라는허황한기구와는별개의유효한방식으로자기자신의힘과능력을헤아릴수있도록된노동운동은아나르코코민주의의제이념의발달에크게기여하고있다. 다음과같이예상하더라도이는필시과대한희망적관측에그치는것은아닐것이다. 즉도시와농촌과의근로대중간에진지한운동이전개되기비롯할때, 아나키즘의방향을향하여무엇인지가기도될것이다.